



12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12호

(루게 386)



◆◆◆◆◆◆◆◆◆◆

차 례

◆◆◆◆◆◆◆◆◆◆

영원히 당을 우러러	4
어머니당의 품	6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의 종자론의 전개	8
영원한 충성의 해발	11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강령적지침	31
은혜로운 사랑속에 꽃피난 우리 소설문학	37
혁명적서정이 내려치는 우리 시문학	41
따사로운 햇빛속에서 꽃피나는 아동문학	44
오산덕기슭의 초가집	48
이강산에 넘치는 충성의 노래	49

충심으로부터.....	52
어머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다.....	54
봄날의 거리에서	55
벨트콘베아건설장에서 온 편지	56
다듬은 말.....	66
평범한 나날	67
내 삶의 영원한 거울앞에.....	73
사랑의 포구가 되어	74
아들아, 이 길로 가자.....	75
분노의 화산을 터치여.....	76
다함없는 사랑이 넘치는 부두.....	78

영원히 당을 우러러

유성옥

파란 하늘빛

천지의 맑은 물 같아라

당이어 그대를 받드는

우리의 마음은

넘치는 자애로움과

승엄한 빛발로

눈부신 그대

더없이 신성하고 귀중한

그대의 품에 태어나

그 붉은 기폭아래

전사로 자라난 몸

어찌 그대 위해 바치는 마음에

자그마한 티도 있을것이나

아 가슴속에

기쁨을 안고 불러보는

더없이 신성하고 귀중한 그대

끝없는 사랑의 품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어

다른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아라

그대를 우러러따르는 마음엔

맑은 날 꽃은 날

사시절 또 영원히

맑고 깨끗함이 차넘치는

충성의 샘

퍼내고 퍼내어도 끝이 없는

우리의 이 마음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흐리지 않고

그 어떤 불별에도 마르지 않아라

당이어 그것은

나라 없던 암흑의 시절

피의 교훈을 거쳐

력사의 갈망을 거쳐

가슴속에 그득히 고인것이기에

그대 없이는

산기슭의 정든 고향집

해빛 따사로운

어머니 조국이 없고

락원의 창가에 넘치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가슴 가득 흘러드는

오곡이 물결치는 들향기

눈물겹도록 행복한

삶도, 긍지도, 미래도 없음을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리로 깨우친것이기에

그 마음은

눈속에서도 굴함없이 피어나는

만병초의 꽃잎

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태양만을 우러러 웃으며 따르는
해바라기 꽃송이

아 흘러간 세기들에
유구한 민족의 력사가 몰랐던
크나큰 위업을 쌓은 그대
영광의 그 높이우에
인민을 세워준 주체의 당이여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슬기로운
그대 위해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함을 지켜
한생을 우리 살거니
그대를 떠남은
곧 죽음과 같은것

하기에
푸른 하늘같은
고요한 눈동자를 들어
그대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미소를 남기고간
이 나라 전사들 그 얼마이더냐

그렇다 정녕
위대하신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해 바치는
백두천지의 맑은 물같이
깨끗한 충성심
이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노래

우리 마음의 창문엔
그대가 비쳐주는
하나의 해발밖엔 없어
그대 향해서만 열린 밝은 인생을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만
살고싶은 마음뿐이여라

아 대를 이어 꽃피어나가는
수천만 충성의 마음들에 받들린 당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처럼
주체의 한빛으로 누리를 채우는
당이여 그대는 지구우의
새 세기의 아침을 안아오며
나뭇기는 장엄한 기발
꺼질줄 모르는 찬란한 해빛

그대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
영예로 빛나는 구슬
그대 위해 걷는 걸음은
세기를 주름잡아 비약하는
시대의 크나큰 자욱

물불을 헤쳐가는
그 길우에
절사 쓰러진다 해도
살리라
당이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여
천만년 세월이 가도
변치 않을 충성의 한마음 안고
우리 영원히
그대를 받들어 살리라

어머니당의 품

윤명숙

해빛 따사로운
정든 길을 걸으며
나는 조용히 불러본다
당이란 말을

그러면
봄날의 기쁨처럼
가슴은 부풀어오르고
불을 비비며 안기는
어머니 가슴처럼
정다운 그 품

아 당이여
언제부터 그대의 이름
이 마음속에
그리도 소중했던가

그 품에
안아주며
이끌어주며
행복이란 말
사랑이란 말도
혁명의 언덕길을 넘으며
나에게 배워준
어머니당이여

포연의 불길속에서
나를 안아줄 때
내 처음 우러러
눈동자에 담고
가슴속에 새긴것은
해빛보다 따사로운
그 은혜로움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익히듯
나는 삶의 첫걸음마를 익히었다
그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 그대가 아니었던가
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
나에게 첫 비단옷의
옷고름 매여주고
어려운 복구에 날에
배움의 첫 문으로
손잡고 들어선것도

그 이름 부르기만 하여도
내 삶의 소중함을
심장깊이 새겨주는
어머니 우리 당이여

그대 아니었다면
내 눈빛
이리도 맑을수 있고
내 심장
이리도 궁지에 넘쳐
세차게 고동칠수 있으랴

로동의 나날
나는 알았더라
내 지켜서야 할
성스러운 자리를 가르쳐주던
당원들의 손길

그 심장을 거쳐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바쳐져야 하는가를

나는 알았더라
당원이란
청춘도 희망도
모든것 혁명에 바쳐
아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임을

그 뜨거운 심장들과
억센 손길에 떠받들려
그 불타는 눈길들이 바라보는 기대결에서
당이여 그대가 내 가슴에
붉은 당원증을 안겨줄 때

아 그대를 우러러
기쁨의 눈물에 젖어
나는 어찌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마지막길을 가면서도
그대에게 미소를 보내던
당원들을 생각했던가

혁명의 길에서
싸우다 쓰러진다 해도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심장을 주고
숨결을 주는 당

나는 아노라
낳아준 어머니품을 떠나서는 살수 있어도
당이여 그대의 품을 떠나

내 순간도 숨을 쉴수 없다는것을

당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삶의 요람
당은 우리의 운명을 맡긴
성스러운 혁명의 품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한마음
고동치는 심장에 새겨
다시금 불러본다
한없이 귀중한 그 이름
어머니 당이여

나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한
당의 그 품속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삶이 꽃피는
창창한 미래가 있나니

위대한 수령님의 당
결음마다
혁명의 폭풍을 일으키며
주체의 위업을 받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그대의 혁명전사로
새 삶을 빛냄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인가
그때문에 아, 그때문에
한생을 따르며 받드는
어머니당의 품이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의 종자론의 전개

최근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영화를 보는회운동 추진회의》 기관지 《아카이하나》12호에 데라오 도시오가 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의 종자론의 전개》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편집부는 글의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이의 지도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 주체예술이 전면적으로 꽃피고 있다.

오늘 조선예술은 혁명가극과 함께 혁명연극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예술발전의 이론적핵은 종자론이다.

종자란 무엇인가

종자론이란 어떠한 이론인가, 종자론은 예술을 하나의 꽃에 비교하여 말한것인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종자가 좋아야 한다는것이다.

혁명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종자가 좋아야 한다.

종자란 심오한 철학적사상에 기초하여 생활의 진리를 밝혀내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는 심오한 주제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자는 보편적이며 평범한 현실속에서 찾아야 한다. 진리는 언제나 평범한 일상생활속에 있다. 때문에 누구나가 체험하는 현실속에서 커다란 사회적문제점을 내포하는 철학적인 종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 종자가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활발히 꽃피게 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이러한 종자를 가질 때만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한다》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고전적혁명가극으로 알려진 《피바다》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온갖 형태의 학살과 만행, 고통과 빈곤을 피할수 없으며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생활의 진리 그리고 자주성을 빼앗긴 민족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일어나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종자로 되어있다. 만일 이 작품이 이러한것을 종자로 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1930년대의 일제통치하의 조선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수도 없었을것이다.

* * *

물론 종자는 이렇게 문학예술작품의 내용과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자만 좋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수립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그 종자를 그 요구에 맞게 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종자는 어디까지나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그 종자를 살릴수 있도록 모든 형상적수단들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면 형상적요인이란 무엇이겠는가.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인간관계는 소설, 영화, 연극 등의 작품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관계에는 사회계급적관계와 사회적 모순이 반영된다.

인간관계의 설정에서는 집단의 관계, 즉 긍정적인 인물집단과 부정적인 인물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개별적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영화《꽃파는 처녀》에서 긍정적인 인물집단인 꽃분이의 일가는 병으로 앓고있는 어머니, 눈먼 동생 순희, 감옥에 잡혀간 오빠 철룡이 그리고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하여 꽃을 꺾어 파는 주인공 꽃분이 등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영화의 종자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불행이 얼마나 크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일제와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지주, 자본가들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길밖에 없다는것이다.

이러한 종자를 발전시키는데서 꽃분이 일가의 인물설정은 매우 잘되었다. 우선 이 설정자체에 당시의 사회계급적모순 즉 지주나 일본제국주의와 광범한 인민대중의 모순이 집약되어있으며 종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꽃분이 일가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정신도덕적 풍모를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불행과 슬픔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형상하고 있으며 종자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하고있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키는것이다

설정된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작품이 제기하는 기본문제가 해명되게 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극적전개는 일관하게 종자의 사상을 부각시키는데 복무하며 거기에 모든것이 집중되게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꽃파는 처녀》를 보자

오빠 철룡이는 동생의 눈을 멀게 한 지주에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반항하고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만다. 그리고 꽃분이가 겨우 돈을 모아 어머니의 약을 살수있게 된 그날 바로 그날에 어머니는 약 한모금 넘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머니를 잃은 꽃분이가 눈먼 동생을 남겨두고 기둥처럼 믿었던 오빠를 찾아 감옥에 갔으나 오빠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백리 길을 슬픔속에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와보니 동생 순희마저 지주놈의 작간으로 깊은 산속에 내버려지고 없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극적전개는 모두가 이 작품의 종자의 사상을 잘 살려주고있다.

여기에 종자를 잘 꽃피우는데서 인간관계의 극적전개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전형적인 모범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인간의 감정심리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철학적인 심오성을 내포한 종자를 잘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그를 주인공의 감정과 심리세계를 반영시켜야 한다. 감정을 떠난 사상보다 더 무미건조한것은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감정과 심리세계의 묘사를 얼마나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중요

한것은 주인공의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하는것이다.

《꽃파는 처녀》에서는 꽃분이가 어머니의 약을 사가지고 순희와 함께 들길을 걷는 장면 (기쁨의 감정)으로부터 어머니의 시체를 부여안은 장면 (통곡의 감정)에로의 급격한 전개 그리고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되데다가 동생이 행방불명되었다는 불행까지 겹치여 비애의 감정이 커지는 과정, 그 모든것이 지주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되어가는 과정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의 감정변화를 매우 잘 조직하고 묘사하였다.

이렇게 감정변화를 치밀하게 조직하고 깊이 묘사함으로써 종자의 심오한 사상을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감동적으로 전개할수 있게 된것이다.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그리는것이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내포한 종자는 주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그려지며 꽃피게 된다. 따라서 그 성장과정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까지 치밀한 련관속에서 그리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주인공의 성장과정이란 결국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이기때문에 주인공에게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시키는것이 그의 세계관 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빼놓을수 없는 과제로 되며 종자를 훌륭하게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된다.

《꽃파는 처녀》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리에서 꽃을 팔고있던 꽃분이가 일본사람들이 네활개를 치면서 걸어가는 꼴을 보게되는 장면이나 오빠를 찾아가는 길가에서 동포들이 일제가 강요하는 노예로동에 시달리는 광경을 보는 장면 등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져있다.

이런것들은 꽃분이가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야를 넓히고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해가는데서 기초로 되고있다.

* * *

문학예술작품을 진실로 감동적인것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이 풍부한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먼저 좋은 종자를 쥐고 그를 옹계 발전시킬수 있게 여러가지 형상적수단들을 잘 복종시켜야 하는것이다.

이 종자론은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하여 예술발전의 방향을 잃기 쉬운 일본에서 드넓은 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라침판으로 될것이다.

영원한 충성의 해발

머리시

이 강산에 피는
한송이 꽃을 보아도
어머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강산에 비낀
맑은 하늘을 보아도
어머님을 먼저 그리는 마음

노래를 지으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꽃을 피우면
가장 아름다운 꽃
삼가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아 태양의 은혜로움을
따사로이 안겨주시고
수령님 모신 끝없는 행복을
우리의 가슴깊이 새겨주시며
충성의 해발로 빛나시는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설레는 백두밀림과 함께
락원의 이 강산과 함께
어머님께 드리는 우리의 노래
우리러 수령님 모시는 길에
청춘도 미래도 모두다 바치신
어머님의 그 불멸의 위업을 노래하노라!

1

이 이 나라 북변
기슭을 치며
물안개 걷어올리며
흘러흐르는 두만강

언제 보아도
변함없이 맑고
변함없이 푸르른
도도한 그 흐름

묻노니 언제부터 씁없는 그 흐름우에
이 나라 인민의 웃음이 실렸고
언제부터 너의 푸른 기슭에
꽃들은 피어 설레였던가

두만강
력사의 강 두만강
그칠길 없는
침략의 말발굽소리 강산을 덮고
저녁해 비낀 물결우에
정처없이 떠나가는
구슬픈 류량의 그림자 담아시고
흘러흐르던 강

가장 엄혹한 수난의 력사가
너의 물결우에 피눈물 뿌렸다
가장 거룩한 투쟁의 력사가
도도한 너의 흐름우에 격랑을 일으켰다

강이여
두만강이여!
조국의 마지막 기슭
세월의 이끼덮인 절벽가에
어리신 자옥을 짊으시며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건느실 때
너는 그 무엇을
영원한 그 흐름우에 새기였던가

고향을 잃고
조국을 잃고
가난이 서린 쪽박을
작은 보짐우에 엮으신
어머님의 그 모습
오래도록 물결우에 비끼던 강언덕

아 하소할길 없는 설음을
흐느끼는 물결우에 엮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바라보시는

깜깜한 하늘아래
두고 떠나신 조국은 그 어디던가

낮설은 하늘
낮설은 산천
깨어진 그 짙신 갈아신으시며
한몸 깃들일곳 없어
설음의 락수물이
원한의 고드름으로 맺히는 처마밑에서
하루밤
나라 없는 길손의 아픔을 남기시고
다시 살길 찾아 떠나신 길은 몇천리이시였던가

가도가도
눈물만 가슴속에 고이던
두만강의 구슬픈 여울물소리
가도가도
원한만을 가슴속에 서리우던
못잊을 고향산천

말하라, 두만강아
눈물에 젖고 원한이 서린
지주집 연자방아를 돌리자고
어머님께서 강을 건느셨던가
간악하고 악착한 왜놈의 토벌에
나어린 동생과 함께
피바다속에 외로이 남자고
정든 고향 조국산천을 떠나셨던가

찬바람 울부짖는
거칠은 들
재무지 흘날리는
피에 물든 부암동의 언덕
밀려오는 검은 구름장아래
어린 동생을 검은 구름장아래
어린 동생을 달래시며
가슴속에 피눈물 뿌리시던 어머니

재무지를 헤치며
찾고 찾아도
이른 새벽이면
샘물에 머리를 감겨주고
탐스럽게 땅아주던
그 정다운 어머니의 손길을

찾을수 없고

불에 그슬린
주추돌을 그리안고
부르고 불러도
석양이 비끼는 저녁이면
들에서 돌아오는 딸을 반겨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그 정겨운 목소리
이제는 들을수 없고

어둠속에서도 반겨주던
작은 등불
창밖에 눈보라 울어도
따스한 화목이 깃들던
그 정다운 집이
김정숙어머님이 그리워진
차디찬 한줌의 채로 남았는가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어왔건만
하늘끝에 간들 살라
눈물로 적시며
온 땅을 더듬어 찾아도
깃들곳 없는 캄캄한 세상

빛이 그리워
따사로운 한가닥 빛이 그리워
머리 들어 우러르던 그 새벽
어머님은 맞으셨어라
백두산마루에서 봄우뢰가 시작되던
빛나는 삶의 첫새벽을

떨기떨기
철쭉꽃 피는
박우물가에서
샘물에 손을 적시며
머리를 빗어넘기시며
백두산을 우러러
그리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니
어머님의 그 미소
어찌하여 그리도 밝으셨던가

아득히 은하수 흐르는

여름밤
쭉불가에 모여앉아
장수별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어머님 가슴에 새겨지던
그 별

비바람 뿌리고
눈보라 사납게 휘몰아쳐도
어머님 우러르는 하늘에
언제나 빛을 뿌리며 반짝이던
그 별

아, 새벽빛 어린 하늘가에
유난히 반짝이는 큰별 하나
이 나라 인민이
반만년 지나긴 세월
바라고 바라던 전설속의 장수별!
백두산의 장군별!

두만강, 두만강아 말하라
빼격이며 흐느적이며
설움의 나루배를 싣고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더니
너도 그 새벽
조선의 첫 행복의 미소를 담아실고
푸른 물결 높이쳐 굽이쳐 흐르는
이 나라의 장강이 되지 않았더냐

조선의 강
두만강아 말하라
유구한 너의 그 흐름은
그날 그 새벽
조선의 첫 기쁨을 안은
그 영광을 노래하며
이 나라 북변에
그 장엄한 뿌리를 두고
굽이굽이 흘러 흐른것 아니더냐

백두산마루에 빛나는
그 별빛을
우러르고 우러르시는
어머님 눈가에 이슬이 맺혀라
이날의 이 새벽을 위해
설움의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고

불행인들 얼마나 겪으셨던가

그 별빛
희망의 그 별빛
신념의 그 별빛을
가슴에 안으신 어머님
어머님은
그 별빛 우러려
밝아오는 조국의 아침을 보셨고
저 하늘처럼 창창하게 열리는
조선의 빛나는 래일을 보시었나니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받들어 영원히 살리라
충성의 신념을
불타는 가슴에
뜨겁게 새겨안으시는 어머님

두만강을
눈물을 뿌리며 건넌건만
해빛 안고 다시 넘으리
헤쳐넘은 수난의 길우에
아름인 쌓이고 쌓였건만
영광을 안고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가리

아, 삶의 길
신념의 길
투쟁의 길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첫 자욱을 찍으신
어머님의 그 길은
백두산에 닿아있어라!

2

아지랑이 피는
산기슭에
파릇파릇
새움이 돋는
봄이 왔다
피로써 안아지킨
근거지에 새봄이 왔다

긴긴 겨울
싸움속에서도

불에 그슬린 연장을 다듬고
배고파 우는 아이들 달래면서도
종자만은 배고 자던
그 마음들이
봄별이 무르녹는
근거지 밭이랑에 보습을 박고
씨앗을 뿌리어라

흰구름 저쪽
그어디선가 우짖는
종다리의 노래
씨앗을 뿌려가시는 어머니는
기쁨을 뿌리시는가
노래를 뿌리시는가

멀리 앞서가시며
씨앗을 뿌리시는
어머니를 따라
이랑을 밟아가는
근거지의 녀인들
가슴에도 봄은 왔어라

봄!
근거지의 봄!
희망이 새움처럼 솟는
이봄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푸른빛 떠도는
따스한 봄별을 받으며
이봄을 근거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준
어머니를 생각하여라

원썩들의 《토벌》에
집이 불타면
그 뉘보다 먼저 채무지를 끌어내고
주춧돌을 안아놓으시고
한줌의 소금이 없어
근거지사람들이 쓰러질 때면
공청원들의 앞장에서
적구의 눈길을 헤치시고

적들이 근거지에 밀려오면
남먼저 탄약상자를 이시고
유격대원들을 찾아
산으로 오르시고

달밝은 밤이면
개울가에 얼음을 까고
아동단원들의 옷을
얼음물우에 헤우시던 어머니

찬바람에 트고
얼음물에 젖어있던
어머니의 그 손이
닿지 않은곳 어디 있고
눈석이물에 젖고
눈보라에 얼어붙던
어머니의 그 자욱이
찍히지 않은곳 그 어디 있었던가

하지만
어머니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삶의 모든것이었던
근거지에 찬바람이 불었다
《반민생단》의 검은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쳤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걱정어린 목소리
옆집 젊은이가 또 끌려갔다고
건넌집 할머니의
울음섞인 목소리
유격대에 있는 아들이 또 잡혀갔다고
누군가 창문을 조심히 두드리며
전하는 말
적구에 나갔던 공청원들이 모두 잡혀갔다고

불안한 근거지의 밤은 깊어간다
어둠이 내린
참나무 숲을 돌고도시는 어머니
걸음마다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생각

장군님 주신 땅에
한이랑이도 곡식을 더 심자고
돌을 주어 내던
이웃의 그 젊은이가 《민생단》일가?
근거지를 지켜
눈보라 몰아 치는 산정우를

온 겨울 떠날줄 모르던
그 젊은이가 《민생단》일까 ?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적구를 넘나들며
반유격구를 펼치던
그 공청원들이 《민생단》일까?

이밤도
억울히 《민생단》 루명을 쓰고
《감옥》에 쓰러져있는
동지들을 생각하시며
잠 못 드시는 어머니님
참으실길 없으신 그 마음이신가

남겨두셨던 주먹밥을
옷섶에 감추시며
어머님 조용히 일어서실때
놀라 옷자락을 잡으며
그 걸음 막아서는 한 아주머니

-안돼요
그리로 가선 안돼요.

그러나
어머님의 그 걸음 돌려세울 말을
어떻게 찾을수 있으랴
한밤중에 돌아오신
어머님의 치마자락은
밤이슬에 폭 젖어있었어라.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아주머니의 나직한 목소리
하지만
어머님께선 말쑥없이
부엌 아궁에
불을 지피시여라

타오르는 불길을 보시면서도
《감방》속에 있는 그들 생각
김오르는
죽가마를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굶고있는 그들 생각

무거우신 마음을 안으시고
부엌아궁앞을 떠나실줄 모르시네
불시에 《토벌대》들 달려들었다,
새벽빛 어리는 근거리엔
자옥한 포연이 서리였는데
억울한 《민생단》의 루명을 쓰면서도
산에 올라
바위돌을 안아굴리며
달려드는 《토벌대》와 싸우는 그들
-저런 동무들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손잡고 싸운단말인가!

순간
탄우속에서
손더듬 눈더듬으로
펄펄 끓는 죽가마를 뿔아하시고
어머님은 산에 오르시여라

하건만
다가서는 어머님을 보고는
또다시 숲속으로 피하기만 하는 그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때문에 화를 입는다고
가까이 다가서시면
또다시 뒤로 물러서는
동지들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시며

어서 들라고
죽이 식는다고
주저하는 그들의 손에
이렇게 끝끝내
뜨거운 죽그릇을 안겨주실때

정녕 그들이 삼킨것은
받아든 한그루 죽물만이었던가
어머님 그 사랑에 목메이는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던가

그 사랑
그 뜨거운 마음에 눈물지으며
죽가마에 그슬린
어머님의 머리를 말없이 바라보는 그들
그들이 그 걱정어린 눈길을 보시며

웃으시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내 걱정은 말아요
동무들, 신념을 잃지 마세요

아, 혁명에 나선 그길
어찌 평탄한 길을 바라랴
한그릇 죽에 깃든 그 아픔
가슴에 뱉혀 가실길 없으신
어머님의 마음이신가
무거우신 그 걸음으로
천천히 꼴짜기를 내리는데
숨가빠 마주 달려오는
아주머니

어서 몸을 피하라고
놈들이 지금 어머니를 찾고있다고
저물어가는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서계시는
어머님을 흔들며
아주머니는 재촉하여라
어서 이 자리를 피하라고

불안한 숲이 몸부림친다
나무가지에 쌓인
눈송이들을 날리며
어두워가는 하늘에
검은 구름장들이 달려간다

.....

태연하게
놈들앞에 서계신
어머님
언제나 다름없으신
그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님은 말씀하시여라

-내가 《민생단》이라면
당신들은 무엇이예요!

뜻밖에
예리한 칼끝에
심장이 찢리운듯
이그러진 낮을 들며

그 검은 속심을 드러내는
놈들의 머리우에 불을 퍼붓듯
준절히 단죄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감옥》에 가든
그 《민생단》 혐의자들을
조직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놈들을 도와주는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그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예요!

그 누구도 머리를 들수 없고
그 누구도 제 생각을 말할수 없던
여기서
놈들을 향해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며
좌경모험의 망동을 규탄하시는 어머니

하지만
한그릇의 뜨거운 죽으로도
동지들을 구원할수 없고
서리발같은 분노로도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실수 없기에
장군님 계신 먼 북쪽하늘 우러르시며
실레이는 숲속을 걷고 걸으시여라

아득한 천리수해
저멀리 어디선가
눈석이 시작되던
그 이른 봄날
간고한 북만원정의 험한 령을 넘어
다홍왜의 얼어붙은 숲을 지나
삼도만 근거지로 오신
장군님의 부르심 받은
어머님의 그 가슴은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쌓였던가

자옥 자옥 옮기시는 그 걸음
불러주신 어버이 그 사랑에 목메이시며
가시는 그 길우에
행복의 이슬은 반짝이고
산속의 철이른 진달래도
봄을 불러 떨기떨기 피어났어라

이제 장군님을 뵈오면
무엇을 물어주실가
생각하시며
걸어온 길 더듬어보시고
물으시는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올릴것인가
생각하시며
가슴부풀어오르시는 어머니님
삼가 옷매무시를 바로잡으시며
조용히 걸음 멈추시여라

아, 승엄한 빛발이 비친
푸른 숲 언덕우에
한없이 자애로우신 모습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밀영으로 오신 장군님!

장군님을 우러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 가득차는 생각은
장군님 오셨으니
동지들이 구원되었다는 기쁨
그 기쁨이
풀릴길 없던
어머니의 가슴에 서리고서린
얼음장을 녹이며 흐르는가

간고한 시련의 길
그 길우에
혁명의 노래만을 안고 싸워온
너전사를 만나주시려고
천천히 숲속길로
마주 걸어오시는 장군님

장군님을 뵈오면
울리고싶고
아되고 싶은 사연도 많으셨건만
어머니 어찌하여
쏟아지는 눈물로 옷섶을 적시시며
단 한마디밖에
말씀올리지 못하셨던가

-장군님!

험난한 길에
참고참으셨던 그 눈물
눈물속에 장군님을 우러르시며
끝내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고
어머니께선 서계시는데
너전사의 그 이름 조용히 불러주시며
헤쳐오신 그 길을 헤아리시는 장군님

-잘 싸웠습니다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두빛 숲속에
봄빛은 흘러내리고
설레이는 밀림우에
새무리들 깃을 치며
백두의 봄하늘에 날아오른다

《반민생단》의 회오리속에서도
혁명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걸어오신 어머니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시며
장군님께선 다시 말씀을 이으시여라

-혁명가들은 언제나
동지를 믿고 싸워야 합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동지를 믿을수 없습니다

저 멀리 아득한 숲너머
시선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말없이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며
너전사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국땅 하늘아래
단 하나 남은 동생마저
눈속에 묻고 떠온 너전사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듯
안색을 흐리시며
장군님께선 오래도록 무거운 걸음 옮기시여라

-우리가 압록강을 건느고

두만강을 건너서
백두산에서 싸우는것은
짓밟힌 나라를 찾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것입니다

순간
새봄이 숨쉬는
조국강산에
해방의 빛발이
천가닥 만가닥 비껴간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끝없는 영광
끝없는 행복
이세상 그 모든 기쁨을 다 안으신
어머님
일제의 철쇄에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어머님은 마음속에
부르고부르시여라

조선아!
조선아!

3

아침이면
백두의 첫 노을빛이 물들고
저녁이면
천지의 첫 별빛이 어리여라
어머님 입고계신 그 군복우에

변함없이
장군님을 받드시는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
그 마음 별이 되어
어머님의 군모우에 빛나시는가

아득한 밀림
질은 단풍잎이
흐르는 내물에 어리어
속삭이는
백두밀림의 가을

백두산기슭
맑은 물가에

산나물을 행구시며
언제나 마를줄 모르시던
어머님의 그 손에

아, 장군님
백두산의 떡갈나무 물을 들인
첫 군복을 안겨주실 때
어찌하여 어머님의 눈가엔
그리고 맑은 이슬이 고이셨던가

기나긴 세월
이나라 너인들
설음의 눈물에 삭던
그 치마저고리를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입으신 그 군복이
장군님을 받드는
혁명전사의 제복임을
뜨거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안으신 어머님

백두산 줄기줄기
천만 골짜기 산발마다에
군복자락 날리시며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어머님 걷고걸으신 길
그 얼마였던가

밀림우로
첫 기러기떼 날아가던
그 어느해 가을였던가
밀림의 락엽소리를 들으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으시고
어머님께서서는 말없이 서계시여라

흘날리며 떨어지는
락엽을 손에 드시고
생각 깊으신 자옥을 옮기시던 사령관동지
너전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하시는 말씀

-겨울이 가까왔소
이 겨울을 나자면
수백벌의 군복이 필요하오...

머나먼 적후에서
부대로 돌아온 너전사에게
또다시 아름답한 임무를 맡기셔야 하는
무거운신 그 마음이신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이제 너전사가 가닿아야 할
밀영의 험한 길을 헤아리시는듯
아득한 산발을
말없이 바라보시는 사령관동지

어려운 일이면 가장 어려운 일을
무거운 임무면 가장 무거운 임무를
언제나 먼저 맡겨주시는
그 믿음에 기쁘시고
그 믿음에 행복하시여
사령관동지를 우러르시는 어머니님

장군님 옮기시는 그 발자욱소리에서
크나큰 뜻을 새기시며
어머님 지으시는
티없이 깨끗한 그 미소속에
너전사의 일편단심은 불타고있었나니

그 불같은 맹세
그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하신
어머님이시기에
천년을 잠자던 밀림을 깨우고
물소리 높은 울기강의 흐름우에
쉽없는 재봉기소리로 가득 채우지 않았던가

산새들의 청 고운 노래와 함께
설레이는 숲의 노래와 함께
정답게 울리는 재봉기소리
피여오르는 아침노을과 함께
기울어지는 삼태성과 함께
울기고 또 울리는 재봉기소리

그 소리 노래로 담아실고
울기강의 여울은
몇날몇밤을 흘러흘렀더니
밀림의 한끝에 솟아오르던
초생달이 둥그러지고
그 달이 다시 조각달로 바뀌며-

한달안에 지으라신
장군님의 명령스무날에 끝내시려고
천무지도 스무개로 나누어 가려놓으시고
밤마다 등불심지를 돌구시며
재봉기를 돌리고 돌리시는 어머니님

재봉기소리 재봉기소리
울기강의 이 밤은 기쁨의 밤
이제 남은 군복은
마지막 세벌
하건만 쉽없이 돌아가던 재봉기는
한밤중에 문득 잊어버렸다

밀영에
기쁨의 노래를 울려주고
웃음을 피워주던 재봉기
단 하나밖에 없는 바늘
그 바늘이 닳고 닳아
한쪽 귀가 터지고말았구나

말없이
귀터진 바늘을 쥐고계시는
땀에 젖은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누구인가 속삭이여라

-세벌이 남았는데
이젠 손으로 짓자요

하지만 푸른 달빛아래
쌍이고 쌍인 군복더미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깊으신 생각에 잠기시는 어머니
어머님께선 터진 바늘귀를 다시
손끝으로 쓸어보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시여라

-사령관동지께서
대원들에게 입히실 군복인데
남은 세벌이라고
손으로 지어서야 되겠어요.

한벌을 지으셔도

수백벌을 지으셔도
오직 하나 장군님 바라시는
거기에 모든것 따라배우시는
어머님의 숭고하신 그 마음

오직 하나
장군님께 기쁨 드릴
그 한생각에 뜨거운 밀영의 밤
처마끝에 새별도 기울어
밀영은 새벽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또다시 울리는 재봉기소리
끊어지며 이어지며
다시 돌아가는 재봉기

아, 이 한밤을 새워가시며
어머님은 홀로
재봉기를 돌리시여라
가까이 다가서는 발걸음소리도
듣지 못하신듯

귀터진 바늘로
한뼘한뼘
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으시고
실이 빠지면 다시 이으시고
손끝에선 피가 저도
천천히 재봉기를 돌리시는
어머님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대원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라

한뼘
또 한뼘
누벼가시는 그 군복우에
대원들을 아끼시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아버이사랑을 새기시고

한벌
또 한벌
지어가시는 그 군복에
장군님을 받드는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무조건성의 신념을 갈피갈피에

수놓아가시는 어머니님

이 군복이
혁명군의 승리의 갑옷이 되어
장군님 따라
눈보라 천리
비바람 만리를 뚫고
탄우도 포연도 헤쳐넘어
해방의 새아침 마중해가리

밀림속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달빛이여
너의 천가닥 만가닥을 다 이어도
이렇게 어머니
오리오리 이어가시며 누비신
그 실보다 길었던가

항일의 길고긴 날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어머님 돌리신 재봉기소리
세상에 이보다
가슴을 울려주는 노래 또 있었던가

말하라
푸른 숲 설레이던 청산수골짜기여
군복천을 마련하시려
젖은 신발 말리실 사이 없이
어머님께서 거친 물결 넘나드시던
압록강의 그 밤을

하얀 성에가
들창가에 두텁게 얼어붙리던
밀영이여 너도 말하라
원쑤의 탄환이 귀전을 스치는 순간에도
무릎우에 재봉기를 놓으시고
군복을 지으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사나운 눈보라
불어치고 불어치던 청봉의 밀영
혁명의 비겁한 배신자들이
재봉기를 멈추려
악랄하게 날치였어도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장군님의 그 발걸음소리에 맞추어

군복을 누비시던 어머니

조선혁명의 첫 무장대오가 태어나던

4월의 그 봄날에

강반석어머님 밤새워 지으신

장군님의 첫군복

그 군복에 담으시던 그 뜻을 생각하시며

어머님 짓고 또 지으신 군복

천이라, 만이라

울린다 재봉기소리

날이 새면

저멀리 산너머 계시는

사령관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리

그 다가오는 시각을 기쁨속에 그리시며

동터오는 새벽까지 돌리고돌리시는

어머님의 재봉기소리 재봉기소리

한오리 바느실을 꿰시여도

한뜸의 군복을 누비시여도

장군님의 명령 하나만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총잡고 격전장을 달리시는 마음처럼

아,백두밀림의 광막한 숲을 넘어

어머님 돌리시는

재봉기소리 울리고울리여라

새벽하늘가에 끝없이 끝없이...

4

잠자던 밤안개

서서히 푸른 숲우에 감도는

이른새벽

굽이굽이 아득한 하늘가에

희미시 드러나는 령길

이슬내린 그 령길로

수수한 흰저고리 검정치마

목도리를 단정히 두르시고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령을 넘으시여라

총을 잡고

밀림속을 달리실 때면

이름난 명사수로 백두산골짜기마다

그 명성 펼치시더니

이 새벽엔

수수한 산촌녀인의 차림으로

이름없는 마을을 찾으시여라

항일의 대오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나아가시는

장군님의 앞길에

길을 여시며

진군의 길을 여시며-

찾으시는곳마다

마을사람들의 누이가 되시고

언니가 되시여

온 동네가 따르는 어머니

어머님 찾아오시는 그 밤엔

마을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별이 솟고 달이 솟아

설음 깊던 집집의 들창가에

웃음은 피어나고

가난과 눈물만을 찢던

고달픈 마을의 발방아소리도

어머님 찾아오시는 그 밤에는

웃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

달빛 모아 별빛 모아

유격대의 군량미를 찢어라

보라빛 노을처럼

감자꽃 한창인 초여름

호박넝쿨이 울바자를 기어오르는

귀틀집 토방가

유격대원호물자를 안고온

마을녀인들

이저녁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기쁨에 넘쳐 들썩하여라

두툼히 말은

등사원지를 내놓으며

뒤따르던 순사를

감쪽같이 속여넘겼다는

갑산집어머니의 너스레에

웃음이 일고

겉 많은 가게방주인

그 마음 돌려세워
깊숙이 감췄던 지하죽마저 빼냈다는
풍산집 새아기의 이야기에
웃음은 또다시 일고

유격대를 돕는 일
기쁨이 되고
조직이 주는 일
사는 보람이 되어
저녁마다 모이는 마을너인들
어엿한 그 모습 바라보시는
어머님 눈가에도 미소가 어리는데

난데없이
동구길에 울리는
말발굽소리
개짖는 소리

그러자 울바자를 바람처럼 돌아
달려온 너인의 급한 목소리
-놈들이 와요

뜻하지 않은 순간
(어찌할가?)
토방에 놓인
원호물자 안으며
마을너인들
어머님만 바라보는데

찾은 말발굽소리
가까이 들으시며
위급한 순간에도
태연하게 토방을 내려서시는 어머님
-모두들 얼른 감추자요
그러시자 안고온 등사원지도
이고온 보침도 순간에 감춰지고
선창을 떼시는 어머님 따라
모두들 즐겁게 부르는
마을너인들의 노래소리

어머님 넘기시면
모두들 따라서 받아넘기고
한곡조 넘기면
어머님은 다시 선창을 떼시는데
군화끈 죄여맨놈들
개무리모양 마당에 쓸어든다

-여기서 뭇들 하는가?
-적적한 산골에서 사노라니
이렇게 모여서 놀지오다!
갑산집어머니의 그럴듯한 너스레

달려든놈들 뱅뱅하여
너인들을 훑어보더니
그래도 의심스러운듯
집안팎을 뒤지며 돌아친다

짚단속에 감춘 등사기는
알아낼 길 없었던만
헛간 복데기속에서
종이통구리 들고나오는 놈들
갑산집을 노려볼 때
그래도 태연한 그 너인

-야학에서 쓰는거우다
-야학?
그런데 왜 감추었는가
-나리님두.......
여기가 어떤곳이라고
문을 열면
백두산이 지척인데...

살기핀 눈초리
떨어지는 불호령
안경을 번뜩이며
집주인을 찾는다

(집주인?)
이런 때
이런 시각
그 고향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님 어찌 모르실수 있으랴
놈들에게 잡혀가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으리
그렇다면
위험한 그 길로
집주인을 어떻게 보낼수 있단말인가

한명의 동지
그가 자랄 때

조직이 자라고
조직이 자랄 때
장군님의 크나큰 뜻은 꽃피리니
마음속에 다지시는
어머님의 비장한 결심

-이 집 주인은 나요!

아, 혁명동지를 위하시여
혁명조직을 지키시여
자신의 한몸을
놈들의 총칼앞에
서슴없이 내대시는 어머님

어둠에 잠긴
비뿌리는 동구길에
따라서고 따라서는
마을너인들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이제 곧 돌아온다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타이르시던 그 모습

그 모습
그 걸음으로
사람들 가슴마다에
굽힘을 모르는 신념을 안겨주시며
어머님은 걸어가시였어라

어두운 철창가에
흘러드는 달빛
희미한 그 달빛아래
웃기를 여미시며
정히 머리를 다듬으시는 어머님

딘고 녀으신 악형의 고비
피어리고
이제 녀으실 고개
험난 하여도
오로지 장군님 우러르며
장군님 뜻으로 키우신 조직앞에
한장의 편지를 남기시는 어머님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고요한 달빛이 흘러드는
철창속의 마지막 이 밤마저도
생명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흐르는 달빛도 흐느끼는가
철창가에 이슬이 맺혀라

조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조직!
일편단심
장군님을 받드시는
어머님의 그 마음도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조국해방의 그 날을
이 땅우에 꽃피우고싶으신
어머님의 그 마음도
조직에 있지 않았던가

하기에
그 마음
귀밑머리 바람결에 날리시며
벗은 발로
사형장에 나가실 때
막아서고
또 막아서는 마을사람들
어머님은 웃으시고
마을너인들은 흐느끼고

험한 언덕길
가시덤불을 밟으시며
맨발로 걸어가시는
어머님 앞으로
갑산집어머니는
눈물에 젖은 짚신을 들고 달려간다

자기들을 위해
조직을 위해
험한 길 다 걸으시고
마지막 가시는 이 길조차
맨발로 가시는
어머님의 그 발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쥔 손을 신겨드리는
갑산집어머니

천만 목숨을 바쳐서
귀중하신 그 한몫 대신할수는 없는가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해
웃으며 가시는
그 걸음
우리의 천만걸음이 대신할수는 없는가.

아, 바람도 몸부림치던
그날의 그 언덕을 넘으시며
장군님의 해발이 되시여
어머님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싸우시며
투쟁의 붉은 씨앗 뿌리신 혁명촌은
백두산 즐기즐기에 그 얼마나 많고많았던가

깊은 골짜기마다
단풍이 불불는
맑고 푸른 가을날
장군님 보내주신
그 은혜로운 손길에
구원되신 어머님

찾아오시던 그날처럼
수수한 치마저고리
밤색 목도리를 두르시고
변함 없으신 그 걸음으로
령길을 넘으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여라

오실 때에는
낮선 길 걸어오시였어도
가실 때에는
온 마을이 떨쳐나
눈물지으며 바래워드리는 어머님

가시는곳 사시는 주소 물으면
언제나 똑같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주소는 언제나
김일성장군님 계시는곳입니다

아, 가시는곳이
설사 더 깊은 적후라 하여도

어머님 계시는곳은
언제나 장군님 계시는곳

장군님 생각이 닿는곳엔
어머님 생각 언제나 닿아있고
장군님 바라시는 길이면
어머님 벌써 그 길우에
장군님의 해발을 뿌리시며 서계셨어라

적후에서 적후으로
어머님 걸으신 그 길에
혁명조직은 일어서고
어머님 헤쳐가시는 길에
해방의 봄을 안고 마을사람들 따라섰거니

그 길우에
도도히 굽이치는 거센 흐름
반일전에 일떠선 인민은
어머님 따라
장군님 품으로 달려가고 달려갔어라!

5

그해는
백두산에 눈이 깊었다
눈보라는 천리밀림을 파문었고
천년고목들은 신음하며 쓰러졌다

얼어붙은 진대를 넘어
달려드는 왜적을 물리치며
조국으로 진군하는 사령부
부대는 열흘동안 눈속에 있었다

눈보라우에
자욱을 짙으며 나아가는 대오
엄혹한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는
사령관동지의 총신은
언제나 달아있었다

한줌의 난알로
사령부는 하루끼니를 예우며
눈을 움켜쥐고나아가는
휴식 없는 혈전의 길
사령부는
적의 포위를 뚫고
눈깊은 밀림속에 숙영의 자리를 폈다

길길이 타오르던 우등불도
하나 둘 스러지고
설레이던 밀림도 깊은 잠 들었는데
한송이 두송이
밀림우에 밤눈이 내린다

소리없이 눈은 내리고
눈은 내리어 쌓이고 또 쌓이건만
어머님은 한뿌리 또 한뿌리
골짜기를 내리며
고개를 넘으며
풀뿌리를 캐시고 캐시여라

풀뿌리 풀뿌리
고달퍼도 캐셔야만 하는 풀뿌리
아, 항일전의 날
이렇게 어머님 캐신 풀뿌리는 얼마였던가

한 뿌리를 캐시고는
골짜기를 눈여겨 살피시고
또 한뿌리를 캐시고는
거뒀한 룡선을 또 살피시는 그 자욱
이 밤도 헤쳐가시는 그 자욱우에
푸름푸름 새벽이 동터오는데

눈아래 골짜기에서
얼핏거리는 검은 그림자
(웬 그림자일까?)
마음 다잡으시며
바라보시는 그 한순간
어머님의 짜창은
잠든 새벽을 흔들어깨웠어라

다음엔
나는듯이 적을 달고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
또 한방
유인전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그 다음엔
철의 불줄기를 뿜으며
골짜기를 향해 쏟아져내린
경위중대의 기관총소리, 몰사격소리
.....

사령부를 보위하는 한순간의 전투

마지막 총소리도
술너머 비껴가고
밀림엔 다시 정적이 깃들었는데
그 어디에 계시는가
어머님만은 상기 돌아오시지 않으시여라

산발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리며
어머님을 찾고찾던 동무들
문득 한그루 진대나무앞에서
엄숙히 걸음 멈추어라

사령부의 위험을
한몸으로 막으신 어머님
눈깊은 진대나무에 기대시여
쪽잠이 드시였어라
한손에는 권총을 쥐시고
다른 손에는 언 풀뿌리를 꼭 쥐시고...

어디선가 깊은 눈속에
나무가지 꺾어지는 소리
언뜻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깊은 꿈자리에서조차 일어서시던
어머님이시건만
흰눈가루 날리는 진대나무에
조용히 몸을 실으시고계시여라

백두산 줄기줄기
천만줄기에
별이 뜨고
달빛이 흘러흘러
그 얼마였던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며
밀림의 긴긴밤을 새우고새우시던 어머님
이 새벽 깊은 눈속에 쪽잠 드시였구나

그 누군가
불어오는 새벽바람을 막아서며
눈자욱 삼가 밝고
어디선가
녀전사의 흐느낌소리

지휘관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시며
천천히 걸어오시는 사령관동지
가실 길은 멀고

떠나셔야 할 시각은
길을 재촉하건만
눈내리는 새벽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조용히 걸음 멈추시여라

-깨우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 잠시 기다립시다!

아, 그렇듯 아끼시는
너전사의 잠을 지켜
사령관동지께서도
이 새벽
내리는 눈을
어깨우에 맞으시는것인가

언 풀뿌리 손에 쥐고
눈우에 꼭잡든 너전사에게
마음밖에 더는 주실수 없는
무거우신 생각을
눈우에 새기시는 사령관동지

간도의 피바다속에
부모 동생 다 잃고
설음 많은 그 가슴에 총을 안은 너전사
준엄한 혁명의 길우에
한떨기 붉은 꽃으로 피여
비바람 눈보라를 이겨낸
너전사의 그 마음 읽으시는듯

저 멀리 눈에 묻힌
높낮은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더듬으시는 못잇을 추억...

언젠가
눈이 깊은 행군길에서
젖은 군화를 말리시다
신바닥에 깔린 달비를 보시고
너전사를 가까이 부르셨을 때
말없이 머리만 숙이고 서있던
그날의 그 모습 더듬으시는듯

눈이 내린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어머님의 군모우에 어깨우에
눈은 내리고
꿈을 꾸시는듯

어머님의 입가엔 미소가 흐른다

풀뿌리로 뿜인 식사를
사령관동지께 올릴 때면
송구하시기만 하던 어머님
하지만 너전사의 그 마음 헤아리시여
언제나 웃으시며 드시던 사령관동지께
오늘은 그토록 바라시던 소망을 푸시는것인가

눈이여, 밀림에 내리는 흰눈이여
어머님의 잠을 깨우지 말아
어머님의 아름다운 꿈을
눈송이마다 피우며
밀림우에 눈이 내린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눈보라 천만리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우에
산발은 얼마나 높았고
강물은 얼마나 깊었던가

설레는 밀림
눈물에 젖으시며
태양을 우러러 부르시던
행복의 그 노래를 싣고
끝없이 흐르던 밀림의 바다우에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남패자를 떠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시던 그 기슭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지켜
변절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그날의 그 어머님을 반겨
송엄히 설레던 백두밀림에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불타는 대사하
한몸 그대로 성벽이 되시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며
어머님 지켜서시였던 그 언덕에
눈이 내린다

뜨거운 소원도

아름다운 꿈도
 청춘의 희망도
 사령관동지를 받들어 꽃피우시고
 사령관동지를 위해 바치시며 걸어오신
 어머니의 깨끗한 마음인양
 소리없이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6

해마다 봄이 오면
 꽃들이 피고
 해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붉게 타는 오산덕기슭에
 그리운 마음처럼
 초가집은 변함없이 서있어라

눈물을 안고
 어머니 떠나시던
 그날에 열린 사립문은
 어머니를 기다려
 언제나 열려있고

그날에 건너가신 두만강나루엔
 작은 나라배 한척
 어머니를 기다려
 오늘도 기슭에 떠있고

저멀리
 북행렬차의 기적소리 울려올 때면
 어머니 오시는듯
 신호등 푸른 불빛이 흔들리는 철길우에
 간절한 마음 달리는 회령땅
 조국이 해방되면 정든 고향에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자주 외우시더니
 아름다운 이 강산에
 새조선의 아침은 밝아왔건만
 어머니께서는 어찌하여
 고향땅 회령에는 끝내 들리지시지 못하셨던가

항일전의 그날
 조국땅이 바라보이는
 높은 산마루에서
 회령은 어디쯤 되는가고
 사령관동지께 물으시면
 구름우에
 점점이 솟은 산발너머
 손을 들어 가리키시며

-정숙동무의 고향은
 저기 저 산너머입니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불러주시던 회령땅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아
 산이 막혀 보이지 않아
 어머니 발돋움하시며
 것처럼 그리워
 그리움을 실어보내시던 고향땅

그 고향땅에
 어머니를 모시고싶은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한장의 차표를
 어머니께 올렸던 그날
 어머니께선
 고향으로 가는 북행렬차를 타시려고
 이름없는 한 중간역에 나오시었던가

꽃들이 피는 역구내
 렬차가 들어올 시간은 아직 멀었건만
 기쁘신 안색으로
 두줄기 철길을 바라보시며
 차시간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이 아침도 어머니는
 장군님의 품을 찾아
 온 나라 곳곳에서 모여드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마중하시러 나오셨어라

간고한 혁명의 길우에
 수없이 잃으신 전사들의 이름을
 아프신 마음으로 두고두고 외우시며
 그 유자녀들을 걱정하시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
 그 사랑, 그 해발을 가슴에 안으시고
 날마다 유자녀들을 찾으시며
 바람부는 길우에 서계시는 어머니

아, 그 마음이사기에
 이 아침도
 렬차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그렇듯 길어보이시는것인가

저 멀리 기적소리 울려와도
어머님은 마음조이시며
렐차가 달려올 산굽이를 지켜보시여라

마주 달려가시여
어서 불안고싶으신 아이들
이 세상 모진 설움 다 겪으며
피눈물속에 자란 그 아이들
렐차는 서서히 들어서고
아이들은 승강대에서 쏟아져내린다

함께 못은 부모생각에
이런 때 눈물이라도 흘릴줄 아는 나이라면
덜어드릴수도 있으련만
천진하게 웃으며 서있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더욱 피로우시여라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어서 장군님을 뵈우러 가자

아, 진정을 못하시는
어머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따뜻한
정이 있음을
그제사 깨닫는가
그 사랑에 목메여
그리움에 사무쳐 부르는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

- 어머니!

세월의 한계를 넘어
무궁할 사랑
인정도 의리도
그처럼 뜨겁게 지니시고
아버이수령님 한품에
우리 인민모두를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이여

소식 없는 일가분들도 찾아보시고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에도 다녀오시라고
전우들은 그렇듯 간절히 청을 드렸건만
그때마다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새 조선을 건설하시려고
장군님께서 매일밤을 지새우시는데
어떻게 제가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내겠어요

아, 그리운 조국땅에 돌아오셨어도
수수한 무명옷 한벌을 입으시고
백두산에서 싸우시던 그날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이 땅우에 꽃피우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뒤로 미루시던
어머님의 그 고결하신 마음이여

불이 꺼진 제강소의 구내길을
우리 수령님께서 걷고계실 때
천대와 학대에서 해방된
이 나라 녀성들속에 어머니는 계시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의 발머리에서
농민들과 함께 패말을 박으실 때
유자녀들을 찾으시여
어머님 걸으신 길 그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한몸으로 백가지 일을 맡아하시고
언제나 수령님 심려하시는 그곳에 계시여
그 심려를 덜어드리신 어머니
그렇듯 불같이시고
그렇듯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아, 뜻밖의 무거우신 병에 누우실줄 어찌
알았으랴

철이른 락엽이 정원에 날리던
그 가을날
무거우신 병환에 계시는
어머님의 머리말을 지켜신
안타까운 마음들이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어머님 조용히 머리를 저으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어라

-그러지들 말아요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선 안돼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거예요.

눈물에 젖은

전우의 그 손을 더듬어잡으시며
애써 조용히 지으시던 그 웃음

생명이 위급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어머님께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며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그 밝은 미소로
받들어가지지 않았던가

하기에 떠나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은 그 시각에도
오히려 자신의 고통보다
크나큰 아픔을 안으시고
자리를 뜨시지 못하시는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시던 어머님

한생을 험난한 길에서 충성을 다하며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영원히 받들어가리라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시며
그리도 비통하시여
말씀 없이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가다니...)

아, 이리도 짧은 한생을 마치자고
그리도 긴긴세월
찬바람, 찬눈을 헤치며
험한 산 험한 령을 넘고넘었던가

그처럼 잊지 못하던
고향땅도 밝아보지 못하고
언제 한번 편히 쉬여보지도 못하고
고생이란 고생 다 겪다가
이렇게 영영 떠났단말인가

너무도 짧고

너무도 일찌기 간

그 빛나는 한생을 더듬으시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선
갈리신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해방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아, 크나큰 슬픔에
흐느끼는 하늘밑으로
어머님을 잃은 이 비통한 소식을
회령땅 고향집에 전하려고
새들도 슬피 울며
북으로 북으로 날아가고

어머님의 숨결이 어려있고
어머님의 충성의 자욱을 고이 간직한
백두의 밀림도
어머님을 잃은 이 크나큰 슬픔에
천고의 가슴을 헤치며 몸부림치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태양을 모시고 돌아오신 어머님을
진주보석 뿌리며 맞이하던 동해바다도
천리기슭을 치고 또 쳤어라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모시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오신
혁명의 어머니 위대한 김정숙어머님!
어머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셨어도
우리 인민을 충성의 한길로 이끄시며
언제나 조국의 하늘에
찬란한 별로 빛나고계시여라
언제나 조국의 하늘에
끝없이 끝없이 빛나고있어라

맺음시

하얀 백살구꽃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두만강의 물소리 정다운 고향땅
아름다운 오산덕기슭에
어머님께서 서계시여라

단정하신 군복차림
밝으신 그 모습
오늘도 먼길을 떠나실듯
새벽이슬을 밟으시며
고향의 언덕을 내리시는 어머니

노을비끼 하늘가에
나래쳐오르는 장엄한 조국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담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그 얼마나 행복에 젖어있는것인가

조국의 하늘가에
낮익은 새들의 첫 날음소리
초록빛 잎새우에 떨기떨기 웃는
들꽃의 첫 속삭임

금나락이 물결치는
황금빛 들판우에 웃음을 실어보내시고
붉게 핀 노을처럼
하늘을 물들이는
대강철기지들의 장엄한 노래를 들으시며
어머님께서는 걸어가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며
한평생 걸어오신
변함 없으신 그 걸음으로
이 아침도
위대한 수령님 가시는
현지지도의 그 길우에
걸음걸음 기쁨을 가꾸시고
행복을 꽃피우시며 걸으시는것인가

그늘을 모르는
이 나라 녀인들의 그 마음속에
빛나는 래일을 펼쳐주시며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이 나라 꽃봉오리들의
그 씩씩한 노래속에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따사로운 그 미소를 보내시여라

가장 간고한 날에
가장 큰 기쁨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이 땅우에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시고
밝아오는 조국의 하늘에
백두산의 해돋이를 펼치시며
이 땅우에 영원한 앞날을 펼쳐주셨거니

아, 그 위업은
이 땅, 이 인민이
우러르며 따르는
당중앙의 불빛속에 빛나고
그 위업은
주체의 화원으로 만발한
이강산 어디에나 꽃피여라

길지 않은 생애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우러러모시는
충성의 첫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오직 그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고
위대한 주체의 혁명대오의 첫 기수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높으신 뜻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충성의 꽃으로 피었나니

길이길이 빛나라
조선혁명에 남기신
어머님의 그 불멸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기치아래
찬란한 공산주의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우리 혁명이 나아가는 앞길에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박세옥, 문재건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강령적지침

강능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수행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혁명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았다.

우리 당의 이 독창적리론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미학적본성과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개성이 고도로 발양되는 정신적창조과정으로서의 문학작품창작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문학이 바로 문학으로서의 혁명에 적극 복무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심오하고도 위대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혁명과 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우리 문학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훌륭히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 우리의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담

1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 문제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미학적본성에 관한 문제이며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예술성에 관한 문제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의 창작가적인 자세, 근본방향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인류문예사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문학작품창작에서 개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를 일관하게 제기하고 그를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탐구의 길을 걸어왔다.

인류문학이 해결을 기다려온 이 절박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보게 되었다.

게 복무하려면 문학의 예술적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생활을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특수한 형태인 문학이 자기의 고유한 본성에 맞게 형상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교양적사명도 수행할수 없다.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 기본고리는 창작의 독창성과 개성을 잘 구현하는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의 본질과 내용,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과 실천적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력적지침이며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적요구대로 생활과 인간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며 문학작품창작사업에서 작가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한층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전하고도 과학적인 해답을 준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참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창작적개성론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수준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으며 주체문학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고수하고 찬란히 빛내일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의 특성,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관한 심오한 해명과 우리 문학의 현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를 문학작품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작품창작에서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우리 당의 이 리론은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자세로, 문학작품창작의 필수적요구로 되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문학작품창작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문학의 원천

이며 그 묘사대상인 인간과 그 생활의 특성과 관련된다.

인간과 그 생활은 언제나 비반복적이며 개성적인 동시에 무한히 풍부하고 다양하다. 현실에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인간의 운명과 생활도 또한 구체적이고도 개성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발현된다.

현실생활의 이러한 다양성과 비반복성은 그것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하여야 할 우리 문학이 또한 끝없이 다양하고 개성적일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오늘 우리의 혁명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이 더없이 풍부하고 다양해진 조건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박하게 나선다.

오늘의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으로 충만되어있으며 주체시대에 살며 일하는 자주적인 인간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은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비할바없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인류력사는 아직 오늘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그토록 풍부하고 다양하며 사람들의 창조적개성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된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생활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작가들로 하여금 인간과 그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전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만일 작가들이 이로록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가득차있는 혁명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성적으로 탐구파악하지 못하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생동하게 그려내지 못한다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독창성과 비반복적인 개성을 살리는것이 문학작품창작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일반화와 개성화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형상창조의 근본원리와 관련된다. 사실주의적문학작품에서는 일반화를 떠난 개성화가 필요없듯이 개성화를 떠난 일반화란 무의미하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되 그것을 추상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생동하고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재현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반화와 개성화를 밀접히 통일시키며 인간과 그 생활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는 바로 여기에 문학작품만이 가질수 있는 미학정서적인 감화력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정서교양에서 문학예술이 놀게 되는 거대한 기능의 요인이 있는것이다.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것은 또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작가가 체험하고있는 본성적특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문학작품창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독창적인것으로서 그 어느 부분의 사업보다도 사람들의 창조적사상과 독창적인 정신활동을 요구한다.

문학작품의 독창성은 작가의 개성의 반영이며 개성이 없는 작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작가가 아니다.

오직 풍부하고 개성적인 생활과 심오하고 독창적인 창작적사색으로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이루고있는 작가만이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문학작품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 당은 문학작품창작의 합법칙성과 우리 문학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데 기초하여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독창적사상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에서 개성적특성의 본질에 대한 독창적리론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당은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라고 가르치고있다. 모든 예술작품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나타내야 한다.

예술작품이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백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백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 백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형식에서 특색이 있어야 한다. 만일 개성이 없는 똑같은 작품을 쓴다면 백편의 작품을 쓰는데 백명의 작가가 필요없을것이다. 개성이 없이 한틀에 맞추어 쓴 작품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작공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힌바와 같이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창작의 주인은 작가자신이며 창작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줄수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현실생활을 보고 분석판단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기존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도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는것을 의

미한다.

독창성과 개성의 본질에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역사적조건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근본사명에 맞게 우리 문학의 창작적본성을 새롭게 밝혀준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다.

우리 당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의 본질을 밝히면서 문학작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밝혀주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은 무엇보다먼저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종자를 잡는데서 구현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다양한 생활속에서 다양한 종자를 잡아가지고 써야 한다.

작가는 매 작품에 반드시 자기가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새롭게 발견해낸 종자를 확고히 심어놓아야 새로운 인간성격과 의의있는 생활을 새롭게 탐구해낼수 있으며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 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갈수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은 새로운 종자를 똑바로 잡는것과 함께 그것을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 있어서도 개성적인 인간성격, 생동한 생활을 적극 탐구하여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표현된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얼마나 생동하게 개성화하는가 하는것은 창작의 독창성과 개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었는가, 현실생활이 진실하게 전형화되었는가 하는것은 인간성격을 얼마나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개성화하는데 큰 힘을 돌려야 한다.

등장인물들에게 고유한 개성은 오직 그에게만 고유한 개성적특징을 명확히 부여하는데서 표현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적인 개성은 또한 작가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데 있어서 개성화된 표현을 쓰며 그것을 풍부화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표현된다.

개성화된 예술적표현형식의 적극적인 탐구와 다방면적인 활용을 떠나서는 작가의 참다운 개성과 독창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문학작품에서 내용은 반드시 그에 고유한 일정한 예술적형식을 요구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의 예술적형식을 이루고있는 표현수법들이 개성화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개성적으로 탐구된 생활 자체도 사람들에게 새롭게 감득될수 없다.

실로 창작의 독창성과 그 개성적특성의 본질과 그 발현분야를 뚜렷이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리론은 우리 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화발전시켜나가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예술적형상과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대한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 기본고리를 작가의 창작적개성의 발현에서 찾고 그를 위한 제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철저히 살리기 위해서는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의 사상미학적준비문제가 가장 선차적요구로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우리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선두에는 우리 당이 서있습니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게 하자면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작가의 창발성과 개성이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형상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만이 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고있는 우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며 우리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참다운 개성을 살릴수 있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넓힌다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견해와 리론을 소유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및 인간생활에 대한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넓어야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과 관철에서 분석평가하고 정확히 형상에 반영할수 있으며 개성적특성이 산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인류문예사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주체의 인간학을 창조하고있는데로부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을 중심에 내세우며 그들의 높은 리상과 지향을 형상한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기본묘사대상은 자주적인 인간과 그들의 생활이다.

우리 시대 자주적인 인간전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여 현단계에서만 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체현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인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승리의 필연성과 그 요인, 주체의 혁명원리에 대한 넓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없이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 념원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특질들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 또한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식을 줄수 있도록 주체시대의 혁명적현실의 본질적내용과 특징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할수 없게 된다.

이 모든것은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것이 문학작품에서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을 보장하며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살려 그 사상에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데 대한 사상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한 참다운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밝혀준 독창적사상으로서 바로 여기에 이 사상의 혁명적 본질과 진수가 있으며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및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박식가가 됨으로써만 창작적개성을 가진 주체의 인간학의 진정한 창조자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시대와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살리려면 또한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현실체험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현실은 작가에게 작품의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와 소재를 주며 성격을 낳고 창조적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현실은 작가의 개성이 마음껏 발현될수 있는 마당이며 또한 창발성의 나태를 활짝 펼칠

수있는 광활한 무대이다.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강화함으로써만이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뚜렷이 형성되고 더욱더 공고하게 꽃피날수 있다.

창작적개성으로서의 작가의 개성은 고요한 방이나 책상머리에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신적 및 실천적 활동과정에서 형성되는것이며 현실자체의 변화발전과 함께 부단히 변화발전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이러한 제반 요구들로부터 출발하여 작가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원칙적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현실체험에서 중요한 문제는 작가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현실에 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당에서는 또한 들끓는 현실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며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일상적으로 들어가 생활을 단순히 관찰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창작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생활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이 어느 한때 자기가 체험한 적있는 사실만 가지고 작품을 쓴다면 그자체가 벌써 전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문학작품에 주체시대의 현실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할수 없다.

당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작가들의 창작과정은 생활체험으로 시작되고 체험으로 끝나는 진지한 창작적탐구과정으로 련속되여야 한다.

작가들의 현실체험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현실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면서 그 체험의 전과정을 끊임없는 탐구와 창작적인 사색과정으로 만드는것이다.

작가들이 아무리 현실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타는 창작적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속에서 생활의 참다운 의미와 우리 시대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적미를 발견할수 없다.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면서 현실속에서 몸을 잠그고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해나갈 때 현실생활의 본질적인 내용과 특징을 심장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의의깊고 새로운 종자를 바로 잡아쥐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체득할수 있게 된다.

작가는 깊은 창작적사색으로 현실속에서 종자를 찾고 그 종자를 체현한 자기의 주인공을 찾아야 하며 그와 함께 생활하며 투쟁하며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에게 매혹되어야 한다.

작가들의 현실체험에 대한 문제는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주체적인 혁명문학을 어떻게 건설하겠는가 하는 사상적립장과 작가적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창작에서 창발성을 적극 발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수 있는 생활적기초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창작에서 개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작가들의 창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창작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은 노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문학작품창작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여기서는 그 조직지도사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문학작품창작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기본원칙은 정책적인 지도와 함께 형상적인 지도를 옹계 결합시키는것이다. 정책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창작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하며 정책적견지에서 작품의 대를 정확히 세울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형상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작품의 예술적형상을 풍만하고 다양하게 하며 개성적특성도 더 잘 살려나갈수 있게 할수 있다.

당에서는 소설이나 시나 노래나 할것 없이 방향을 잘 세운 다음에는 형상수법은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도록 창작가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작품은 말그대로 작가의 창작품이다. 창작에서는 한가지 처방만 가지고는 성공할수 없으며 목표를 정해준 다음에는 곧추 가든 돌아가든 가는 방법을 한개의 틀에 얹어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작품이 서로 류사해지고 맥이 빠지게 된다.

창작지도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도와주면서 도식주의와 류사성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신한 형상적표현들을 적극 탐구하여 새롭고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도록 지혜를 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창작의 집체성은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이며 창작론리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집단의 지혜와 힘이 최대한으로 발양됨으로써 작가는 작품창작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게 되며 작품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집체적지혜는 개인의 창발성을 계발하고 적극 발양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형상을 잘하여 사상에 숭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에서 밝혀준 집체적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개인의 창발성과 집체적지혜를 옹계 결합시켜 개성적특성을 더 잘 살릴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정당한 창작원칙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려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은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갖는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리론은 노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의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었으며 공산주의사회의 문학의 면모를 뚜렷이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완전히 실현되고 인간의 개성이 활짝 꽃핀 사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문학은 가장 혁명적이면서도 독창성과 개성이 가장 높은 문학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 개성론은 바로 오늘의 문학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문학의 징표까지도 규정지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리론은 또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개성과 독창성에 대한 리론을 가장 전면적으로, 전일적인 과학적리론으로 체계화하여 새롭게 창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문학이 인간생활을 형상적방식으로 반영한다는 데로부터 인류문학은 지금까지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많이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 형형색색의 리론들이 발생하였다.

부르조아반동문학예술에서는 창작에서 《개성》을 살린다는 구실밑에 창작가의 주관적인 전횡을 꺼리낌없이 허용하고있으며 무제한한 《형식미》를 추구하면서 기형적인 작품들을 낳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창작의 개성적특성에 대하여 옳은 해답을 줄수 없었으며 오히려 문학예술을 가장 저급한데로 돌아가는 결과밖에 낳을수 없었다.

오직 우리 당에 의해서만이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개성론이 완성되게 되었으며 혁명문학의 앞길을 환히 밝혀줄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밝혀준 개성론은 현시기는 물론 노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시종일관하게 확고

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새롭게 밝혀준 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이론은 그 불멸의 진리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끝없는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와 인간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개성적이며 매혹적인 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하고있으며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이 다양하게 개화발전하고 작가의 창조적개성이 활짝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 있다.

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려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구현하여 우리 문학이 창조한 주인공들은 지난시기 문학의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과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결합시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새로운 성격들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하고 주체사상화위업의 세대라는 자각을 안고 가장 높은 사회적 리상과 지향을 가진 전형들이다.

이러한 리상과 지향을 체현한 우리의 주인공들은 작가와 함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그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궁지에 대하여 현시대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며 또한 그 길을 드림없이 가도록 후대들에게 전하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작품속에 새로운 인간개성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 문학은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문학의 모든 형태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있으며 그의 사상예술성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당에서 밝혀준 개성론이 구현되어 소설문학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가 있는 독창적인 종자가 심어지고 그를 체현한 주인공들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창조되게 되었으며 작품의 사상미학적감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서정성을 고유한 본성으로 하고 있는 시문학이 혁명적서정이 내려치는 전투적인 시문학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당정책의 선전자, 옹호자로서 그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후대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세세대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아동문학이 아이들의 아이에 깊이 파

고들어 그들의 생활에 친근한 길동무로 될 주인공들을 창조하고있으며 환상이 내려치는 동화, 아이가 구현된 동요 동시들을 특색있게 창작하여 어린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작가들의 창조적개성이 적극 발양되고 꽃피나고있는데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개성론은 창작의 주인으로서의 작가의 창조적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꽃피울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가장 철저히 보장되고 발양될수 있는 우리의 선진적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에게는 창작에서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다 갖추어져있다.

우리 작가들은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작품의 형상 전과정에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다 바쳐 창작적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형상을 보다더 참신하고 생동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더우기 집체성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창작물리가 힘있게 작용함으로써 작가가 당정책적선에서 조금도 탈선함이 없이 자기의 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되었으며 창작에서 신심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속도전을 벌려 개성과 독창성이 산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이라는 높은 혁명적자각에 기초한 개성이며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개성이기때문에 가장 다양하면서도 건전하게 발양되고있는것이다.

실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이 오늘처럼 사상리론적 및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기초와 담보를 가지고 높이 발휘된 레는 일찌기 없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데 대하여 새롭게 밝혀준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생활력을 발휘하며 우리 작가들을 창작적앙양에로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밝혀준 개성론을 창작실천에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독창성과 개성이 산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수행에 계속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은혜로운 사랑속에 꽃피난 우리 소설문학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장중권소설문학창작에서 풍만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적소설작품들은 도시와 농촌, 깊은 산골의 지질탐사대와 원양어로선단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참말로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사랑받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이 대중교양과 문학예술발전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소설문학발전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커다란 배려를 베풀어주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소설도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혁명적소설은 혁명발전과정과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또한 소설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기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혁명의식을 빨리 발전시키고 혁명적의지를 더욱 단련할수 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배울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보다 넓고 깊이있게 리해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노는 커다란 역할에 기초하여 소설발전에 힘을 넣는것을 당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소설문학이 문학예술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소설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을 당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좋은 사실자료를 가지고 직접 영화문학작품을 쓰는것보다 먼저 소설을 쓴 다음 그것으로 영화문학작품을 만드는데가 좋습니다.》

소설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은 혁명소설발전을 위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인 간학에 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으로 하여금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근로대중만이 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인간학에 관한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소설문학건설의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우리 당은 또한 종자론을 창시함으로써 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창작을 목적지향성있게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그뿐아니라 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것이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신비로운 《령감》이라고 하던 부르조아리론의 허위성을 폭로분쇄하고 창작론을 처음으로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웠다.

우리 당은 또한 구성론, 갈등론, 전형성에 관한 리론, 개성화와 독창성에 대한 리론, 속도전에 관한 리론, 독창적인 창작지도체제와 창조체제를 세울데 대한 방침,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명철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 리론, 방법을 명시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방침을 내놓고 그 력사적위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줌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을 혁명적문예전통에 튼튼히 뿌리박은 혁명적소설문학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기는 방법으로 소설문학에서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옹호하고 발전시키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들이 소설로 옮겨짐으로써 소설문학분야에서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혁명소설로 옮기는 사

업을 지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소설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는 주체적인 소설론을 제시하여주었는바 이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소설문학발전의 넓은 길을 등대마냥 환히 비쳐주는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혁명소설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그려내는 새형의 혁명소설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다.

이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장편소설로 훌륭히 옮길수 있도록 구체적인 창작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었을뿐 아니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혁명소설을 창조하는 혁명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고 탁월한 지도를 준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할 데 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주체적소설문학으로, 인민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소설문학으로 되게 하여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소설문학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보람찬 창작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새로운 형식의 총서 창작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조미의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있게, 폭넓게 보여주는것은 우리 소설문학창작에서도 첫째가는 요구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당성표현의 최고형태이다. 그러므로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형상문제를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지 못했으며 이 분야에서 리론실천적경험을 남겨놓지 못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소설문학에서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 사업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사실주의 소설문학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근본으로 되는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소설문학은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서 지닌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총서 《불멸의 력사》안에 있는 혁명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1932년》, 《백두산기슭》, 《고난의 행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명깊게 재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며 끝까지 우리러 모시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력사적사실을 가장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이 형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새로운 특출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우리 소설문학의 성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빛나게 형상한 혁명소설들인 《력사의 새벽길》(상), 《조선의 어머니》, 《누리에 붙는 불》,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 제2부)를 내놓은것이다.

이 작품들은 오늘 평범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힘있는 교과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대작들을 창작하는 사업을 지도하면서 우리 당은 이때까지 사회주의사실주의문예리론에서는 전혀 해명하지 못하였던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소설문학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소설문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소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충성의 혁명적소설문학으로 되었을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 혁명화의 교과서로 된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 혁명적대작이 많이 창작되어나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품을 써야 사람들에게 과연 혁명이란 파란곡절이 많구나 하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량만주의

정신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감옥에 있는 동무들에 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혁명적대작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심오하게 밝혀내며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투쟁속에서 자라는 주인공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논다. 혁명적대작은 보통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결심하고 나서면 혁명가로 될수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다.

특히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도록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을 비롯하여 《불타는 시절》, 《철쇄를 마스라》(제1부), 《총든 청년들》(제1부), 《태양의 아들》(제1부), 《별들은 빛난다》 등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대작들이 많이 창작되어나온것은 참으로 우리 소설문학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로 된다.

이 장편소설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적모습을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대한 혁명전통교양의 산 교과서로 되고 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소설작품중에서도 성과를 많이 거둠으로써 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소설문학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폭넓게 보여준 혁명적대작창작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력사적인 로지개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준 장편소설 《새봄》, 전후의 그 어려운 때에 진행한 어지돈관개공사를 줄거리로 한 장편소설 《생명수》, 1958년도의 사회주의대고조의 배경속에서 이루어진 보통벌의 세기적인 전변을 보여준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그 빛나는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대중교양과 우리 소설문학발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장편소설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세대대들에게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여준다. 이밖에도 장편소설 《백양나무》 등 많은 장중편소설이

발표되었다.

이 장편소설들은 모두가 우리 인민의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들을 줄거리로 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모습을 그의 세계관형성과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형상함으로써 시대의 정신을 문학적인 주제로 훌륭히 밝힐수 있었다.

우리 소설문학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주체에서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주체, 력사주체에서도 대작을 내놓았다.

그가운데서도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은 력사적사실을 그저 라렬한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생활을 통하여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시대상과 계급투쟁의 전모를 보여줄수 있게 소설화함으로써 력사물창작에서 새로운 본보기로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혁명화의 교과서로, 인간개조의 문학으로 되었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인 문학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현실을 기동적으로 반영하는 전투적인 형식의 소설이 적지 않게 창작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문제들에 제때에 예술적인 해답을 주자면 소설문학에서는 시대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반영하는 대작창작과 함께 반드시 단편소설과 같은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형식의 작품창작을 적극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이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현실보다 앞서 나가면서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 불려일으키는 선도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인 문학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로동계급적선이 선 혁명적소설문학으로 발전되었다.

우리 소설문학에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한 우리 당의 계급정책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각이한 계급의 위치와 역할을 정당하게 보여주게 되었다.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깊이 체득시키고 그들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우렁찬 진군나팔로 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참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우는 주체의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서 사람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에 힘있게 복무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최근년간 이와같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는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수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한 총서《불멸의 력사》안의 장편소설들을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계속 더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형상한 혁명소설창작에서도 충성의 열정을 다바쳐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온사회에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감명깊게 형상해야 한다.

작가들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종자로 잡고 그것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깊이있게 해명하는데 필봉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생산이나 기술실무적인 이야기, 전투이야기 그자체를 장황하게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이야기를 대담하게 꾸리고 자기에게 고유한 양상을 살리며 구성조직을 면밀히 해나감으로써 모든 소설들이 다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소설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당성원칙을 더욱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당성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온갖 반혁명적문제조류의 침습이나 그 사소한 발로도 막아내고 우리 소설문학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위업에 복무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현시기 우리 소설문학의 당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사상예술적질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연주의요소를 완전히 없애는것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은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자연주의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그린다는 미명하에 전형화를 거부하는 반사실주의조류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는 인물들과 생활을 반드시 전형화해야 한다. 소설에서 전형적인 생활을 그리기 위해서는 생활의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가려보고 시대의 특징과 사회의 본질을 담고있는 생활을 그려야 한다. 소설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교양에 맞게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을 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을 미화분식하다가 왜소화하는 경향을 없애고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그려야 한다.

현시기 우리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질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훨씬 끌어올리는 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도식주의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전형창조의 필수적요구인 개성화를 출시하고 생활을 류형적으로 전달하는 도식주의는 생활을 풍부하고 외곡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문학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된다.

창작사업에서 도식주의는 금물이다. 사상을 직선적으로 도해하거나 창작적개성이 없이 류형에 빠지거나 철학성이 없이 뻔뜨러운 상식적인 세계를 장황하게 늘어놓는것은 다 도식주의의 표현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소설창작에서 방향을 잘 세운 다음에는 형상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면서도 창작가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우리는 창작에서 도식주의를 없애고 모든 소설작품들이 현실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리되 예술적으로도 감명깊게 형상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류사성과 도식을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생활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비전형적인 생활사말사에 매달리는 자연주의로 나가도 안되지만 자연주의를 극복한다고 하여 도식과 류형에 빠지는 경향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문학작품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철학성이 있으면서도 창작적개성이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당의 독창적문제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도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줄 아는 작가들에 의해서만 훌륭히 창작될수 있다.

작가들은 정치사상수준과 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현실에 대담하게 들어가 생활체험과 철학적사색을 깊이 하여 소설창작사업에서 더욱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온사회에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혁명적서정이 나래치는 우리 시문학

리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끝없는 창조적열정과 혁명적량만으로 들끓고있으며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은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진군운동을 노래하면서 당의 수중에 튼튼히 장악된 위대한 사상적무기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시문학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그 생활예술성을 부단히 높이면서 공산주의시문학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시문학이 거둔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실로 시문학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도식과 류사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실주의 요구에 맞게 독창성과 개성화를 발양할데 대한 문제 등 주체적시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밝혀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시문학리론과 방침들은 오늘 우리 시문학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최근 우리 시문학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혁명적시문학앞에 제기된 근본문제를 해결한 점이다.

오늘 우리 시인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으며 이것은 우리시대 시인들앞에 제기된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활동과정을 우리 시문학은 훌륭히 시화하여 그 위

대성을 예술적으로 천명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세계혁명의 태양으로 숭엄하게 노래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만사람의 가슴속에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한없는 영예와 긍지, 수령님을 우러러따르는 절절한 흠모의 감정을 뜨겁게 심어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충성의 불길을 지펴준다.

우리 시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우리 인민의 운명의 개척자로,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의 창조자로,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의 유일한 대표자로 빛나게 노래되여 우리 시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대표적인 시작품으로서는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리맥, 박세옥, 장건식),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김성조, 안창만), 송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정서촌)등을 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창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시문학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시문학의 서정이 충성의 서정으로 충만된데 있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의 최고표현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인간성격을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쳤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이것은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품모이며 자주적인 인간이 정치적인 생명을 빛내어나가는 가장 높은 혁명적신념이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생활의 모든 정서가 이 충성심과 깊이 련결되어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의 전형으로서의 서정적주인공의 서정이 충성의 서정으로 되는것은 생활의 진실한 반영이다.

충성의 서정,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서정이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신 당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행복한 생활에 대한 견결한 옹호정신이

다.

이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로동의 희열이며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랑만이며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충성의 서정은 실로 우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정신적미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서정이다.

때문에 충성의 서정은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의 특성을 규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된다.

충성의 서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시문학의 사상에술적특성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위업의 길에서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겠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지향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데 있다.

이 분야에서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된 가사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특출한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이 가사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전인민적으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과 흠모의 정을 노래하는데서 성공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또한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김석주), 가사 《수령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정혜경), 가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김재화), 가사 《오직 한마음》(백인준)등을 들수있다.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는 우리 인민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서정이 집중적으로 잘 표현된 시작품의 하나이다.

이 시는 한생을 인민을 위해 눈비를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깊이있게 노래하면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엔 언제나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길이 받들어갈 생각뿐이라는 절절한 충성의 념원을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들어준다.

충성의 서정은 이와 같이 우리 시문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활동을 노래하는 공산주의적새인간학으로 되게 하였으며 충성의 시문학, 혁명적인 시문학, 전투적인 시문학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시문학에서 충성의 서정이 혁명적서정의 핵으로 됨으로써 시문학의 사상적내용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으며 인민들의 충실성교양에서 크나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시문학은 예술적형상성을 높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진을 하였다.

당은 우리 시문학의 혁명적서정을 충성의 서정으로 되게 하며 그 사상적내용을 강화하였을뿐 아니라 높은 사상적내용에 알맞게 시적형상성을 결

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를 또한 현시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학적과제로 제기하였다.

당은 시적형상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고리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가르쳤다.

이 독창적인 리론은 오늘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미학적서적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을 더욱 풍만하게 개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리론이다.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서정성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다.

시에서 사상은 서정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 시문학의 위력은 서정의 힘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는데 있다.

우리 시문학은 이 독창적인 리론에 의하여 시적형상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칠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서정성강화에 력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도식과 류사성, 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궁극에는 서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시문학은 시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왔다.

결과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은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서정적형상의 시대적폭과 철학적심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 《나의 조국》(김상오), 《언제나 조국과 함께》(김우협), 가사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김두일), 가사 《탄부의 영에 빛내여가리》(림호권), 가사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여》(안정기), 가사 《당을 따라가는길에 영광 빛나라》(류민호)를 들수있다.

특히 시 《나의 조국》, 가사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는 높은 예술적형상성으로 하여 다시 읽어보고싶은 좋은 작품들이다.

시 《나의조국》은 조국을 노래하는데서 정치적 표현을 많이 써서 사상을 지내 로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시 형상속에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한 진실하고 깊이있게 씌여진 작품이다.

이 시의 높은 사상에술적성과는 시인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철학적사색과 풍만한 생활정서를 통하여 깊이있고 개성적으로 노래되었다는데 있다. 이 시는 실로 우리 조국이 겪어온 수난의 력사,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의 전력을 서정적형상속에 집중적으로 노래하면서 조국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조국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었는가, 조국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하는것을 깊은 사색속에서 서정적으로 뜨겁게 감수할수 있게 한다.

가사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는 한 병사의 생활정서를 통하여 해마다 만풍년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형상적으로 참신하게 잘 노래하고있다.

가사에는 시가 넘치며 그 양상이 맑고 발랄하며 서정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누구나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싶어하는 명가사이다.

이 작품들은 서정성이 풍부하고 생활에 대한 형상적사색이 깊으며 시인의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서 우리 당의 시문학에 대한 미학적요구를 집중적으로 잘 구현한 우수한 성과작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 시문학이 최근년간 예술적형상성제고에서 얼마나 높이 전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이정표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시문학은 시의 형태상발전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즉 송가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가사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이 높아졌다.

송가의 전면적인 발전은 최근 우리 시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앞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할 시대적사명이 제기된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을 찬양하여 영웅적인 위대한 주체시대를 노래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위업의 거창한 내용을 담을수 있는 큰 형식들이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되며 송가적대상의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기때문에 다양한 송가형식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된것이다.

송가, 헌시, 찬가의 발전과 장시, 서사시들의 새로운 출현은 우리 시문학의 형식을 더욱 다양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이 높아졌다.

당은 우리 시문학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가사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거대한 역할을 놓고있는 사정을 통찰하여 가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동성있게 반영하면서도 노래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가사를 시로 되게 하며 그 형상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가사창작에서 제기되는 제반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가사문학은 오늘 시문학의 당당한 구성부분으로서 당정책과 당의 방침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시대정신의 기수로 되었다.

그러나 가사는 전투적인 내용을 담았거나 정책적인 내용을 담았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은 어디까

지나 시적형상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설명이나 구호식으로 되어서는 서정적감흥을 절대로 불러일으킬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가사혁명의 기본내용은 바로 가사를 시로 되게 하며 그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여 명가사를 창작하는데 있다. 명가사를 창작하여야 명곡이 나온다고 당은 가르쳤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가사문학은 당의 지도밑에 명가사창작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미 우에서 레중한 가사들은 이를 잘 확증하여 주고있다.

우리 가사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러나 혁명과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들의 높아가는 미학정서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 우리 시문학은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시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시문학은 시대정신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위치에 톤튼히 서서 우리 당정책과 방침을 제때에 민감하게 높은 시적형상을 가지고 노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시인들은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시대에 대한 철학적사색을 강화하며 약동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풍부한 정서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도식주의와 류사성, 산문화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시문학의 서정성을 더욱 강화하며 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문학은 주제의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 양상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양하게 꽃피워야 한다.

우리 시인들은 주체형의 시인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높은 정치적식견과 능숙한 예술적기량을 배양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인 우수한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번영기를 맞은 우리 시문학의 앞길을 더욱 찬란히 빛내여 나가자.

따사로운 햇빛속에서 꽃피나는 아동문학

강효순

최근년간에 이르러 우리의 아동문학은 눈에 띄게 빨리 발전하고있다.

나날이 더 좋은 작품들이 창작되어 그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 아동문학의 눈부신 발전을 생각할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따사롭게 비쳐지고 있는 당의 은혜로운 빛발을 언제나 잊지 않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후대교육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청소년교양에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이 노는 역할과 의의를 깊이 헤아리고 아동문학발전에 관한 문제를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아동문학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문학으로서의 궁지도 높이 급속히 성장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 ※

고마운 당의 빛발아래 아동문학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항일혁명아동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 력사적인 위업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이 과정에 아동문학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소년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동화집 《나비와 수탉》이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초 카룬, 고유수, 오가자일대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때 소년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주인공 성철이를 비롯한 열다섯소년의 앞에는 실로 엄혹한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놓여있다.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무인디아에 오른 그들에게는 살자고 하니 집이 없었고 먹을것이 없었고 추위를 막을 옷이 없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쪽배 한척 없었고 구조선도 오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주인공 성철이를 삶으로 추동한것은 자기 힘을 믿고 힘을 합쳐 싸우면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수 있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수있다는 굳은 신념이였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난관앞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동무들과 힘을 합쳐 만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체의 힘으로 배를 무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어린 독자들에게 우리 혁명의 전도를 책임진 주인공으로서의 자각을 안겨주고있으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해 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동화집 《나비와 수탉》에 들어있는 네편의 동화 《나비와 수탉》, 《놀고먹던 꿀꿀이》, 《황금덩이와 강낭떡》, 《두장군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시여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동화의 고전적인 본보기작품들이다.

동화 《나비와 수탉》은 행복한 동산에 뛰여들어 꽃밭을 파괴하고 나비들을 죽이는 수탉을 슬기와 용맹으로 처엿애는 노랑나비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원쑤에 대한 불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지혜를 믿고 발동하기만 하면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도 강대한 침략자와 능히 맞서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는 놀고먹던 꿀꿀이돼지의 비극적인 운명을 생동한 동화적수법으로 흥미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해야 사는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동화 《두장군 이야기》와 《황금덩이와 강낭떡》은 우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을 등장시켜 동화적으로 형상한 작품들이다. 동화 《두장군 이야기》는 닭털을 담장너머로 넘길내기를 하는 새별장군과 무쇠장군의 대조적인 동화적성격을 통하여 사람은 힘도 세야 하지만 거기에 지혜와 슬기가 안 받침되어야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으며 동화 《황금덩이와 강낭떡》은 황금에만 눈이 어두운 지주놈의 탐욕성을 소작인과의 계급적대립관계를 통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황금보다 쌀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결같이 청소년교양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을 어린 독자들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법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고전적인 작품들로서 우리의 아동문학이 가지고있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되며 아동문학발전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아동문학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신 아동문학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후대들에 대한 유일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가장 초미의 문제로, 우리 문학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의 아동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과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를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된 혁명소설 《만경대》, 《동트는 압록강》, 《배움의 천리길》이 세상에 나오게 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장편소설 《만경대》는 1910년대 후반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여 만경대와 봉화사에서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지니신 끝없이 비범하고 아름다운 성품들과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과 아담한 조국현실에서 받으신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성장하시는 과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동트는 압록강》은 그 이후 중강진과 립강, 팔도구를 중심으로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작품으로서 아버님의 혁명활동과 삼촌, 외삼촌의 투쟁 그리고 독립운동가들과의 련계속에서 받으신 충격을 통하여 혁명의식을 더욱 자래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준비해가시는 어리신 원수님의 고매한 품모를 깊은 감동속에 펼쳐보이고있다.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은 1920년대 전반기의 암담한 조국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국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의 천리길을 떠나실 때까지의 청소년시절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국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실 때까지의 청소년시절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고향 만경대로 나오신 원수님께서 칠골창덕학교에 다니시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비극적운명을 더욱 심각하게 체감하시며 혁명의 진리를 독자적으로 탐구해나가시는 위대한 성장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서사시적화폭속에 집대성한 이러한 혁명적대작들이 창작됨으로써 온 나라의 수백만 청소년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를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를 형상한 아동단편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최근시기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일요일》(김정), 《꼬마척후병》(최병환), 《특별반》(리림수)등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자애로운 은정을 깊은 감동속에 펼쳐보임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를 빛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또한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아동문학분과 집체작으로 된 서사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비롯하여 동요 《만경대고향집》(정덕철), 《무쇠황소》(송봉렬), 《학습터에서》(윤복진), 《사랑의 무지개》(림금단), 《봉화산의 애기별》(허광순), 《만경대의 종다리》(김영십), 《고향집의 농쟁기》(강운룡), 가사 《만경대는 꽃동산》(윤동향)등 수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동시인들도 아버지원수님의 고매하신 품모와 그를 따라배우는 어린이들의 생활감정을 끓여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담아 감동적으로 노래불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신 작품창작에서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아동문학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 복무하는 혁명적아동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원만히 갖추어갈 수 있게 되었다.

최근년간 아동문학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새세대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아동문학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

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아이들이라고 하여 순수 정서교양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어렸을때부터 아이들속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방침에 립각하여 우리 아동문학은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 나라의 혁명적현실과 직접 결부된 본질적인 문제들을 형상한 가치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바쳐진 아동문학작품들이 량적으로 많이 창작되었을뿐아니라 그 사상적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여기에 바쳐진 작품들은 혁명투쟁실천에 나선 어린 투사들, 심각한 체험으로 계급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각성해가는 소년주인공들의 가장 본질적인 생활을 그리고 있다.

서정서사시 《사랑의 고개길》(김경태)을 비롯하여 중편소설 《유격근거지소년들》(리진화), 《갈매기근위대》(신종봉), 단편소설 《총소리》(문희준), 《새로운 임무》(리준길), 《영웅의 아들》(박춘호), 《조선지도앞에서》(리림수), 《영웅을 찾는 소년》(김성웅)등은 후대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바쳐진 좋은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결같이 지난날 혁명투쟁을 해본 일도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받아본 일도 없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혁명투쟁과 착취사회의 현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있으며 그들 통하여 청소년들의 혁명적각오를 높여주고있다.

현실주체의 아동문학작품들은 거기에 그려진 생활이 독자들과 가장 가까이 련결된것으로 하여 커다란 교양적감화력을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 심중한 주목을 돌리고 모든 아동문학작가들이 학교와 아이들속으로 들어가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간 아동문학작가들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학습과 조직생활, 파외활동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적현실속에서 성장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생활을 담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되었다.

실례로 단편소설 《온 마을이 보고있습니다》(신종봉), 《고마운 나라》(김용길)와 동요 《웃는 밤동산》(김영수), 《내가 단 리봉》(림금단), 가사 《꼭고고운 옷》(정덕철)등을 들수있다.

이러한 작품들에 한결같이 아버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

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찬 생활감정이 차고넘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준비해나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최근 아동문학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또한 아동문학의 여러 형태들에 걸쳐서 작품의 예술적형상수준이 급격히 높아진것이다.

우리 당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면서 아동문학이라 하여 험한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이들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것을 모든 아동문학작가들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최근 아동문학은 그 예술적형상수준이 전에 비할바 없이 빨리 높아졌다.

특히 동화, 우화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때 침체상태에 빠져있던 동화, 우화 문학의 실태를 몸소 헤아리시고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 창작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에 의하여 비로소 동화, 우화 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형상수법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아동문학분야에서 동화, 우화 창작에 모를 박고 그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화, 우화 문학은 지난 시기에 가지고있던 본질적약점들을 가시고 확고한 리론적기초와 고유한 형상방법을 가진 새형의 혁명적 동화, 우화 문학으로 변모되게 되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동화 《산막집의 장수감자》(원도홍), 《그림토끼들의 운동회》(최낙서), 《귀가 큰 토끼》(배풍), 《메토끼의 나팔주둥이》(김신복), 《떠돌아다니던 물음표》(허원길), 《파도왕의 편지》(김재원)을 비롯하여 좋은 동화, 우화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선한것, 옳은것, 고운것이란 어떤것이며 그것은 왜 선하고 옳고 고운가, 악한것, 그른것, 미운것이란 어떤것이며 그것은 왜 악하고 그르고 미운가를 의인화의 수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밖에 환상, 파장, 상징, 풍자와 해학 등 다양한 수법으로 형상한 교양적이고 흥미있는 좋은 작품들이다.

아동소설의 질적변화는 그 묘사수준이 높아진

데서 찾아볼수 있다.

아동시의 질적변화는 성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시형식과 운률, 고유한 형상수법을 탐구리용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최근 아동시문학분야에서는 아동들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효과적인 시형식과 운률에 담아 노래한 우수한 동요, 동시, 가사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몇해사이에 아동문학은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동문학의 발전동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승리이며 아동문학발전을 위한 사업을 언제나 세심하고도 정력적으로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 ※

오늘 우리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아동문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끊임없이 높아가는 어린 독자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수요에 비겨볼 때 우리 아동문학의 화원은 그 규모가 더욱더 늘어나야 할것이며 지난날의 아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시대 아동들의 높은 미학정서적수준에 비해볼 때 우리 아동문학의 화원에 피는 꽃송이들은 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와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아동문학작가들은 후대교양에서 아동문학작품이 노는 역할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일대 창작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어린 독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아동문학분야에서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과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창작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왕성하게 벌려나감으로써 후대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보다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에 바쳐진 여러가지 형태와 아동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후대들에게 혁명적각오를 높여주며 그들을 확고한 계급의식과 로동계급적관점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것이다.

예술적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아동문학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아동문학창작을 험하게 여기는 단일한 창작태도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더 깊은 탐구와 진지한 창작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적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독자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작품을 개념화, 상식화하는데로 나가도 안되며 반대로 작품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서 독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성인화의 경향으로 나가도 안된다. 어떻게 하면 깊은 철학적내용을 어린 독자들의 수준과 심리에 맞게 표현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아동소설의 합리적인 구성형식과 묘사의 특성을 탐구하여야 하며 동화에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고 환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하며 아동시의 고유한 서정과 그에 맞는 시형식, 운률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아동소설은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본보기아동주인공들을 창조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아동문학작품들은 어린 독자들의 보다 친근한 길동무로 될것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육성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아동문학의 전투적기능이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모든 아동문학작가들은 혁명의 전도와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혁명적아동문학건설을 담당한 영예를 안고 아동문학발전을 위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아동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바쳐나가자.

오산덕기슭의 초가집

박세옥

회령하고 생각하면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 떠오르고 그 고향집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뜨거워진다.

내가 회령을 다녀온지도 퍼그나 많은 나날이 흘렀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 고향집 문앞에 서있는것 같다.

오산덕기슭의 초가집, 어머님을 그리는 옛고향집.

누구나 회령땅에 있는 불굴의 혁명투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생가를 찾으면 밤이고 낮이고 단길줄 모르고 열려있는 문을 보게 될것이다. 무심히 스쳐지나가기엔 너무도 많은 생각을 불러내며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문, 단길줄 모르고 언제나 열려있는 그 문에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있는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에는 집을 나간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해도 문을 걸지 않는다. 그것은 집을 나선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에서이다. 바로 그 믿음이라. 어느 때런듯 어머님께서 고향땅을 찾으실것만 같은 뜨거운 마음이 이렇듯 고향집문을 활짝 열어놓은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첫 발자국이 찍힌 작은 트랙, 어머님의 숨결이 깃든 처마낮은 초가집, 어머님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꿈이 어려있는 작은 창문.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처음 마음속에 새기신곳도 이곳이였고 조국땅의 살들함을 처음 안아보신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때문에 어머님께서서는 고향집을 잊지못하시였다.

두만강의 물소리 높은 오산덕기슭, 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밤별들이 처마끝에 소리없이 내리는 고향집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들려오는듯만싶다.

.....

흘러가는 둥근달 너만 가려니
보고싶은 고향마을 우리도 가련다
우린우린 아동단 총을 메고서
장군별을 따라서 조국땅으로

이 노래는 정든 고향땅을 뒤에 두고 두만강을 건너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아동단원들에게 배워주신 노래이다.

그날에 어머님께서 바라보시며 부르시던 그 달인가, 둥근달이 밤하늘에 두둥실 걸려있다.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의 길, 사령관동지를 높이 받들어 목숨으로 보위하며 눈보라 만리, 사나운 불비속을 헤치시던 그 길우에서 언제나 한번 어머님께서 잊으신적 있으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부대가 되풀령마루에 올라섰을 때였다. 유격대원들은 눈아래 펼쳐진 조국땅을 향해 군모를 벗어 흔들기도 하고 두손을 나팔처럼 입에 대고 조국을 부르기도 하고 서로 가슴을 부비며 솟구치는 감격에 눈굽을 적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엷은 안개가 흐르는 조국산천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꿈속에서도 못잊으시던 고향땅을 찾으시였다. 그러나 너무 어리신 나이에 떠나신 고향이여서인가 향방을 알수 없으셨다. 어머님께서서는 간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사령관동지께 회령이 어느쪽인가고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생각깊으신 음성으로 **《김정숙동무의 고향이 회령이라고 했지...》**라고 하시며 안개속에 점점이 드러난 산발들을 가리키시며 회령이 저쪽이라고 하시였다.

총끈을 당기시며 사령관동지께서 가리켜주신곳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 어머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고향땅을 찾으리라 뜨거운 맹세를 다지시고 다지시였으리라.

하지만 조국땅이 해방되었어도 어머님께서서는 그렇게도 그리시던 고향땅에 들리시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개선하신 어머님을 그리도 간절히 고향땅은 기다렸건만...

회령의 밤은 깊어간다. 밤이 깊어가도 어머님의 이야기로 잠 못드는 그 마음들인가 거리의 불빛들은 꺼질줄 모른다.

밤이슬이 내린다. 나는 고향집마당가를 걷고 또 걷는다. 그 무엇으로 이 밤 뜨거운 마음을 달래일 수 있으랴.

마당가를 조용히 거닐면 고무산의 갈림길이 떠오른다.

해방된 바로 그해도 다 가는 어느날이었다. 조국에 개선하시여 청진에 잠시 머무르시던 어머님께서서는 녀성투사들과 함께 고무산세멘트공장을 돌아보시러 가신적이 있다. 그때 령을 하나 넘으면 어머님의 고향인 회령이여서 녀성투사들은 갈림길에서 차를 멈추고 어머님께 령 하나 넘으면 회령인데 회령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장에 들리시자고 간절히 말씀을 올리였다. 그때 어머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오래도록 회령쪽을 지켜보시다가 녀성투사들을 돌아보시며 지금 장군님께서서는 새조국 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일하시는데 어찌 장군님을 뵈기전에 고향부터 찾겠는가 조심히 말씀하시고 고무산쪽으로 차를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문노니 이 나라에 뻗어가고 뻗어간 길우에 갈림길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만경대의 갈림길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회령의 갈림길, 이 갈림길에는 자신과 자신의 고향의 그리움 그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조국과 혁명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높이신 뜻이 어리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주었습니다.》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 혁명에 남기신 위업은 별처럼 살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니의 충성심, 혁명의 길우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자욱...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오계신다.

수필

이강산에 넘치는 충성의 노래

문동식

아침저녁 출퇴근길에서나 혹은 먼 여행길에서나 이 땅 그 어디를 가도 혁명적기상을 뜨겁게 안겨주며 높이 울리는 혁명가요를 들을수 있다.

그 노래소리를 들을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언제나 김정숙어머님의 숭엄하신 영상이 떠오르군한다.

그것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혁명가요를 사랑하시였으며 중중첩첩한 간고한 시련의 불길속을 혁명가요를 부르시며 싸워오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은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싸웠지만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혁명적관주의로 가득차있었습니다.》

원주들의 삼엄한 포위속에서, 철창속에서도 조금도 비판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혁명적관에

어머님의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안은 이 나라 인민은 어머님께서 우리의 결을 떠나시였다고 생각한적이 없다.

그때문에 우리 인민은 오늘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여 고향땅을 찾으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있는것이다. 나는 지금도 어머님께서 이제 방금이라도 고향집 마당가에 들어서실듯싶은 마음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 우리 인민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적은 없고 그 념원이 이루어지지 않은적은 없다.

어머님을 기다리는 집,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어머님을 그리는 마음을 안고 회령의 하늘가에 새벽빛이 조용히 어린다. 오산덕의 푸른 숲이 기쁨에 속삭인다. 어머님을 맞을 그 시각을 서두르는듯 맑은 이슬을 떨구며 백살구꽃이 다투어핀다.

이 아침 웃음을 담으시고 낮익은 산천을 둘러보시며 고향집을 찾아오시는 어머님을 맞이하는듯 옛고향집은 숭엄함이 깃들어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

아, 그날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며 언제나 단길 줄 모르고 열려있는 어머님의 고향집 키낮은 작은 문은 나에게 끝없이 그날을 이야기하고 또 하고있다.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건결하게 싸우신 김정숙어머님!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그때 어머님께서 그토록 정을 담아 부르시던 노래소리가 행복한 이 강산의 그윽한 꽃바람을 타고 울려오는상싶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자가 그 얼마나

이 노래는 1938년 4월 림강현 쌍산자전투때 김정숙어머님께서 부르신 노래이다.

림강현 6도구전투에서 호된 타격을 받은 일제 《토벌대》놈들은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천여명의 대병력으로 추격해왔다.

전투는 가렬치절했다. 적들은 고지를 포위하고 사면에서 기어오르고 있었다.

정황은 위급했다. 바로 이때 초연에 그슬린 바위에 몸을 의지하시고 적들을 쓰아눕히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동무들!》하고 웨치시더니 노래를 부르시는것이였다.

비발치는 총탄, 우뢰같은 총성, 타래치는 연기, 버글거리는 원썬들의 아우성소리, 그 모든 양칼진 소음을 짓눌러버리시며 울려퍼지는 어머니의 힘찬 노래소리, 그 노래소리를 듣자 쓰러졌던 대원들은 머리를 쳐들었고 총탄이 떨어진 대원들은 총창을 비껴들었고 《연길폭탄》을 찾던 주먹들은 바위를 그러안았다.

한사람, 두사람, 열사람, 백사람...순식간에 전대오가 어머니의 노래에 목청을 합쳤으니 노래는 폭풍이 되고 격랑이 되고 벼락이 되어 원썬들을 공포와 불안과 절망에 떨게 했다.

이리하여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은 빛나게 관철되였다.

이때만이 아니다.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의 구감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지하공작원으로 장백지구 도천리에 파견되었을때에도 혁명의 노래로 수많은 심장들에 불을 지피시어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성벽처럼 묶어세웠다.

.....

동무들이 어서빨리 일어나거라
일어나 총을 들고 칼을 잡아라
잃었던 우리 자유 우리 권리를
우리들의 손으로 기어이 찾자

.....

이 노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도천리의 촌아낙 네인 봉녀아지미에게 제일먼저 배워준 노래이다.

걸음마다 쏠리는 원썬들의 살기찬 감시속에서 마을에 부녀회조직을 내오시기 위해 봉녀아지미로부터 혁명화하기 시작하신 김정숙어머님.

포태산의 정결나무숲이 설레이는 교묘한 달밤, 고콜불을 둔구어가시며 어머님께서 온밤 구절구절 배워주신 이 노래는 그후 마치 땅속에서 흐르는 깨갯한 샘물처럼 봉녀아지미를 통해 우물집형님을 통해 그의 울케가 배웠으며 울케를 통해 요광자와 신파에 사는 그의 친척들과 동무들이 따라불렀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도천리에 와계신 반년동안에 세기를 두고 덧쌓인 봉건적구속과 식민지적굴종의 얼음장은 갈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혁명의 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새싹들이 모여 마침내는 조국광복회 도천리부녀회가 조직되었던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부르신 총성의 노래, 혁명의 노래의 힘은 이처럼 거대하고 무한했다.

하기에 어머님께서 이 귀중한 혁명의 노래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계셨으며 그 언제나 심장으로 즐겨 부르시였다.

간악한 일제와 배부른자들의 온갖 수모와 천대 속에 자라나셨기에 웃음을 웃어도 그놈들이 보란듯이 더 크게 더 밝게 웃으시던 어머님.

원썬놈들에게 고향과 집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부모형제 다 빼앗겼기에 걸음을 걸어도 원썬들이 질겁하게 더 높이 활개치며 걸으시던 어머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노래처럼 자유로운 인민의 세상을 찾으시기 위해 노래속에 깃들어있는 조국해방의 념원과 미래를 기어이 이룩하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혁명가요와 함께 운명을, 생사고락을 같이하셨다.

어찌 그뿐이랴, 참혹한 시련이 온 처창즈산야를 휩쓸던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이노래를 부르시며 간신히 걸음을 뚫아 산에 오르시어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기시였고 함께 싸우던 혁명전우들을 이름없는 나무밑에 묻으실때에도 피눈물을 삼키시며 혁명의 이 노래를 부르시였다.

그러면 의례히 동지들이 어머님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따라부르며 쓰러졌던 사람들은 일떠서고 흩어졌던 사람들은 대오를 지어 어머님께서 가시는 총성의 그 길을 함께 걷고 또 걸었다.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부르신 혁명의 노래는 투쟁의 나팔소리였고 승리의 기발이였고 그 어떤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사신의 억센 날개였다.

생각해보면 항일의 그 장구한 기간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혁명의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 그 얼마였던가.

가장 큰 불행이 닥쳐왔을 때 가장 엄혹한 시련 앞에 숨쉬기조차 피로울 때 어머님께서 선창하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심과 용기를 얻고 의지를 버리며 난국을 헤쳐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간 사람들이 과연 그 얼마였던가.

감자밭이랑에서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또 불러보며 비밀쪽지를 품고 총검의 숲을 헤쳐간 사람들을 천으로 헤아

리라, 만으로 헤아리라.

숙영의 우등불가, 어머님께서 배워준 노래를 높이 부르며 원쑤를 유인해 아슬한 벼랑에도 뛰어 내리고 단두대우에도 선뜻 나서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한 그 불멸의 영상들을 우리 어찌 잊으랴.

끝없이 올라가는 어머님의 노래소리 따라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충성의 발걸음들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충성의 불길은 솟구치고 또 솟구치고...

하여 마침내 3천리강토를 두렵게 덮었던 식민지얼음장은 녹아내리었다.

온 민족이 피바다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려명은 이 땅우에 찬란하게 비끼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노래는 해방된 조국땅우에서도 계속 울리었다.

부모처자 다 버리고
모든 간고 무릅쓰며
혁명전에 몸을 바쳐
끝까지 싸웠도다...

이 노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땅에 개신하시었을 때 깊은 추억에 잠기시어 젖은 음성으로 부르신 노래이다.

흔들리는 차안, 해빛 눈부신 차창가에 바투 다가앉으신 김정숙어머님.

해방의 환희에 넘쳐 물결쳐 달려오는 그림던 조국산천, 사슬을 풀어헤친 조국의 감격인양 푸른 파도 포말을 뿌리며 밀려오는 동해바다, 거리와 마을마다에 가슴펴고 활보하는 그림던 겨레들.

기쁨과 환희, 희망과 랑만에 넘친 해방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 순간이 길을 함께 오지 못하는 혁명전우들을 생각하시며 이 노래를 부르시었다.

노래를 부르시며 어머님께서서는 생각하시었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눈보라치는 벌판과 가도가도 끝없는 밀림속에 쓰러졌던가. 그 쓰러진 전우들의 넋원을 해방된 조국땅우에 활짝 꽃피워주자, 꽃피워주자, 여한이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며 차창밖에서 눈길을 못떼시던 김정숙어머님.

어머님께서서는 잠시후 노래를 멈추시고 축축히 젖어오른 눈굽을 닦으시며 곁에 앉은 전우들을 둘러보시었다.

그러시더니 얼굴에 웃음을 띄우시며 노래를 부르시는것이였다.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어깨결고 둘러서서
우리 희망 말해보자

어머님께서 선창하신 이 노래에 따라 전우들은 어느덧 아동단시절의 기분에 사로잡혀 서로 손을 잡고 한사람씩 일어서면서 자기의 포부를 노래불렀다.

너성혁명투사가 되겠다고, 로동자가 되겠다고, 농민이 되겠다고, 교육가가 되겠다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안고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나 부른 혁명전우들의 희망에 찬 노래소리는 이날 달리는 렬차에서 멀고먼 조국의 앞날에로 힘차게 울려갔다.

그렇다.

귀기울이면 저 자동차의 불꽃이 명멸하는 용해장에서도, 오곡백과 무르익어 끝없이 설레이는 저 만풍의 산과 들에서도 11년제 배움의 꽃대문이 활짝 열려진 저 배움의 교사들에서도 그날 김정숙어머님과 혁명전우들이 높이 부른 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오는것만 같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해빛아래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마음껏 일하며 행복을 누리는 오늘을 위해서, 쏟아지는 쇠물과 물고기폭포, 쌓이는 비단필과 황금의 난가리... 이 땅에서 마련되는 그 모든 재부가 인민의 재산되는 오늘을 위해서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이 갓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싸워왔는데 어찌 이 땅의 저 모든 창조물들에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넘치는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조국을 나는 한없는 공지에 넘쳐 바라보군한다.

그릴 때마다 나는 가슴뜨겁게 느끼는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일생토록 것처럼 사랑하시던 그 혁명가요들의 참뜻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부르신 혁명가요 그것은 광휘로운 주체의 화불로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영원히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가시려는 어머님의 불타는 맹세였다고,

그것은 잃고 빼앗기고 유린당한 그 모든것을 혁명의 품에서 기어이 찾고야말겠다는 어머니의 결심의 선언이였고

그것은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우다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념원과 소원을, 철쇄에 묶여 신음하다 무참히 쓰러진 이 나라 겨레들의 피맺힌 원한을 천만배로 풀어주고 갚아주겠다는 어머니의 변함 없는 약속이었다고-

수필

충심으로부터

안 룽 호

언어는 그 민족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언어에는 그 민족의 성격과 체취뿐아니라 생감정의 미세한 특질까지 반영되게 마련이다.

근면하고 슬기롭고 대바른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굳센 성품이 그대로 깃든 우리 말은 그 뜻의 심오성과 표현의 풍부성에서도 실로 세계에 자랑할만하다.

국어교원인 나는 자주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풍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어휘들을 설명하게 될 때면 나는 때로 표현능력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특히 우리 말의 그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에 발자국을 들여놓기 시작한 인민학교 학생들이 앞에 설 때면 더욱 그렇다. 오늘도 바로 그러했다.

레사롭게 시작된 국어시간이었다. 나는 한 학생이 질문한 《충심》, 《진심》이라는 단어를 흑판에 써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전에는 물론 이 단어들의 뜻풀이가 뻔뻔하게 나와있다. 그러나 나는 그 해석만으로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심오한 뜻을 다 표현할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이 단어의 뜻을 처음으로 알게되는 나 어린 학생들앞에서 무슨 말로부터 뜻풀이를 시작할 것인가! 참으로 생각되는것이 많은 단어였다. 깊은 생각에 잠긴 나의 눈앞에는 문득 얼마전에 다녀온 회령혁명사적관에서 보고들은 감명깊은 이야기와 화폭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며 혁명가요를 부를 때면 내 마음도 어머니와 함께 맹세하고 선언하고 약속한듯 싶어 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이다.

이럴 때면 나는 어머니의 높이신 뜻을 더 활짝 꽃피워가는 혁명의 길에서 순간의 동요라도 있을 가봐 마음을 다잡으며 어머니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를 다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본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열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령혁명사적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불멸의 투쟁사적이 귀중히 보관되어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니의 빛나는 생애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어디에 기초하며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산 모범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무한한 경모와 헌신성, 충성의 그 높이와 뜨거움을 무엇으로 측량할수 있겠는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진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나선 우리 시대 사람들의 공산주의적량심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는가 하는 충성심의 열도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진다.

그리고보니 진심이란 말은 한평생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빛나는 생애와 땀해야 땀수 없는 말임을 더욱 가슴속에 뜨겁게 느끼게 된다.

글자 그대로 이 말은 거짓과 보탬이 없는 참다운 마음씨를 말하는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것인가!

이 말의 깊은 뜻을 가장 원만히 체현하신분도

김정숙어머님이시고 이 말의 높은 요구를 생활을 통하여 나머지를 내지 않고 실천하신분도 김정숙어머님이시다.

혁명의 한길을 걸으시면서 숭고한 충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가신 김정숙어머님!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

길지도 않고 아름다운 수식어도 없는 쪽지편지이건만 나는 어머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을 땅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물줄기처럼 받아안게 되었다.:

경모의 정을 함뱍 담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보시는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은 군복을 입으시고 사령부 우등불가에 앉아계시는 어머님의 영상으로 바뀌어져 안겨오는것이였다.

밀림의 아름다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백두의 추위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 한가지 식찬이라도 더 잘 해드리려고 곱아드는 손을 우등불에 녹여가시며 저녁을 지어드리시는 모습, 위대한 장군님의 군복을 불티자리 하나 놓칠세라 간간히 살펴가시며 바느질하시는 어머님의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영상!

사적관에는 오늘도 어머님께서 쓰시던 권총과 양재기도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숭엄한 생각에 잠겨 그 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했다.

두발의 적탄이 뚫고나간 양재기!

그 탄자욱은 흥기하전투때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고지 가까이 나타난 적을 멀리로 유인하며 족치던 치렬한 격전장에서 입은 상처이다. 그러니 어찌 이 양재기를 사령부의 작식대원이시였던 어머님의 화식도구로만 볼수 있으랴.

이것은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바치신 충성의 한 마음이 깊이 스며있는 혁명의 무기인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지금도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던 권총에서는 그날과 같이 멸적의 불길이 뿜어나오는것만 같았다.

《정말 어머님께서는 진심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싸우셨습니다.》

이 말은 내 옆에서 그 귀중한 유물인 양재기와 권총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한 녀학생이 눈굽을 훔치며 한 말이였다.

장군님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어머님에 대한 많고많은 아름답고 고상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있다.

그 모든 충성의 이야기속에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어머님의 진심이 깔려있는것이다.

토양이 비옥하면 할수록 그우에 피어나는 꽃은 남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진 시련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혁명투쟁의 나날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충성의 꽃을 활짝 피워놓으시였다.

나의 눈앞에는 붉은 별을 단 군모를 쓰시고 백두밀림을 배경으로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우련히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혁명의 새세대들을 힘차게 부르시는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이신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의 그 숭고하신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심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주며 영원히 높이 솟아있는 것이다.

어머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다

-항일투사들의 추억중에서-

강립석

우리는 자주 들었다
낫설은 이역의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찢어진 군복도 함께 기우며
어머님이 하시던 고향이야기

사향가 노래속에 날이 저물던
만강의 이른봄 시내가에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속에 함께 그리었다
백살구 꽃피는 오산덕의 그 기슭을

장군님 가리키시는 하늘가를 우러러
한점의 흰구름도 눈익혀두시던
백두의 그 산정 진달래밭에서도
어머님과 함께 우리는 외웠다
...회령 회령 정다운 그 이름을

그러나, 오 그러나
백두산을 내리시던 개선의 그날에야
우리는 알았다
함께 웃으며 속삭이며
고향을 그리시던 어머님의 그 마음을!

해방의 기쁨이 강산에 넘치고
그리시던 회령이 한눈에 안겨오던 그날
알길 없는 혈육들의 한토막소식이라도
어디선가 들려올듯, 그 누가 전해줄듯

분명 그 누가 전해줄것만 같아
손잡고 이끌며 재촉하는
우리의 소원도 간절했건만
-장군님께선 밤에 낮을 이어가시는데
어찌 내 고향부터 찾겠습니까!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발길을 돌리시는 어머님
장군님 계시는곳을 향하여
진군길 다그쳐가신 어머님

정녕 어머님의 그 가슴속에
언제나 가득차있던 고향
이것은 바로
나서자란 회령만이 아닌 온 나라 강산!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동포들!
그것은 바로
장군님 한품속에 온 겨레가 함께 웃는
새날의 하늘과 땅

하기에 고향집 뜰안엔 못가시여도
한 너인의 고향을 위해서는
그렇듯 밤길도 기쁘게 걸지 않으셨던가!
하기에 친척을 찾는 길은
한 전우의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듯 새벽길도 기쁘게 걸지 않으셨던가!

그렇다, 어머님은
언제나 그렇게 걸으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동지들을 위하여
고향을 빼앗긴 형제들을 위하여
아들딸들을 빼앗긴 강산을 위하여
걸으시고 또 걸으시며 싸우시었다

그렇다, 어머님은
바로 그렇게 돌아오시었다
수령님의 그 해빛 찬란히 빛나는
이 나라의 모든 고향과 고향들에!
이 나라의 모든 가슴과 가슴들에!
혁명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께서 돌아오셨다!

봄날의 거리에서

김희중

명절로 흥성이는 봄거리에
아름다운 꽃물결이 흐른다
마음도 즐거이, 웃음이 넘친 얼굴들이
꽃으로 피어난 환희의 거리

이런 날이면 때없이 문득
이 가슴에 안겨와라
수수한 무명옷차림으로
언제나 우리앞에 서계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아, 그 모습 꽃물결에 어려온다
조국에 개선했신 기쁜 날에
인민들이 지어드린 한벌의 비단옷
굳이 사양하시며
베틀소리 가시지 못한 이 강산에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신 어머니

무거운 탄띠 두른 군복을 입으시고
불바다 수만리길 헤쳐오셨기에
한번이라도
한번만이라도 입어보시었으면 좋으련만...

인민들의 소원 담은
한벌의 비단옷
건국의 길에 나선
한 유자녀에게 입혀주시고
어머님은 어찌하여 그리도 기뻐하셨던가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

좋은 날에 좋은 옷을 입으시라던
나야 천천히 입은들 무어란가고
인자하신 웃음으로
그 소원 후날에 미루시던 어머니

한가지 좋은것을 보시여도
피여날 인민들의 웃음을 먼저 그려보시며
사랑만을 주시고
은덕만을 베풀어오셨기에
아, 한평생을
수수한 무명옷차림으로 치내시였던가

강산에 넘쳐흐르는 비단물결 바라보면
어머님 굳이 사양하신
한벌의 그 비단옷 생각
천만년 세월에도 못다 담을
큰 사랑을 남기고 가신
어머님의 그 마음이 어려와...

이런 날이면
우리의 이 모든 기쁨을
어머님께 드리고싶고
우리의 이 모든 비단옷차림을
어머님께 보여드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이어

아, 봄이 물결치며 설레인다
해빛도 어머니의 따사로움으로!
꽃도 어머니의 미소로!
비단물결도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벨트콘베아건설장에서 온 편지

림종엽

나는 얼마전에 취재차로 벨트콘베아건설장에 갔었던 일이 있었다. 건설장에는 가슴을 흥분시키는 일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어떻게 써야 할지 나는 좀처럼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요행 한 용접공청년이 나를 구원해주었다.

사실 나는 그 청년의 입을 열게 하는데 무진애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입이 무거운 청년이었다. 무려 이틀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굴어서야 청년은 대답대신 아직 보내지 못한 두툼한 편지를 내주었다.

나는 편지에 심취되었다. 생활의 교훈도 있었고 랑만도 있었다. 저르기 흥분한 나는 편지를 그대로 공개할 의향을 그 용접공청년에게 표시했다.

청년은 매우 딱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하여 편지를 공개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공개한다. 다만 여기 편지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모두 가명으로 고쳤을뿐이다.

직장장동지!

멀리 서해의 한기슭, 이곳 서해광산의 대형벨트콘베아건설장에서 조업식의 커다란 경사를 맞이하고 편지를 띄우게 되는 저의 마음은 한량없는 흥분에 휩싸여있습니다.

우리의 벨트콘베아는 박토버럭을 실어다 바다를 가로막아 수천정보의 간석지를 얻어내게 될뿐만 아니라 또한 거창한 조수력발전소까지 세우게 됩니다.

직장장동지!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선우로는 땅속에 숨어있던 진흙무지며 바위물이 바다로, 먼바다로 굽이쳐흘러가고있습니다. 박토버럭이 폭포처럼 떨어지면서 물기둥과 포말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는 웬일인지 고난과 랑만에 찬 지난날이 돌이켜지면서 직장장동지에게 이렇게 펜을 들게 하는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펼쳐진 여기 벨트콘베아건설장에 선발되어 떠나올 때 직장장동지는 선망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진동무는 참 행복한 사람이요. 동무는 영예

스럽게도 벨트콘베아건설장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소. ...꼭 영웅이 되라구...》

직장장동지는 나에게 이렇게 믿음에 차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직장장동지의 영웅이 되라는 말씀을 단순히 자기 이름을 돋보이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쏠리는곳에 커다란 보람이 있고, 위훈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음... 직장장동지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 이름을 《로동청년》에서 찾아보게 해야지.)

이런 배심으로 건설장으로 달려간 나에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뜻대로 제관중대에 배치해주었습니다.

제관중대는 이 공사의 가장 난공사로 제기되는 바다에 강철원통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강철트라스와 육중한 제관폼들을 조립하는 구간을 담당하였습니다.

공사지휘부에서 나는 직장장동지의 전우였던 길창욱동지가 제관중대장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해공으로 이름이 뜨르르하게 났었다는 증체철소의 길창욱동지가 이곳에 중대장으로 파견되어간다니면서 문안편지를 전해달라던 직장장동지의 부탁이 떠오르더군요.

직장장동지가 전선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자주 입에 오르군하던 그 동지가 중대장이고 더우기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던 직장장동지의 편지 그것도 나를 잘 보살펴달라는 편지였으니까 아주 중요한곳에 대번에 눈이 번쩍 뜨이는 위훈을 세울수 있는곳에 배치해주라라는 기대를 크게 걸었습니다.

나는 트렁크갈피에서 편지를 찾아드는길로 제관중대로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어느덧 나는 중대사무실앞에 다달았습니다. 림시건물로 세운 사무실벽면에는 속보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공사에서도 연공들이 한몫 단단히 하는것 같더군요.

이제 나의 이름도 저 연공들속에 나란히 끼이게 되리라는것을 생각할 때 가슴은 마냥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대사무실에 들어선 나는 책상머리에 오도카니앉아 유난히 긴 살눈섭을 까박거리며 종이장을

번지고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해말쭉하고 가름한 얼굴, 귀밀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그마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올리는품이 퍼그나 애되어보이는 처녀였습니다.

(어데서 봤던가?)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처녀에게로 다가섰으나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동무-》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공연히 화가 나서 일부러 투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얼굴에 조용한 웃음을 띠우며 일어서더군요.

《우리 중대에 배치돼오셨어요?》

《그렇소. 저- 길창옥중대장라우... 있소?》

나의 불임성없는 말에 안전구석에 돌아앉아 무엇인가 하고있던 사람이 얼굴을 돌리었습니다. 관골이 진 기름한 얼굴에 불을 내뿜듯하는 정기가 흐르는 눈이라든가 짝 바그라진 어깨우에 양바람하게 세운 목이라든가 어데라없이 룽룩찮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대번에 그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고서야 처녀의 까리까리했던 인상까지 명확해지면서 며칠전 이고장에 도착했을 때 서해리역에서 벌여졌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한적한 서해리역에 내렸을 때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눈까비가 내리고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고 꽃다발이 안겨질줄 알았던 역구내에는 멀어져가며 울리는 기적소리만이 밤하늘에 메아리쳐왔습니다.

눈까비는 여기저기 전주대와 역이름판에 매달린 희미한 전등불빛으로만 쏠리듯이 아물아물 떨어져내리고있었습니다.

좁은 역구내에 덧쌓인 강철판더미며 ㄷ형강, 산형강, 환강무지들이 눈까비에 잠겨버렸습니다.

려객들이 제철소의 한 구역을 방불케 하는 강재더미를 바라보며 역밖으로 웅성웅성 몰려나갔습니다.

《여-콘베아... 어느쪽으로 가요?》

《나도 그리로 가오.》

성미 급한 사람들이 북적대며 주고받는 말입니다.

《가만, 내가 물어보고올테니 여기서들 기다리시오.》

어둠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니 역사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들은 웅기중기 모여서서 어둠속으로 사라진 사람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윽하여 역사쪽에서 양바람하게 생긴 사람이 잦은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벨트콘베아로 지원오는 동무들은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나는 우리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인가보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웅성웅성 모여든 사람은 스무나문명이 잘되었었습니다.

《동무들... 지금 이 서해리역은 벨트콘베아건설장에 계속 들이닥치는 강재를 실은 화차들때문에 문힐 지경이랍니다. 건설장에서 빠스를 보냈다는데 그걸 기다리는동안 저 강재 부림작업을 도와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르듯 석싹한 목소리로 이곳 형편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대번에 기분이 잡혔습니다. 구질거리는 날씨때문에 을씨년스러워서 엉거쭉해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존심은 사람들속에서 주저할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지원해오는 우리들이 언제 편할것만을 바라서 여기로 왔겠습니까. 모두들 호응해나섰습니다.

우리들은 트렁크와 짐들을 한구석에 무독히 쌓아놓고 화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는 하차작업을 조직한 그 사람과 한화차에 올라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산형강이 공중으로 날아 요란한 쇠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한창 일을 다그치고보니 으시시한 기운은 없어졌는데 그대신 허리가 뭉뚱해지는것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헛참... 여긴 강재 부리는 대책두 없습니까?》

나는 어지간히 기분이 잡쳐져서 이렇게 통명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워낙 공사가 갓 시작됐는데 이 역이 생긴이래 이렇게 물동이 쌓여보기두 처음이라오.》

《지금이 어느때라우 이 모양이야.》

나는 허아래소리로 이렇게 두덜거렸습니다.

《...먼 려행길에서 피곤하겠는데... 모두들 건설장에 지원해오는 동무들이니까 이렇게 리해해주는것이 고마운 일이요.》

작업을 조직한 그 다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힘도 어지간히 빠졌는데 눈발은 점점더 세차졌습니다. 어찌도 을씨년스러운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묻혀서 일하고있는데

《동무... 저하구 교대하자요.》 하는 상냥한 너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소리나는 뒤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해말쭉한 인상을 주는 처녀가

《힘드실텐데 교대하구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 웃음어린 얼굴로 바라보고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처녀가 들여다본것 같아 얼

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 때처럼 화끈 달아오르면서 슬그머니 부아가 나더군요.

《동무, 거기에 있다가 다치려고 그러오. 빨리 물러서오.》

더구나 나는 처녀에게 동정을 받는다는것이 어쩐지 자존심이 거슬려 모멸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그 처녀와 반대쪽에 산형강을 던지면 위험할거야 없었지요.

그런데 참 이런 뜻밖이라구야... 글썽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처녀의 얼굴은 핏색해졌더군요.

참 너자들이란 마음이 여려워서 그런지 가슴속에 품고있는 감정이 인차 얼굴에 나타나는것이랄이지요.

나는 처녀를 외면한채 산형강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정에 동무, 날씨두 올씨년스러운데 우등불이나 피우오.》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의 말은 나의 웅색한 립장을 가져주었습니다.

어느덧 우등불이 밤하늘을 삼켜버릴 기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 그 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늑한 감을 주었던지... 나는 너무나도 우직했던 행동이 몹시 후회되었습니다.

부림작업을 마친 우리들은 우등불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동무들... 빠스가 오다 고장이 났다는게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허 이거 미안하게 됐군...》

어느새 역사쪽으로 달려갔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 사람이 이렇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만 화가 났습니다.

《에이 내 워.》

나는 화를 삭이느라고 이렇게 두덜했습니다.

그러자 미안해서 나를 건너다보던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어리더군요.

《동무, 저 발치에 있는 장작을 불속으로 밀어넣소. 그렇게 가덕에 떨어져있으면 불길은 안일어나구 연기만 피우는 법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엉겨주춤하고 연기가 푸실푸실나는 장작가치를 불길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불길은 무수한 불꽃을 날리며 더 세차게,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자, 보오! 장작가치를 모아놔야 우등불은 잘타구 오래간다우.》

나는 의미가 깊은 말이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먼구해서 머리를 들수 없었습니다.

《대렬책임자동무, 그럼 길을 안내하시우. 고장난 빠스를 언제 기다리겠소.》

한 지원자가 이렇게 다긋자 앙바름한 사람은 웬일인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섰던 처녀가

《호... 대렬책임자?!》하고 가볍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모두의 이목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처녀는 당황한 나머지 목을 움츠리며

《우리두 밤차루 방금...》하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연해지고말았습니다.

한차로 온 사람이 언제 그럴 경황이며 그럴 궁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내앞에 앉아있었습니다.

《허... 우린 벌써 구면이구만 어떻게 왔소? 우리 중대에?...》

길창옥중대장이 저에게 바투 다가앉으며 활달하게 물었습니다.

《영산기계에서 왔습니다. 김상진직장장동지가 이 편지를 전해달라구 해서...》

나는 중대장에게 편지를 주면서 제관중대에 배치되어온 사연까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소?!》

길창옥중대장의 솔진 눈섭이 꿈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쥐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중대장은 편지를 훑어보더니 감회가 깊은듯 《음.》하고 외마디소리를 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대장동지, 저를 가장 중요한곳에 세워주십시오. 바로 지금이야말로 젊음을 빛내일 때가 아닙니까.》라고 열렬히 부르짖고싶었으나 입밖에 낼수 없었습니다.

나는 중대장이 틀림없이 제일 중요한곳에 배치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중대장은 편지에서 눈을 떴며

《저금 몇급공이던가?》라고 물었습니다.

《연공 4급입니다.》

나는 조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용접급수말이요.》

나는 중대장이 무엇때문에 용접급수를 따지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건설장의 수리개로 명성이 높은 연공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중대장동지, 제가 연공년한이 짧다구 해서 그러시는게 아닙니까?》

《박진동무, 지금 이곳 형편은 용접공이 대단히 부족하우. 의지가 강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동무들이 이런 중요한곳에 먼저 서야 하오.》

중대장의 말은 심중하게 울렸습니다.

건설장의 절박한 사정을 이렇게 단마디로 말하는데 바람에 나는 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만 사무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말로는

할수 없는 나의 불만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활짝 열어젖힌 속옷자락을 날리며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있는데 뒤쪽에서 다급히 따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났습니다.

《아유, 장갑 받으세요.》

통계원처녀가 내앞을 막아서며 가죽장갑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장갑을 놔두고 그냥 나왔다는것을 알았으나 선뜻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속이 상해서 되돌아선 자신을 처녀에게 보인것이 화가 났습니다.

《내 장갑이 아니요.》

나의 단호한 말에 통계원처녀는 당황해하더군요.

《그럼 누구 장갑일가? 참 이상하네.》

《이상할게 있소. 잃은 사람이 찾아오겠지.》

《……》

처녀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가볍게 숙였던 머리를 들었습니다.

《저… 중대장동지를 리해하셔야 해요.》

나는 목도리도 없이 바다바람을 맞고있는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동무, 감기 들겠소.》

우정애는 삼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오히려 통쾌해졌습니다.

처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지금 여기엔 용접공이 정말 모자라는데…》

《동문 여기에 통계원을 하려고 지원왔소?》

나의 불손한 말에 처녀의 반달처럼 휘여든 눈썹이 까칠하게 서더군요.

《모욕하지 마세요… 동무만큼 꿈이 없는줄 아세요?》

《흠…》

나는 코웃음으로 시끄럽다는듯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만두세요…》

통계원처녀는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도망치듯 달아나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자신이 용렬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중대장에게 통을 맞고 처녀에게 화풀이를 한셈이군… 흥…)

나는 털모자를 휘휘 저으며 걸었습니다.

나는 세찬 바다바람을 거슬러 걸으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가슴을 것처럼 부풀게 하던 희망을 삼시에 잃어버린듯싶었습니다.

× ×

직장장동지,

결국 나는 강철원통기둥조립소에서 용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공들이 강철기둥을 세워놓으면 따라가서 용접으로 고정시켜놓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용접봉 나르는 일부터 했습니다. 직장장동지도 아시는것처럼 용접에서야 나도 한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연공이 되려고 용접에 대해서 눈을 감았더니 이게 어디 제풀이 됐습니까.

나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용접기능의 본때를 보였지요. 그래도 용접을 나르는 일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꼭 한달이 돼서야 용접공으로 고착시켜주더군요.

벌써 겨울은 깊어졌습니다.

서해에 밀물이 시작되고 집체같은 얼음장들이 얹히고덮치면서 기슭으로 밀려들무렵이면 하늬바람이 회오리치며 아무것이나 거머쥐고 집어던질 기세로 온통 하늘땅을 휩쓸어버립니다.

불역에서는 눈도 제대로 뜯수 없고 발걸음도 마음대로 옮겨짚을수 없을 형편입니다.

물에서 하던 강철원통기둥조립작업이 점차 바다로 들어가면서 전진속도는 나날이 떨어져갔습니다.

간석지에 불도젤이나 굴착기를 몰아넣을수도 없고 밀물이 들어도 가덕에는 수위가 낮아서 배를 띄울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썰물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간석지에 강철이각주를 박아세우고 권양기로 강철기둥을 끄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철원통기둥이 감탕속에 박이면 강철최바줄도 탕탕 끊어져나갑니다.

큰 공사마다 돌아다니며 수리개로 소문을 냈던 술한 연공들도 어찌는수 없는 모양입니다.

《수리개가 바다에 와서 죽지가 부러졌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에서는 제기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것인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기되었으나 한가지 의견도 락착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안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독에서 내뿜는 열기와 담배연기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창문을 활 열어젖혔습니다. 창문으로는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담배연기가 타래치며 흘러나갔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작은 키를 움쭉 세우며 헛기침을 두어번 했습니다.

《어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연공소대에서는 앞으로 강철기둥조립과 강철트라스조립기를 발전시켜봅시다.

그러나 당장 배가 뜰수 없는 기슭에서는 강철원통기둥을 실을 자그만한 전마선같은 물수레를 만들어 권양기로 끌어냅니다.》

중대장의 무거운 말마디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접을 그만둘가고 여러모로 속궁리를 하던 나에게 이 협의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눈이 번쩍 띄는 기술혁신안을 내놓아서 수리개-연공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것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밤을 새워서 구상한 기술혁신안을 통계원 우정애동무에게 간단히 설명해주었더니 그는 얼마나 황홀해하였는지 모릅니다.

20여리 바다우에 공중삭도가 늘어지고 삭도줄을 따라 강철기둥이며 강철트라스가 실리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서해간석지에 황금물결이 굽이칠 래일을 두고, 현대기술로 장비된 철광산기지에 쏟아져 내릴 쇠돌폭포를 두고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넓어지는 조국의 판도와 함께 조수력발전소가 일어서고 소금밭이 늘어갈 전망은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렇듯 거대한 공사를 벌려놓은 사람들이 《물수레》라니, 너무도 초라한것이 아닙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제기에 대해서 중대장을 별로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진동무는 지금 맡고있는 수직용접에서 빨리 요령과 기능을 습득하십시오. 동무에겐 그것이 기술혁신이요. 기술혁신이라구 해서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허황한 일이요. 대답한건 좋으나 허황해서는 안되지요.》

이 말이 나의 귀에 들어올리 없었지요.

중대사무실에서 나와 모래불을 걷고있는 나의 마음은 편찮았습니다.

(역시 꺾꺾해. 물수레라니 흠... 이것은 수치지 수치야, 자존심두 없거든. 자신에 대한 존엄이 없이야 어떻게 대답성이 나오구 위훈이 나올수 있단말인가...)

한참 바람을 맞받아 걸었으니 나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박진동무 아니예요?》

옆에 다가온것은 유정애동무였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기술혁신안이 통과됐어요?》

우정애는 기어이 아픈데를 풀라서 건드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다 틀렸소.》

《그래요? 난 껍 기대를 걸었는데...》

우정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글썽 협의회에서는 여지없이 풍지박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갓 처녀에게서나 동정을 받게 되었으니말입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자존심이 꿈틀거리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두... 큰 공사를 맡았으면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래 물수레가 뭐요.》

나는 자신을 잃고, 남의 뒤소리를 한다는것도 잊고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중대장동무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서야 무슨 대답한 기술혁신이 나오겠소.》

나는 우정애에게 화를 내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중대장동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제철소확장공사때에도 대답한 기술혁신으로 해서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기절할번 했어요. 호, 그리구 남의 기술혁신을 돕는데서두 적극적...》

《동무, 두둔하지 마우.》

나는 우정애의 말허리를 끊으며 욕박지르듯이 웨쳤습니다.

《아이 참... 동문?...》

우리의 이야기는 싱겁게 동강이 나고말았습니다.

× ×

공사는 난관을 헤치며 힘겨웁게 진척되어갔습니다.

중대에서는 새로운 작업조건에 따라 소대와 조를 개편했으나 나는 여전히 용접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것이란 바다로 나가면서 배우에서 일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교대작업을 마치고 연공소대에 협조하러 달려가던 일도 못하게 되었지요.

나는 조립공들이 바다우에 강철기둥을 세우면 용접이나 해주고마니까 자연히 일거리가 많지 못해서 취사원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대장은 취사원을 더 맡기면서 뭐 《배간의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돌보는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나요.

나는 중대장의 처사가 갈수록 못마땅하였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키가 썩썩한 젊은 사나이가 바가지짜이나 들고 서툰 솜씨로 쌀을 이는것을 보면 아마 처녀들은 허리를 꺾고 돌아갈겁니다. 정말 이런 때에 우정애동무가 불가봐 겁이 더럭 납

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영거주춤 무릎을 세우고 쌀을 일다가도 배가 기우뚱하면 맥없이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벌떡 나서 돌아치다가는 제풀에 웃어버리고 맙니다.

배우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악같이 달려드는 파도와 얼음장들을 물리치며 일하기란 조련치 않았습니 다. 더구나 닳줄이나 끊어져서 배가 난바다우에서 가랑잎처럼 표류하기 시작하면 무전기로 예신을 불러 구원을 청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은 고사하고 아주 배멀미에 《낙초》가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이런 육체적 고통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힘에 부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춘을 빛낼 수 있을까.)

나의 위훈에 대한 불타는 욕망은 갈수록 더욱 불타기만 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나 자고 짐배가 강철기둥을 운반해올 시간이면 용접공은 저절로 일감이 떨어져서 한가하게 됩니다. 이런 때면 심란해지는 마음을 달래어 나는 주낙을 던지지요.

어느날 주낙으로 큼직한 우레기 한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날 점심식탁에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우레기 매운탕이 올랐습니다.

조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허허, 우리 요리사 솜씨가 괜찮아. 공훈요리사 감이야.》

《여보게, 공훈요리사가 왔다가두 울고가겠네. 하하.》

나의 눈꼬리가 까칠하게 곤두섰습니다.

취사원까지 겸하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역겨웁게 받아들인 나에게 동무들은 《공훈칭호》까지 덧붙여주니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나는 대번에 입맛이 걸히어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갑판우에 나서던 나는 란간우에 걸려있는 주낙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 주낙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것만 같아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란간우로 달려간 나는 주낙을 건어내어 둘둘 말아서 도구통안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체중이라든가 떨어진것만 같아서 마음이 후련해지는것을 느끼며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수리개 수리개 듣는다 말하라. 나 갈매기...》

작업조장이 갑판우에 나서며 휴대용무전기 발

송키를 누르고 전파를 날리고있었습니다. 갈매기란 우리 배 무전대호이고 수리개란 제관중대의 대호입니다.

《박진동무 있소?》

중대장의 석침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반복하여 날아왔습니다.

나는 작업조장에게서 무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박진동무요? 오늘 술섭에 나가서 용접해줄게 있소.》

《네?》

《술섭에 혼자 나가 용접하는만큼 책임적으로 해야겠소.》

《알았수다.》

나는 별로 달갑지 않았으나 인차 대답해버렸습니다. 동무들의 통담에 기분이 상했던 나는 술섭에 나가면 기분전환이 될것 같았기때문입니다.

직장장동지도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를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술섭이란 밀물이 들어올 때는 물우에 뜬 공처럼 외로운 섬이 됐다가도 물이 나갔을 때는 바다기슭과 잇닿은 허허벌판우에 오탁하니 앉아있는 하나의 산봉우리로 된답니다. 물이 있을 때는 배로 가지만 물이 없을 때는 걸어서도 갈수 있는 재미있는 섬이지요.

술섭에 오른 나는 용접준비를 해놓고 바다가에 나섰습니다.

나는 답답한 가슴을 벌리며 해풍에 실려오는 비릿한 해감내를 한껏 들이켰습니다. 바람결에 옷자락을 날리며 모래불을 걷고있는 나의 발밑에서 조개껍질이며 굴껍질이 부서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어 자꾸 걷고만싶었습니다. 그러나 맥이 진해버린 나는 모래불에 퍼더버리고말았습니다.

일망무제 펼쳐진 바다우에 흰 포말을 일으키며 세찬 파도가 밀려듭니다. 저멀리 다박술을 떠인 섬들이 그 세찬 파도에 실려 나의 품으로 마주 달려오는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동심에 젖어있던 나는 몸이 오싹해지는 바람에 일어나려다 손에 짙이는 굴껍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 술섭옆에 큰 굴밭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회에 굴밭을 찾아두었다가 우정에동무와 함께 다시 나와 볼 생각이었습니다.

(우정에동무가 생굴을 따다가 중대원들을 맛보이도록 좋은일을 시켜야지.)

어느덧 개고를 넘어 굴밭을 찾아 멀리 나온 나는 영거주춤 쭈그리고앉아 우선 굴을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별맛입니다. 너무나 재미가 나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팔렸던지 시간가는줄도 몰랐습니다. 한참 굴맛을 본 나는 배낭에 굴을 가득히

따뜻했습니다.

굴짐을 추슬러올리며 몇발자국 나서던 나는 밀물이 개고를 소용돌이치며 흐르면서 얇은 버덩을 메워버린것을 때늦게야 알았습니다.

한순간 밀물이 든다는 생각으로 아득한 생각이 들었으나 주저하고있을수 없었습니다.

술섬앞으로 가로지른 개고로는 밀물이 곧두서서 사뭇치며 흐릅니다. 노호하는 물결속에서 집채같은 얼음장들이 부나비처럼 이리저리 물리고 부딪쳐 깨여지면서 휩쓸려들고있었습니다.

사나운 바람결에 물보라가 안개발처럼 뽀얗게 피어올라 한치알도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벌써 바다물이 장판지를 치게 붙었습니다. 나는 추위도 두려움도 강그리 잊은채 개고를 맞받아나갔습니다. 어차피 개고를 넘어 섬에 올라야만 목숨을 건질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나는 개고에 들어서며 날파람이 일게 얼음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얼음장으로 뛰어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회오리치면서 포말을 일으키는 바람에 얼음장이 기우뚱해지며 쩍 갈라져나갔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며 다음 얼음장으로 가까스로 기여올랐습니다. 온통 물을 뒤집어쓰는대로 얼음버께가 두텁게 지면서 운신조차 할수없이 힘겨웠으나 한순간도 지체할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개고를 넘어서서 위험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야 오히려 나는 배포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우엔 담이 약한 사나이야 물귀신이 됐지.)

나는 바다가에 황급히 찾아나온 굴진소대장을 만나고 사무실에 들려서야 중대에서 소동이 벌어진것을 알았습니다.

방안에는 불안한 무선전파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갈매기예요. 여기 수리개 수리개...》

갈매기를 애타게 찾는 목소리는 중대통계원 우정애가 분명하였습니다.

《여기 술섬이다. 박진동무 방금 섬에 올랐다 방금...》

굴진소대장은 나의 행처를 전파로 쉬임없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동무예요?... 어쨌문...》

우정애는 다음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가 얼굴을 싸쥐는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뒤따라 분함이 서린 뽀로통한 말소리가 전파를 타고 날아오더군요.

《박진동무예요? 글썄 중대장동지가 구원선에 올랐어요. 동문 어쨌문... 이런 소동을 벌려요?...》

나는 통계원의 야무진 말에 부아가 치밀었으나 아무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 문이 벌럭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섰습니다. 관공이 진 량쪽불편에 반나마 가리운 가죽털모자와 누비솜옷우에 개흙이 얼어붙었고 장판지를 가리운 고무장화에 얼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대장의 모습은 금방 얼음구멍에서 빠져나온것 같았습니다. 구원선에 올랐다더니 사나운 파도와 얼음장을 헤가르며 나온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중대장의 눈길은 곧두서있었습니다.

그 서술에 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발자국소리가 무겁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개흙과 얼음이 계발린 중대장의 고무장화가 육박하듯이 다가왔습니다.

중대장은 가죽털모자를 벗어 책상우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지여 담배팩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안에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이 실렸습니다.

중대장은 담배가치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몽개버리고말더군요.

나에게는 중대장의 말없는 행동이 오히려 가슴을 저며내는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중대장은 움쭉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난로우에 말리려고 퍼놓은 용접봉을 통안에 주섬주섬 주어넣더군요. 중대장이 용접을 하려는 잡도리였습니다.

수긋하고 앉아있던 나는 벌떡 일어서며 도구통을 잡았습니다.

《중대장동지, 이걸 놓으십시오.》

《.....》

중대장의 불꽃이 튀는 눈길이 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그것은

《나는 너를 믿고서 보냈는데 너는 그 믿음을 배반해.》 하고 소리치는것 같았습니다.

하나 나에게는 중대장이 그썸한 일도 너그럽게 이해할줄 모르는 좁은 사람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기를 죽이고싶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동지는 대체 저를 무얼로 압니까.》

《동무는 그게 무슨 소리요.》

뜻밖에도 중대장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울렸습니다.

《욕하구싶으면 욕을 하지 어쨌서 용접봉을 빼앗는가말입니다...》

나는 울분에 차서 항변하듯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깔보지 마십시오.》

나는 중대장의 손에서 용접손잡이와 용접봉을 빼앗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며 작업장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웬일이었던지 갑자기 눈앞이 뿌옇하게 흐

러왔습니다.

×

×

술집에서 소동이 벌어진 며칠 후에 연공소대에서는 대형강철트라스조립기 《충성-75호》가 세상에 태어나 연공작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술협의회때 중대장이 지지하던, 나에게는 그리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던 기술혁신에 이렇듯 기적적인 잠재력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 《충성-75호》 조립기는 물에서 조립한 강철트라스를 물고나가서 강철기둥우에 올려놓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립기로 인해서 일어날 혁신은 편쇄공정에서도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대형강철트라스조립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천정용접과 수직용접을 하는 기능공들은 다 여기에 불게 되었습니다. 그바람에 나도 물에 오르게 되었는데 결국 《선발》된 셈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궁둥이를 붙이고 원형, 룡형... 등으로 말구어놓은 쇠붙이들을 이어붙이는 일을 하느라 별 생각이 다 들지요. 자꾸 세월은 가는데 나이는 들고 해놓은 일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던 가슴은 허전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날이었습니다.

나는 철골물에서 야무진 망치질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용접불꽃을 멈추었습니다.

《박진동무- 여기에 쇠물을 다시 먹이시오.》

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중대장의 망치를 쏘아봤습니다. 요전해도 이렇게 반복작업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용접물이 움두꺼비잔등같이 녹아붙었소. 요즘 추위에 내부에 금이 갈수 있소.》

《네?...》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나무가 오래동안 서있는 것처럼 강철구조물은 용접을 잘해줘야 튼튼해지는 법이요...》

《힘받는 부분도 아닌데요. 그러구 뭐 제가 금이 가게 하다니요.》

나는 맛갖잖아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굵어내고 쇠물을 다시 먹이시오.》

중대장은 벌써 며칠전부터 용접능률이 안나는 복잡한 부분을 맡기고 이렇게 찍하면 용접쇠물을 뜯어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에게만 모질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와서 말없이 용접불꽃을 날리곤 합니다.

나는 중대장이 도와주는 것이 딱 질색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살난 어린애에게 밥먹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았고 더우기는 나의 자립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 수치감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흠, 오늘도 나에게 붙어있을 작정인가? 좀 본

때를 보아서 다시 발길을 하지 않게 해야지.)

이때에 중대장이 메고있는 휴대용무전기에서 찌르륵거리며 지휘부에서 중대장을 찾는 전파음이 다급하게 날아왔습니다.

중대장의 부리부리한 눈길에 아쉬움이 어리더군요. 그러나 나는 중대장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흡족했습니다.

갑자기 등위 머리우에서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고합니다.》

나는 용접면을 벗어올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우정애가 가죽장갑을 들고섰더군요.

《장갑을 받으세요.》

《오 장갑! 허허, 아직두 주인을 못찾았소?》

나는 능청을 부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후에 구했던 장갑을 또 잃어버리고 맨손으로 다니기때문에 다행이라 싶었습니다.

《작업성과를 축하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요?》

우정애는 함뱀 웃음을 띠우며 산형강무지를 바라보더군요. 그제야 그 산형강무지에 꽂혀있는 경쟁도표판과 나의 작업성과를 축하한다는 이동속보판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누굴 교양하자는 거요?》

《...??》

《중대장이 도와준 실적까지 걸어넣구 속보에 내는 법이 어디 있소?》

《중대장동지는 동무만 도와주는 줄 아세요?》

우정애동무는 야무지게 한마디 쏘더군요.

《시끄럽소. 나는 누구의 잔등이나 딛고 올라서서 제삿을 내는 사람이 아니요.》

《동무는 중대장동무를 너무도 몰라요... 동무는 실적을 가지고 운운하지만 중대장동무는 이 공사를 빨리 끝내자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정애동무는 말끝을 흐려버렸습니다.

나는 웬일이었던지 가슴이 찡-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정애가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날속에 나는 바다가운데 해상중계사가 일어서는 날을 맞았습니다.

바다우에 수백톤이 넘는 강철구조물을 올리는 일이기때문에 온 공사장이 술렁술렁 끓고있었습니다.

나는 새벽교대를 넘겨주고 그길로 해상중계사 공사가 벌어지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교각이 뻗어나간 란간우에서 우정애와 만난 나는 함께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저 멀리 다박술이 파랗게 덮인 술집이 험난한

파도에 휩쓸려든 난파선처럼 기우뚱거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박진동무, 중대장동무의 말이 저 술섬이 우리와 손을 잡겠다구 막 밀려오는것만 같대요. 참 형상적이지요.》

《글쎄... 나는 술섬이 손을 내밀며 구원을 청하는것 같소.》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소리치며 우리들의 머리위로 날아돌았습니다.

《보오. 지금 갈매기들이 먼 바다로 이사를 가고 있소...》

나는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다박술 우거진 이 바다기슭과 벼랑에 보금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바다가 누워있던 여기에 벼바다의 황금물결이 설레일것이고 새로운 군이 설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수력발전소도 일어설것입니다. 이렇게 조국의 지도가 달라질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방금 다가올 래일을 그려보며 가슴을 한껏 들먹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갑자기 나의 현재 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마음에 붙지 않은 《용접공처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진은 죽지 부러진 수리개 신세요.》

나는 심각해져서 우정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박진동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뭐요?》

나는 힐난하는투로 우정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동무가 용접한 저 강철구조물이 이렇게 바다위에 선다는걸 생각하면...》

《그만두시오. 왜 강철구조물을 내 손으로 세운다는건 상상해보지 못하고.》

나는 그에게 곱지 않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박진동무 정말...》

《그래 지금은 박진이가 죽지가 부러져서 이렇게 있지만... 본때를 보일 때가 있을게요.》

이때 교각우로 육중한 《충성-75호》가 해상중계사의 부분품을 물고 미끄러져오는바람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끊어지고말았습니다.

조립기는 우리앞에서 멎었습니다.

《박진동무! 빨리 타오.》

연공들과 함께 조립기에 올라탄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충성-75호》에 올랐습니다.

교각우로 늘어진 레루를 타고 흘러가는 조립기의 울림소리가 장단을 치듯이 우리의 흥분을 키질하여주었습니다.

일망무제 펼쳐진 난바다에서 흰거품을 일으키

며 밀려오고 밀려오는 거센 파도는 어리광을 부리듯 강철기둥에 부딪쳐서는 부서집니다. 갈매기떼는 훨훨 감돌아들고 다박술을 떠인 술섬도 거센 파도를 헤가르며 마주 달려오듯이 가까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강한 충격으로 이 기분에 오래 젖어있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교각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철트라스날개의 이음짚에 금이 가기 시작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섬찍하여 트라스가름보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가름보에는 분필로 써넣은 44번이라는 트라스 순위가 적혀있었습니다. 분명내가 얼마전에 용접한것이었습니다. 트라스를 바라보는 나의 눈뿌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중대장이 용접찌를 굽어내고 덧땀질을 하라던 트라스부위에 금이 생겼던것입니다. 마치 이런 불의의 타격을 예언하고 덧땀질을 하란것만 같았습니다.

금이 간 부위가 잠간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버그러지는것 같아서 나의 심장도 당장 버그러지는것처럼 아팠습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찼나였습니다.

《벗어라!》

나는 힘껏 소리쳤지만 발은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지만 기울기 시작한 《충성-75호》는 이미 물러날수 없었으며 이대로 두면 바다속으로 곤두박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박진이-》

어느새 길창옥중대장이 조립기에서 뛰어내리며 외마디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각우에 버티고 서며 버그러져나가는 트라스에 어깨를 들여밀었습니다.

서서히 기울어지던 대형강철트라스조립기 《충성-75호》가 멎었습니다.

《충성-75호》가 한곳에 멎자 연공들이 달라붙어 더는 앞으로 수그러들지 않게 뒤로 떠밀었습니다. 움쩍도 안하던 조립기가 뒤로 움직이는듯 몸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되었습니다.

《빨리 용접으로 붙이시오.》

중대장의 술진 눈섬이 푸들푸들 떨며 곤두서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교각란간을 잡으며 몸을 아래로 내리밀었습니다.

빨리 불꽃을 날리어 금이 가기 시작한곳에 우선 쇠물을 녹여붙여야 하는것입니다. 교각란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매달린 나는 용접불꽃을 날렸습니다. 중대장의 머리우에서 불꽃이 튀어나며 부서

지는바람에 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트라스를 지탱하고있는 중대장의 얼굴에 비지땀이 송글송글 맺히고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담…)

용접손잡이를 잡은 나의 말에 가는 경련이 흘렀습니다. 불길하게 달아오른 나의 랑볼우로 눈물이 굴러내리더군요.

《뭘하오 박진이.》

《…!!》

중대장의 눈길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뭘 우물거리시오. 때로는 철조망에 엮인 동지의 등을 밟고 적진에 뛰어들 때도 있는 법이요.》

불같은 웨침이었습니다. 나의 가슴이 후드드 뛰더군요.

(내가… 동지의 등을 뺏듯이 밟을수 있단말인가. 무슨 면목으로?…)

나는 팔꿈치를 들어 자꾸만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문대버렸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할수는 없었습니다.

용접불꽃은 날렸습니다. 번개치듯하는 푸른 섬광너머로 거연히 지탱하고 서있는 키가 양바툼한 중대장의 모습이 불사신처럼 안겨왔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며 어깨, 잔등우에 불찌가 사정없이 떨어져내렸습니다.

…강철트라스의 금이 메꾸어졌습니다.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이 긴장했던 나의 육신에 피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현기증에 몸을 비칠거렸습니다. 중대장의 억센 손이 나의 등을 받쳐주고있었습니다.

그날밤 따뜻한 아래목에 누운 나는 도무지 잠들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교묘한 달빛이 방안을 우렷이 밝혀놓았습니다. 내옆에 누운 창육중대장이 몹시 몸을 뒤채고있었습니다.

오늘밤에 벌어졌던 일이 지워지지 않고 뇌리에 번뜩이며 떠올랐습니다.

강철트라스의 금… 용접불꽃속에 거연히 서있던 중대장…

《…철조망에 엮인 동지의 등을 밟고 적진에 뛰어들 때도 있는법이요.》라고 불같이 웨치던 중대장의 목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귀가에 쟁쟁히 남아있습니다.

직장장동지!

전쟁시기 창육중대장동지가 적의 철조망에 몸을 던졌을 때 꼬마대원이었던 직장장동지도 눈물을 흘리며 등을 밟고 적진에 뛰어들었다지요. 나도 오늘 눈물을 흘리며 용접불꽃을 날렸습니다. 그리하여 전우의 고귀한 발자국이 찍혔던 중대장의 등에 나는 불명예스러운 용접불꽃을 쏘았습니다

다.

중대장은 몸을 여전히 뒤적이면서 모로 누워있었습니다. 항상 반듯이 누워서 주무시던분이…

나는 머리맡에 벗어놓은 중대장의 작업복을 펼쳐들어 달빛에 비쳐보았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어진 작업복새로 달빛이 흘러들더군요. 아… 이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중대장에게 나는… 조국과 시대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성실한 태도보다 자신만을 돈보이게 하려는 그런 《공명》의 병집때문에…)

나의 뇌리속에는 이곳 건설장에 지원해올 때 서해리역에서 중대장동무가 우등불가에서 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심각하게 울리는것이었습니다.

《동무, 거 발치에 있는 장작을 불속으로 밀어넣소. 그렇게 가덕에 떨어져있으면 불길이 안일어나 구 내내만 피우는 법이요. 장작가치를 모아놔야 우등불은 잘 타구 불길이 오래간다우.》

나의 머리는 저절로 숙어졌습니다.

(나는 중대장의 믿음을 저버렸어… 결국 집단이라는 커다란 우등불밖에서 맴돌아쳤으니… 내내만 피워왔지 아…)

그러나 중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날 조국을 피로써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비날론건설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그 어디라 할것없이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한곳에서 이런 공적을 쌓았다라면 그는 지금쯤은 대단한 사람이 됐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공명이나 영예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이 그의 행복이며 희망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펼쳐진 여기 벨트콘베아건설장에 남먼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당중앙이 펼친 원대한 대자연개조를 한시바삐 실현하려는 불타는 욕망만을 안고말입니다. 명예나 사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조국의 거창한 강철구조물에 틈이 생기거나 토대가 허약해서는 일어설수 없다고 하던 그의 참뜻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공들이 안아올리는 강철구조물이 중대장과 용접공들이 주춧돌처럼 떠받들어주는 힘이 없이 어떻게 그 위용을 자랑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중대장의 등을 슬그머니 쓸어보았습니다. 마치 콩마당을 더듬는것 같아서 눈물이 핑하고 솟구치더군요.

창육중대장이 킁 갑자르며 몸을 뒤쳤습니다.

《왜 자지 않소? 매일 용접때문에 술섭에 또 나

가 봐야겠는데...》

중대장이 나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일했습니다.

《중대장동지!》

가슴속에 그들먹이 피어올랐던 뜨거운것이 건잡을수없이 나의 불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것을 씻을념도 하지 않고 중대장의 품속에 얼굴을 묻어버렸습니다.

한참만에 머리우에서 중대장의 물기어린듯싶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이, 꼭 자라구...》

《...!!》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래불에 발자국을 찍으며 하염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저 멀리 솔섬에로 뻗어나가는 장거리벨트콘베아가 달빛아래 우뚝히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솔섬에로 질주해 달리고만싶은 나의 마음을 알고 손저어주는 환영으로 떠오릅니다.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립장에서 밤하늘을 들어삼키듯 일어나는 무수한 용접불길을 새삼스러운듯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저 용접불길!... 저 불길 하나하나가 합쳐져 저처럼 무수한 불길로... 세상에 빛발을 더 세

차게 뿌리는것이지... 나도 어서 저기로 달려가 나의 용접불길로 불길을 더 크게 더 밝게 빛내여가자!)

나는 조립장을 향하여 조급해진 마음을 진정할수 없이 달려갔습니다.

× ×

직장장동지!

이제 머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게 될것입니다.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펼쳐진 여기 벨트콘베아건설장에서 나는 귀중한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귀중한 로동계급의 자각을 지니게 되었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큰 영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장동지!

창문너머로 바라보이는, 바다로 뻗어나간 벨트콘베아는 쉬임없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갑니다.

처절씩거리는 파도소리와 벨트소리가 어울린 저기 바다가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군요.

나는 벨트의 란간우로 바다바람을 시원히 마시며 거닐고싶어 여기에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벨트콘베아조업식날밤에

박진 올림

다듬은 말

본래말

대두박
대등
대대적으로
대량수송
대량적으로
대렬형성
대마로프
대면하다
대못
대부금
대부분

다듬은 말

콩깨묵
갈음
많이, 크게, 널리, 힘있게
많이 나르기
많이
대렬짓기
삼바(줄)
만나다, 마주하다
큰못
꾸어준돈
거의 다, 거의 모더
(거의 모든~, 많은~)

본래말

대사련습
대소사
대저울
대출하다
대치하다
대합실
대형선박
대화
대양
대여하다
데카당

다듬은 말

말익히기
크고작은일
큰 저울
빌려주다, 빌리다, 빌려내다...
바꾸다, 바꿔놓다
기다림판
큰배
서로말
한바다
꾸어주다, 빌려주다
퇴폐주의

평범한 나날

김응호

계절은 또 한고래 굴러 석마강기슭에 봄빛을 수놓았다. 앞을 다투어 피어나던 매화꽃, 진달래꽃이 한물 지나가자 실실 늘어진 버들가지들에는 파란 잎사귀들이 돌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 것처럼 생의 환희로 들끓는 봄은 동수에게 그대로 기쁨이 되어주지 않았다. 봄이면 의례히 버들피리 불며 석마강기슭으로 뛰어다니던 것이 었그제같건만...

동수는 즐거웠던, 이제는 흘러보낸 그 봄이 아름답게 련상되었다.

올해도 봄은 변함없이 찾아왔건만 어찌하여 오늘은 범상해보일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봄의 정서에 둔감해진탓일가.

동수는 나이가 들기도전에 벌써 늙어버린듯싶어 화가 났다.

대기근무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동수는 시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예, 상하수도관리소입니다... 어디라고요? ... 석마유치원 세면장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 곧 고쳐드려야지요.》

동수는 《고장접수》대장에 전화로 알려진 신고내용을 기입하였다.

동수는 지금 대기근무를 서는것이다. 대기근무란 임의의 시간에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상하수도 설비고장들을 제때에 수리하기 위해 대기하는 근무였다.

동수가 도구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막 떠나려던 때였다.

동수와 함께 대기근무를 서는 독고창연이 대기실 뜰안에 들어섰다.

《여보게 동수!》

독고창연은 동수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아바이의 무뚝뚝하게 보이는 검실한 얼굴은 오늘따라 환하였다. 두툼한 입술에까지 웃음이 어렸을 때에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동수, 이 신문을 좀 보게...》

독고창연은 손에 들었던 신문을 동수에게 내밀었다.

우심하게 신문우로 미끄러지던 동수의 눈길은 한 청년의 사진에서 못박히고말았다.

《아니, 이 친구가...》

동수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놀란 부르짖음소리가 뛰어나왔다. 그 사진의 주인은 동수의 고등

중학교 동창생인 박주현이었다.

동수는 《젊은 기관사》라는 신문기사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석달만에 기관사라... 그리구 무사고주행의 선구자로 되구... 이 친구 괜찮은데)

동수는 기사의 구절구절에 현혹되었다.

《그 젊은이가 신흥동 식료상점채 2층 3호실집 일용품공장 부지배인 아들이야...》

독고창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랑이 한껏 어려있었다. 마치 (자, 보라구 내 담당구간 아빠트마에서 또 혁신자가 나타났다는) 자랑인듯싶게...

《내 그 집에 수도 고치러 갔을적에 그 젊은이를 봤는데 어딘지 사람이 다르더라니까. 팔을 걸어붙이구 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구 도와주더라니...》

동수는 온몸의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끼며 신문을 도로 아바이에게 내주었다. 그와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가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랐다.

(아, 동무들은 벌써 몰라보게 발전하고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동수는 울고라도싶은 심정이었다. 지금처럼 자신이 초라하고 아득히 뒤떨어져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동수는 피로와졌다. 그리고 여직껏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위훈에 대한 들끓는 욕망이 가슴을 뒤흔들었다.

직업만 잘 선택했더라면 무엇인가가 가슴을 훑으며 지나갔다.

사실 학교시절에는 최우등생으로, 축구선수로, 학교 취주악단의 바이올린수로... 둘도 없는 《재간둥이》로 떠받들리워있던 동수였다.

만약 동수가 배치만 《좋은곳》에 받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송동수》란 이름도 사람들의 입에 경탄으로 출창 올라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일을 할바엔 벅차구, 눈에 잘 뜨이는곳에 가야 한다니까.)

이런 동수의 기분에는 무관계한 독고창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수도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라구. 무엇이 모자라서 못하겠나, 젊겠나, 재간두 있겠나...》

《.....》

동수는 대답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바이는 상하수도과 같이 눈에 잘 띄이지 않고 작은

곳에서도 위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여기에 무슨 피를 끓게 하는 혁신이 있고 창조가 있단말인가. 과연 30년동안 상하수도에서 일했다는 아버지의 가슴에 남부러워하는 훈장이 얼마나 되는가. 저 아바이에게도 한때는 젊음이 있었고 위훈에 대한 불타는 욕망이 있었을것이다. 하나 아바이가 가지고있다는것이 무엇인가. 물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땅속의 관이 못쓰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놀랍게 알아맞히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있을뿐이다.

물론 범상하게 살아가자면 그 《놀라운 귀》만 가지고도 아빠트마를 아주머니들의 찬사쯤은 넉넉히 받을수는 있다. 하나 동수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싶지 않았다. 그래도 무엇인가 해놓았다는 자욕을 남기고만싶은 그였다.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그저 그럴듯한 보라빛 보자기에 싸인 말같이 들렸다.

《아바이, 난 지금 <사고처리>하러 가거든요... 바빠요...》

동수는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자전거를 끌고 뜰 밖으로 나와버렸다.

불편 가마처럼 동수의 가슴은 끓기만 하였다.

(아, 친구들은 발전하고있는데...)

동수는 이제라도 당장 위훈이 있고 보람이 있고 로동의 영예가 있는곳으로 달려가고싶었다. 하나 동수는 불같이 가슴에 타오르는 그 모든 욕망을 지그시 눌러버렸다.

× ×

아빠트창문마다에 감빛 저녁노을이 한껏 물들어있었다. 이런 때면 저녁밥짓는 구수한 냄새가 조용히 떠돌고 그릇이 마주치는 달그락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장난에 취한 아들애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울려퍼진다. 행복과 안녕이 깃드는 저녁이었다.

동수가 석마유치원 마당안에 들어섰을 때였다. 유치원현관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듯 서성거리고있던 처녀가 동수에게로 곧장 마주왔다. 처녀의 반색하는 두눈길을 받은 동수는 당황해졌다. 자전거에서 도구가방을 내리던 손이 갑자기 커진듯싶어 어디다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런, 제길... 처녀가 어쨌라우 이래...)

동수는 자신에게 화를 냈다. 그는 처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다.

처녀는 급히 동수를 멈춰세웠다.

《저, 상하수도관리소에서 나오셨지요?》

동수는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쨌지 《상하수도》란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기때문이었

다.

《동무는 누구요?...》

동수는 불시에 화가 치밀어 거칠게 소리쳤다.

《전, 유치원교양원이에요...》

처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처녀는 곧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어린이목욕실 수도들이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어요... 글썽 야단났지요 뭐, 래일이 목욕날인데...》

처녀는 안타까운 사정을 조심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동수는 처녀를 먼바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쨌지 도구가방이 불편해지는것이였다. 이런 자신을 가리우기라도 하듯 동수는 위엄있게 말했다.

《동무네 소장선생은 어디 계시요?》

《구역에 회의를 가졌어요.》

《그럼 고장이 났다는데 안내하오.》

동수는 우정 위엄을 돌구었다.

어린이세면장의 수도물들은 실오리처럼 가늘게 흘러나왔다. 분명 땅속의 어느 관이 터져서 물이 새나가는것이 틀림없다.

《고장이 심한가요?》

처녀는 근심스럽게 울었다.

《수도사용규정을 여기면 이런 고장이 생기는 법이요.》

동수는 계면직계 한마디 내뱉고는 밖으로 나왔다. 수도관을 검사해봐야 했다. 어느 사람들은 땅속에 묻힌 관을 볼수 없지만 상수도관리공들은 손금보듯 환하다. 관을 따라가느라 물이 땅우로 스며배어나오는곳이 사고난 부분일것이다.

동수는 몇번이고 훑어보았으나 사고난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제길, 애를 먹게 됐군.)

동수는 두덜거리며 아빠트현관앞 망홀들을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이 없었다. 이제는 거리의 망홀로 가보아야 하였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동수의 마음을 찢었다.

(거리에 있는 망홀이야 우리 담당구간이 아닌데...)

동수는 그냥 되돌아가고싶었지만 차마 그럴수 없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수는 거리로 나왔다.

인도블록을 동그랗게 차지한 상수도망홀앞에 다달았을 때였다. 두꺼운 뚜껑안에서 《좌-좌-》하는 물소리가 소란스럽게 튀어나왔다. 동수는 대뜸 관이 터졌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여기서 물이 새나가기때문에 유치원이 정상수압을 보장받을리 만무하다. 이것을 고치자면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동수는 마음이 푸근해졌다. 한것은 여기는 동수네의 관리구간이 아니였다. 인흥구역상하수도관리소의 담당관리구간이였다. 유치원에서는 동수네한테 잘못 연락한것이

다.

동수는 되돌아섰다. 하나 웬일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깨름해졌다.

(남의것을 공연히 건드렸다가 우환거리를 만들면 큰일이야...)

남의 설비에 마음대로 손을 댔다는 시비를 얻어 들을수도 있는것이다.

(하기는 책임한계는 명백해야 하거던.)

동수는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동수는 유치원마당안으로 들어섰다. 꽃밭에 앉아서 풀을 뽑아주던 그 처녀가 웃음을 띠운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다 고쳤는가요?》

그 순간 웬일인지 무엇인가 동수의 가슴을 쿡 찌른다. 그는 자전거우에 도구가방을 도로 없으며 우정 무뚝뚝하게 말했다.

《고장난데는 우리 담당구간이 아니요.》

《에-?!》

처녀의 두눈은 동그아졌다. 무슨 말뜻인지 리해할수 없다는 표정이다.

《유치원으로 오는 상수도관이 인흥동에 있는 상수도본선에 련결되어있소. 이 본선에 사달이 생겼단말이요.》

《그럼 어찌나, 우리 유치원에는 물이 안나오면 안되는데...》

처녀의 얼굴은 대번에 어두워졌다.

《어찌겠소, 우리 일에는 서로 책임한계가 있는걸. 또 그건 기술규정상 요구이기도 하오...》

동수는 할일을 다했다는 떳떳한 자세로 자전거에 올라탔다.

《저- 인흥구역 상수도관리소에 연락하면 고장난걸 고쳐줄게요.》

동수는 처녀를 외면한채 말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에 쫓기듯 황황히 물러나왔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거리에서 쉬임없이 울리던 자동차들의 경적소리도 이제는 뜸해졌다. 아빠트창문에 어렸던 불빛도 하나 둘... 꺼졌다.

동수는 어쩐지 속이 좋지 않았다. 마치고 먹은것이 체한 때처럼...

동수의 귀에는 상수도망홀안에서 마구 터져나오던 물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더 크게 들리는가 하면 가슴을 피롭히기도 하였다.

동수는 마음을 독차지하고있는 그 물소리를 벗어던지려고 소설책을 펼쳐들었다.

《...산길은 험했다. 명환은...》

동수는 글줄을 따라가며 큰소리로 읽었다. 하나 글줄은 뒤번져지면서 상수도망홀이 눈앞에 떠올랐고 신음소리같은 물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구 이모양이야!)

동수는 그만 화가 뵈쳐서 소설책을 덮어버렸다.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하였다. 바람도

쏠일겸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한바퀴 돌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방을 비어두고 나갈수 없다. 그사이에 설비고장전화가 걸려올수도 있을것이다. 이런 때에 아바이라도 있었으면 대기실에 앉혀놓고 한바퀴 기분 좋게 돌았으면 괜찮으련만 아니, 말동무라도 해주었으면 이렇게 답답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 아바이는 어디에 갔기에 아직 들어오지 않아.)

동수는 이 자리에 없는 아바이의 처사도 불만스러웠다. 그는 아바이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미인줄을 잘 안다. 하다못해 줄칼질이라도 하던가 어디에 가서라도 고장나지 않은 수도 일망정 한번 틀어보고서야 마음을 놓는 아바이였다. 지금 이 밤도 아바이는 무슨 일감을 공연히 만들어서 하느라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아바이의 정성에 이따금 감복하는 동수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우환거리를 만들어서 속을 좋지 않게 만들군한다.

(아들딸들이 모두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젠 집에 들어가 쉬여두 뭇만한데...)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레절범위를 벗어난 두드림소리였다. 동수는 화가 났다.

뜻밖에도 문밖에는 열살쯤 되어보이는 이마가 툭 빼어져나온 소년이 서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년은 밀도끝도없이 대번에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넌 어찌구니가 없는 애로구나. 내가 어떻게 너의 할아버지를 알겠니?》

동수는 그만 어이없이 웃고말았다.

《우리 할아버지 왜 몰라요...》

오히려 소년은 제편에서 절고들었다.

《수도를 고쳐주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할아버지인데...》

소년의 입에서는 수도를 고친다는 말이 어찌나 자랑스럽게 울려나오는지 몰랐다.

동수는 그제서야 이 소년이 독고창연아바이의 손자임을 알아차렸다.

《아- 내가 널 미처 몰랐구나...》

동수는 소년에게 미안스레 웃었다.

《그래 어떻게 이 밤에 할아버지를 찾아왔니?》

《오늘 우리 할아버지 생일이 돼서 삼촌이랑 고모랑 모두 집에서 기다리구있어요.》

《뭘라구, 오늘 할아버지 생일이라구!》

동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이였는가 하는 질책의 감정이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대기근무쯤은 혼자 말아서 할걸 그랬다는 후회가 더욱 커졌다.

(참, 고정한 령감님이야, 생일날 하루쯤 일찍 들어간다고 누가 뭐란다고...)

동수는 속으로 아با이를 몇번이고 나무랐다.

《애, 너 집에 먼저 가거라. 내 너희 할아버지를 보내주마.》

동수는 소년에게 죄스럽게 말했다.

《글튼,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라고?》

《그래라.》

소년은 이발 빠진 입을 뻗하니 드러내보이며 유쾌하게 웃었다.

소년은 강충거리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동수는 뜰안에 세워둔 자전거의 바퀴를 꺾꺾 눌러보았다. 바람이 나갔을가보아 넘려서러워서이다...

자전거를 끌고 대문으로 나가던 동수는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시꺼먼 그림자와 마주쳤다.

동수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독고창연이었다. 물주머니를 뒤집어쓴듯 아바이의 옷은 폭 젖어있었는데 옷에서는 아직도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아바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요.》

《.....》

아바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실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동수는 아바이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서 가슴서늘한 그 무엇을 느꼈다. 그는 아با이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아바이는 도구함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절그럭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있다.

동수는 아با이를 이윽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바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바이는 물방울이 맺힌 얼굴을 번쩍들며 돌아앉았다.

《임자, 왜 석마유치원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나?》

《예?!- 아바이, 그것때문에 그래요...》

동수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본선이 고장이 나서 유치원수업이 떨어진거야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닐세.》

아바이의 얼굴은 구름이 낀듯 흐려있었다.

《그럼, 우리 담당구간이 아닌데 남의 설비에까지 손댈 필요가 없어서...》

동수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아바이의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지는것이었다. 그리고 가닿으면 바위라도 뚫어낼것 같이 두눈에서는 불이 황황 일었다. 고함소리가 터져나올듯 아바이의 두툼한 입술이 우물거렸다.

동수는 가슴이 서늘하였다.

뜻밖에도 아바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그래 임자는 어떤 보수나 명예를 바라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동수는 예리한 칼끝으로 가슴을 훑으며 지나가는것과 같은 찌릿한 아픔을 느끼는것이었다. 그와 함께 그 어떤 반발심이 불끈 치미는것이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일을 하겠나요.》

동수는 불만스럽게 한마디 내질렀다.

《리치가 환한 사람이 물이 새어나가는걸 보구두 왜 그냥 돌아왔나말일세...》

아바이의 목소리는 조용하나 날카로웠다.

《...남의 설비라구, 그래 임자는 물이 새가나는게 제 살점이 떨어져나가는것처럼 아프지 않나말일세.》

동수는 그 어떤 거세인 몽둥이로 얻어맞은것 같이 머리속이 뻗뻗했다.

《나라의 재산이 새나가는데두...》

아바이는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마치 참기 어려운 아픔을 이겨내기라도 하듯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바이는 무슨말인가 더 할듯싶더니 나사조이개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으로 뺑-하고 나가는것이었다.

방안에는 짓누르는듯한 정적이 찾아들었다.

동수의 가슴속으로는 그 어떤 배반당한듯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데 뒤엉켜서 물려들었다.

X X

동수는 대기근무실밖으로 뛰어나왔다.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거리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동수는 참기 어려운 걱정을 안고 앞으로 걷기만 하였다.

아바이의 목소리가 귀가에 다시 들려왔다.

(물이 새나가는걸 보구두 제 살점 떨어져나가는것 같이 가슴이 아프지 않던가?...)

그 한마디한마디는 동수에게 그 어떤 모멸과 울분을 느끼게 하였다. 동수가 요새 한껏 들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아바이의 질책이 스며있기때문이었다.

동수는 자신에 대하여 변명해보았다. 새파랗게 젊은것이 상하수도과 같이 부차적인 의의를 가지는곳에서 여직껏 일한것만도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리고 평범하게 살지 않고 젊음을 보다 빛내며 사는것이 무엇이 나빠서 아바이는 저리도 타발이 많은가. 아바이의 눈은 너무도 편협한것만 같았다.

(물이 새어나가는걸 보구두 제살점 떨어져나가는것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느냐구요.)

아바이의 목소리를 또다시 동수에게 아프게 들려왔다. 가슴의 상처를 사정없이 건드리는것처럼...

동수는 그 어떤 반발심이 가슴을 꿰뚫어 했다. 아바이가 한 그 모든 말이 동수자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다.

동수의 가슴속에서는 짓눌린듯한 감정과 반발심이 한데 뒤엉켜 끊임없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앞을 향해 그냥 걷기만 하였다.

갑자기 좌-하는 물소리가 났다.

동수는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덧 그는 상수도망홀앞에 서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저 물소리는 은근히 동수의 량심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바이는 저 물소리를 들어서 동수의 량심에 대하여 물었다.

동수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또다시 꿈틀하였다. 그는 그 어떤 반발심으로 상수도망홀 뚜껑을 열었다.

갑자기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관이 막 부딪치는 쇠소리가 났다.

동수는 흠칫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앞에서 열썬거리던 그림자도 한곳에 멈추었다.

뒤이어 석싹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거, 누구시오.》

동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다름아닌 독고창연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와 함께 또 선손을 떼웠구나싶은 생각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리맥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아니, 어떻게 여길...》

동수를 본 아바이는 뜻밖이라는 자못 놀라는 것이었다. 마치 만 세상사람을 보는것처럼...

《난, 여기 못올덴가요.》

동수는 좀전의 불쾌감이 다시 살아올라서 통명스럽게 말했다.

가로등불빛에 드러난 아바이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림시처럼 다 했네...》

아바이는 작업복바지가랭이를 쥐어짰다.

《손덴김에 삼메터가랑 삭아버린 관을 교체해야겠네.》

동수는 무언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남의것까지...)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것을 동수는 억지로 가버렸다.

《언제 네일, 내일 가리겠나.》

아바이는 동수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보는것 같았다. 동수는 속이 저렸다.

《유치원에두 물을 빨리 보내야 할게구, 발브를 막은 선에 매달린 아빠트수도들도 빨리 살려줘야 할게 아닌가.》

《.....》

《사람들이 조그마한 불편을 느끼게 한다면야 우리 본분을 잃는게 아니겠나.》

동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바이한테 또 한수 먼저 떼웠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생각이 스

쳐지나갔다.

《아바이, 난 그런 생각을 못하구있는줄 알아요...》

동수는 우정 투덜거리듯 말했다.

《아바이는 집에 들어가보시라고... 정말 내 립장을 딱하게 만들지 말구요.》

아바이는 동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차 알아차렸다.

아바이의 입가에 느슨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동수를 바라보는 눈길은 여느때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끄무레해졌다.

봄날의 새벽대기는 쌀랑하고 맑았다.

거리는 고요와 안녕 속에서 잠들어있었다. 동수는 잠시 일손을 놓고 땀을 들이었다. 간단히 끝내자고 달라붙었는데 막상 해보니 작업량은 엄청나게 컸다. 몇메터 땅을 잘 파야 했던것이다.

지금 동수는 땅을 파다가 쉬는것이였다.

아빠트 어느 집 창가에서 불이 병곳 켜졌다. 아침을 준비하려고 언제나 부지런한 주부가 일어난 모양이다. 그것을 확증이라도 하듯 수도물소리가 새벽대기를 정답게 흔들었다.

웬일이었던지 동수의 가슴은 쩡-해졌다. 저 아주머니는 저 정다운 물소리를 위하여 이 밤을 지새우고있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거나 할가. 사람들은 흔히 저 거리에 서있는 건물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경탄하고 찬사를 보낸다. 하나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기초가 어떻게 박혀있는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없으며 또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마 동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기초의 가치를 알고있을는지...

동수는 여태껏 밤을 새우며 한 모든 일이 바로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떠받들고있는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숭엄한 생각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흔드는것이였다. 상하수도일도 고상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는 말갈지는 않았다. 그러고보면 고상하고 훌륭한 일이란 몇몇 규정된 대상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 고상하고 훌륭한것을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수고하십니다.》

동수의 등위에서 굽직하고 무게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작업복을 걸친 풍채가 좋은 사람이 삽을 메고 서있었다.

《상하수도관리소에서 나오지 않았소?》

《예?!》

동수는 어정쩡해서 대답하였다. 웬 사람일까. 풍채를 봐서는 보통사람같지를 않은데...

《우리 독고창연아바이가 어디 갔소?》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 독고창연아바이》라는 말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흘러나왔던지... 그리고 첫새벽에 무슨 일로 아바이를 찾는지... 동수는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게 아니라 밤에 아바이가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관 나사를 쳐달라구말어요...》

동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바이는 어제 집으로 간것이 아니라 기계공장으로 갔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밤을 새우며 교체해넣을 상수도관을 가공했을것이다.

《아무래두 기계조립은 내가 더 나을것 같아서 아바이를 도와주자고 교대작업을 끝내자바람으로 찾아왔는데 아바이가 없구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떠올랐다.

동수는 저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상하수도 사람들을 리해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싶어서였다.

저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인가.

동수의 눈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랐다. 그리고 자기를 리해해준다는것으로 해서 더없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저기 아바이가 오는구만.》

그 풍채좋은 사람이 먼저 소리쳤다.

동수는 삽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속에 싸여서 걸어오고있는 아바이를 발견했다. 마치 대오의 앞장에 선 기수처럼...

《자, 보시오. 우리 인민반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자랑에 넘쳐있었다.

《아바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가를 보시오...》

동수는 분명 저 많은 사람들이 아바이를 도우려고 따라나섰으리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누가 시켜서가 결코 아니였다.

《저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소.-》

동수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아바이는 빙그레 웃으며 동수에게로 다가왔다.

《임자, 밤새 수고했네-》

《뭘요...》

웬일이었던지 동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교체해넣을 관을 밤새도록 가공했을 아바이의 수고에 비하면 자신이 한 일은 너무도 작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동철이 아버지두 이렇게 나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바이는 그 풍채좋은 사람에게도 사례를 보내

는것이였다.

《고맙다는 말이야 우리가 아바이한테 할 말이지요...》

그 사람의 눈은 더없이 따뜻하였다.

아바이는 사람들쪽으로 돌아섰다.

《철수 아버지!》

《예!》

키가 경중한 사람이 아바이앞으로 나왔다.

《기계를 다루는데서 일하니까 관을 좀 말아 조립해주우. 그리구...》

아바이는 또 돌아섰다.

《영희 아버지는 흠을 매물해주구-》

사람들은 아바이의 《지시》를 달게 받는다.

사람들에게 준 사랑은 사랑을 낳는것이 아닌가. 그제야 동수는 밤낮없이 물에 젖어있는 아바이의 손이며 옷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동수는 아바이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또 웃으며 떠들며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이 뭉클해왔다.

바로 저것이 행복이며 값높은 삶이 아닐가. 인민의 사랑과 존경의에 무슨 또 다른 명예가 요구되겠는가.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자랑이 있을것이다. 로동계급에게서 인민의 총복이라는 인민대중의 평가보다 더 높은 영예와 기쁨이 어디 있으며 그밖에 개인으로서 얻을 공명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인민들의 생활속에 전달하는 참된 인민의 봉사자! 이 평범한 날에 동수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보고느끼기 시작하였다.

동녘하늘이 밝았다.

《동수!》

아바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유치원에 가서 제대루 물이 나오는가를 좀 보구 오라구.》

동수는 한달음에 유치원으로 갔다.

마침 어제 만났던 교양원처녀가 뿔발에 물을 주고있었다. 동수를 본 그의 두눈이 놀랍게 둥그래졌다.

《교양원동무!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좀 가보우.》

처녀는 대뜸 현관안으로 사라졌다.

《물이 잘 나와요.》

처녀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랑랑하게 울려퍼졌다.

동수는 무뚝뚝하게 처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돌아섰다. 하나 그는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밤사이애 벗어버린듯한 홀가분한 기분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 삶의 영원한 거울앞에

서봉제

푸르른 나무앞도

물안개에 젖어 설레는가

삼지연못가 은모래 밟으며

내 생각의 끝은 어디

질은 봄빛에

호수는 부풀고

맑은 물이랑은

내 옹기는 자옥우에 부서지고

이 기슭이었구나

아득히 먼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못내 그리워 불러보며

투사들 달려왔던 조국강산!

두손모아

수정같이 맑은 물 정히 떠안으며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던

밀림속의 호수여

준엄한 혈전의 언덕에서

숨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득한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러

넋이나마 보내고싶었던 이 산천을

투사들은 행군의 한순간에

새겨안고 떠났구나

몇날 몇밤이라도 거닐고싶었던만

군복자락 부여잡고 어리광치는

진주물결의 말없는 속삭임에

가슴뜨거워-

그래서 떠나가서도 못잊어

결전으로 달려가던 그 길우에

다시금 다시금 안아보던 삼지연!

끝없이 설레이라

출렁이는 네 물소리 가슴에 새기고

투사들 혈전만리길에 다진

조국 위한 그 맹세

이 아침 백두의 노을로 피어

락원의 이 물결우에 어리였구나.

아, 그토록 짧았던

행군의 한순간

투사들은 네 기슭에 섰다갔어도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내 오늘은 걸음 땀줄 몰라라!

백두의 숭엄한 모습 비껴담은 물결

내 삶의 영원한 거울앞에

어머니조국에 바쳐갈

한생을 비쳐보며-

사랑의 포구가 되어

김병두

떠나는 배고동소리
불어오는 배고동소리에
홍성이며 들끓는 포구의 아침
바다를 향해 힘껏 뻗은 잔교 한끝에서
아름다운 포구여
웅대한 네 모습을 안고서면
은혜로운 은정 가슴에 넘쳐와라

어제날 돛배 흔들리고
녹슨 닻이 모래불에 덩굴던 이 기슭에
바다와 마주 웃는 무수한 창문들
그 하나하나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미소
조선소의 대형선박과 랭동공장 은빛지붕들
그 하나하나에 넘쳐흐르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

인민에게 푸짐한 식탁을 안겨주시려고
전후의 그날에 여기 오시여
이 기슭을 밟으시던 어버이수령님
만년대계 어항도시를 꾸리자시며
걸으신 사랑의 길은 얼마이시던가

우리 힘으로 더 큰 기계배도 못자고
어로공들의 가슴을 바다처럼 띄워주시며
방파제가 뻗어갈곳을 손들어 가리키실 때
포구여, 너는 그날에
벌써 만리대양을 향해
오늘의 넓은 가슴 활짝 펴들지 않았더냐

아, 밤은 깊어
포구의 구내길에 자리잡은 렬차
차창가의 불빛은 새날로 흘러도
항만건설의 설계도를 두고
깊은 생각을 기울이시던 수령님
이른새벽 몸소 배우에 오르시여
큰 배길을 열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고
어로공들은 한품에 안아주시던 사랑이여

은혜로운 그 손길따라
멀고먼 대양도 지척인듯
이 기슭에서 철갑선단들의 배길은 열리고
새 어항도시는 하늘높이 솟아
사시절 풍어의 기쁨을 안았구나

날마다 만선의 기쁨속에
포구는 더 넓어져
바다 그리운 먼 산간마을까지
랭동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
기쁨의 물결 행복의 물결 출렁이여라
언제나 어로장들과 함께 계시며
끝도 한계도 없이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아래

포구여, 동해의 어항도시여
더는 행복의 기슭으로 꽃피여났구나
이 땅 천만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천만의 포구가 되어, 사랑의 포구가 되어...

아들아, 이 길로 가자

-남녘의 한 어머니가 부른 노래-

림공식

너를 포근히 안아주고
너를 고요히 잠재워주던
이 품속에

아들아, 투쟁의 뼈라를 품고
저기 령너머 광산마을로 가면서
나는 너를 부른다

너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끼때면 집으로 불러들이고
먼곳에 가있는 자식들이 그리워
입속으로 다정한 이름을 불러보는
그 애뜻한 심정이 담긴것이 아니다

별빛도 총총한 이 밤에
너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네가 치욕스러운 《국군》에 끌려갈제
이 홀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느냐
하늘땅에 애절히 울려가던
그날의 그 부르짖음이 더구나 아니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너는 태어났다
한줌의 쌀이 없어
무거운 몸을 끌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찬서리내린 발머리에서-

생의 고고성을 터치는 너에게
아, 가슴저미는 아픔속에 눈물속에
꼭신한 베개대신 발이랑을 베여주고
다 해진 몽당치마를 찢어
너를 덮어주어야 할 때

아들아 그것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어머니의 지극한 지성이
정녕 없어서이라

사랑과 정성이 꽃피기에는
남녘의 이 땅은
너무나도 모질고

너무나도 눈서리가 차거웠다
나의 아들아

때문에 그때문에
암흑의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쟁의 거리에서
너의 아버지는 떠날줄 몰랐고
오늘은 어머니가 이 길을 가는게 아니냐

네가 태어나던 그날에
너를 처음 맞이한
어머니의 원한의 피눈물이 배인
거친 발이랑과 그 몽당치마는
네가 한생을 어떻게 살며
네가 한생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말하여주고있다

가지 않고서는 아니될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기에
아버지가 갔고
어머니가 가고있는
이 길로 아들아 어서 가자

성스러운 이 길우에서
보람찬 삶을 찾고
꿈같은 행복을 맞으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하루속히 안기려니

아들아, 이 길로 가자
《유신체제》의 독아를 뿌리뽑으며
철천지원썩 미제의 숨통에
파퇴도당의 가슴팍에
증오의 총부리를 돌려대며
인민이 바라고
조국이 바라는
이 길로 함께 가자
이 길에 너와 나의 영원한 상봉이 있다

분노의 화산을 터치여

림학수

나의 앞에는 한장의 신문이 놓여있다. 본격이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사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증오가 불같이 솟구치는 사진이 바로 이 신문에 찍혀있다. 그것은 조국의 북과 남을 두동강으로 갈라놓는 철근콘크리트장벽을 찍은 사진이다.

지금도 남조선의 피뢰도당은 분계선일대에서 분렬의 장벽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동해가 산벼랑에서 서해의 모래톱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허리를 잘라 아름다운 강산에 후손만대를 두고 저주받을 치떨리는 죄행의 피자국을 찍어가고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들, 신성한 국토를 동강내는것도 원한에 찬 일인데 민족마저 영구히 갈라놓으려는 그 악행이 실로 가증스럽고 저주롭기 짝이 없다.

피뢰역적들이 한사코 우리 조국을 인공적으로 갈라놓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리유는 너무나도 명백한것이다. 그것은 테로와 폭압을 자행하면서 피를 빨아 살진 제놈들의 더러운 목숨을 하루라도 더 부지하기 위하여 나라의 절반땅을 미제 침략자들에게 아주 떠맡기자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며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외부세력이며 내부세력으로서 오직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자들 뿐입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는 결코 두개 민족으로 갈라질수 없으며 또 그 누구도 갈라놓을수 없는 민족이요, 그러한 나라이다. 이 땅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랜세월 하늘 푸르고 물 맑은 이 강토에서 살아오던 우리 인민이 분렬되어 살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으랴.

우리는 본래 단일민족이다. 다른 민족을 정복하

여 자기 나라에 병합시킨 일도 없었으며 이 땅저 땅 류랑하다가 남의 땅에 몸붙일곳을 찾은 떠돌이민족도 아니다. 우리는 언어도 하나요, 문화도 풍습도 하나이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우리네는 백두령봉의 천지에서 동백꽃 붉게 되는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즐기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오월단오 그네뛰기와 달밤에 들려오는 새납소리는 어델 가나 귀에 익은 가락이였다.

모두가 한집안식구였기에 제고장 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도 류달리 강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의 은금보화를 탐내어 외적이 무수히 침입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그놈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지켜냈으며 나라의 위엄을 널리 떨쳤다. 왜적이 우리 나라에 침범해들어왔을 때 호남에서는 농민들이 일떠나 승승장구 나라를 지켰고 서도에서는 승병이 펼쳐나 나라와 운명을 같이했다. 령남에서 흥의장사가 말을 달릴 때 행주의 녀인들은 성으로 기여오르는 왜적들에게 끓는 물과 돌벼락을 안겼다. 두만강에서 남해까지 한치의 땅, 하나의 웅달쌈에도 선조의 피와 땀이 스며있지 않은곳이란 없다. 조국땅 그 어느 산모퉁이, 어느 강굽이에서나 귀기울이면 바람결에 적을 무찔러 내닫던 우리 선조들의 장렬한 함성이 울려울듯싶다. 그렇게도 간고하게 지켜낸 땅이며 그렇게도 정성들여 가꾼 땅이다.

앞강에 얼음이 풀리고 뒤산에 뼈꼭새 울면 관북의 동생이 남으로 형을 찾아가며, 락엽이 소슬하고 밤하늘에 기러기 날을제면 북의 어머니가 궁금해 남녘의 딸이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한 피줄로 얹혀있었으며 끓을래야 끓을수 없는 사람들이였다.

그러한 우리를 인공적인 장벽으로 갈라놓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다!

유럽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웅기종기 몰려있어, 장구한 세월에 민족들이 이동하고 또 끊임없는 전란으로 어제는 저 언덕이 국경이던것이 오늘은 이 골짜기가 국경으로 되고 국

적도 수없이 바뀌곤하였다.

미국의 래력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미국이라할 때 우선 국법으로 공공연히 노예제도를 공포한 수치스런 나라이다. 수백만의 무죄한들이 대테로단을 무어가지고 모든 선량한 사람들, 모든 진보적인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서 정치와 경제생활의 목덜미를 쥐고있는 강도의 나라, 전국도처에 파리떼처럼 욕실거리는 깡패들이 백주에 은행금고를 들부시며 백화점 문앞에 화물차를 들이대고 략탈할 때 경찰과 사법관들이 그들의 보초를 서주는 날강도의 나라, 퇴폐적이고도 음탕한 자즈와 트위스트가 판을 치고 패륜패덕의 추악한 행위가 일상사로 되어있는 레의도 도덕도 모르는 막치기의 나라, 침략에 이끌이 나고 침략을 《애국행위》로 고취하는 강도들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삼백여년전에 그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앵글로색슨을 위시하여 세계 식민주의자들이 모여들어 주먹힘이 센놈 또는 야바위 잘치는놈이 피수도깨비노릇을 했고 밀천이라야 쌍발사냥총을 멘놈들, 노예몰이 채찍을 움켜쥔놈들, 황금에 환장이 된 투기꾼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무법천지의 전람장이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향토애며 애국심이 있겠는가. 제나라의 한귀통이가 지진으로 태평양속에 몽땅 갈았는다 해도 제 배때기만 부르짖는섭하나 까딱 앓을 족속들이다.

고르고 골라서 그런 종자들을 상전으로 삼고 스승으로 본받은 남조선피뢰도당이고보니 우리의 국토를 철근콘크리트담벽으로 박아 절반땅이나마 아주 팔아먹자는 추악한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은 뉘법도 앓은 일이다.

이미 30여년이나 남의 나라 절반땅을 강점하고 온갖 모욕을 들썩우면서 우리를 형언 못할 고통속에 몰아넣은 미제침략자들을 온 겨레는 철천지원수로 증오하고있으며 그 앞잡이 피뢰도당들을 또한 용서치 앓을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는 더 미룰수 없는 민족의 절박한 과업이다.

부모의 림종을 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회한과 남으로 갈라진 처자의 정상을 모르고 눈을 감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살아야 하며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권위와 모든 행복을 누려야 한다.

5천년의 역사를 보면 원나라에 투항한 고려의

유민 흥복원이같은자가 있었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따위가 없는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신의 영화를 위해 적에게 굴복하여 개돼지노릇은 했지만 차마 나라를 동강내고 인민에게 분렬의 슬픔까지 줄 생각은 못하였다. 피뢰도당의 신판5적은 이민이요, 판팡이요 하여 동족을 외국자본의 치욕스런 현대노예로, 노리개로 팔아먹는가 하면 바른소리 하는 사람은 《유신》악법에 걸어 함부로 처형 학살하다가 이제 는 그것도 모자라 신성한 국토에 원한의 장벽을 쌓아 나라를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 하고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매국노의 역적행위이다.

아무리 우둔하고 철면피하기로서니 지금 만천하의 민심이 어데로 돌아가고있다는것을 모를수 있단말인가.

일신의 영화는 순간이요, 오명은 천추에 남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이자들은 인륜도덕도 모르는 무뢰한들이다.

놈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것이다. 진리에 도전하고 시대에 역행했던 무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코야말았다는것을...

미일 두 상전을 등에 업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남조선피뢰도당은 기필코 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과 정의의 위엄앞에 력사의 오물로 제거되고야 말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거듭 가르치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위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평화적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조국의 품을 찾아 38선을 넘어서던 때로부터도 벌써 수십년이 흘러 검은 머리가 희여졌지만 나는 변함없이 통일의 그날을 굳게 믿으며 통일의 광장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눈물겹게 상봉할 감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매국의 무리들이 저주로운 콘크리트장벽으로 조국을 두동강내려 하지만 더러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만세소리가 강산에 진동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

다함없는 사랑이 넘치는 부두

-남포항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에 참가한 3대혁명소조원들을 찾아서-

정영호

대형짐배들의 마스트가 숲을 이룬 부두가는 배고동소리며 호각소리, 그 총연장길이가 수천메터나 되는 1호, 2호, 3호의 벨트콘베아수송선들, 그 우로 강물처럼 실려나오는 지대화물의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갈매기들도 부두가의 새 풍경이 볼수록 놀랍다는듯이 마스트우를 스칠것처럼 날아돌며 머리우에서 울어댄다.

흰 물이랑을 안고 파도는 밀려오고 밀려와 바다를 향해 가슴을 내밀고 선 아름다운 잔교를 한 품에 안으며 그 무엇인가 뜨겁고도 다정한 이야기를 끝없이 주고받는것만 같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남포항에 오늘 이와 같은 대형벨트콘베아수송선을 건설하는데 충성의 한마음을 바쳐온 이곳 3대혁명소조대대부를 찾았다. 박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구내로 다시 나섰다.

이곳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도도를 주신 영광의 부두가 아닌가!

금년도 정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맏잔 대한추위의 날에도 차디찬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여기에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부두를 일떠세우기 위해 부두가를 걷고 또 걸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사랑과 위대한 뜻이 걸음마다 스민곳이여서 이곳을 걷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없이 흥분케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있는 항들을 현대화한다면 새로 항들을 건설하지 않고도 항들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동무의 안내로 부두의 구내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먼지 하나없이 깨끗이 포장된, 눈길이 모자라도 록 아득한 한 구내 한끝에 큰 창고들이 처마를 맞대고 늘어서있다. 여기로부터 1호, 2호, 3호의 벨트콘베아수송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는데 창고마다에는 이동식 수평벨트콘베아가 있어 창고내 임의의곳에 있는 지대화물들도 자유자재로 실어서는 다시 경사벨트콘베아에 실어주는것이였다. 그러면 지대화물들은 경사벨트콘베아를 타고 기본벨트콘베아수송선에 옮겨앉아 바다와 어깨를 마주하고선 가로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 유유히 흘러나가는것이였다. 하늘가에 아스라니 위엄있게 솟아있는 《주체》, 《자력갱생》, 《자주통일》호의 지대화물상선기들은 그것들을 어김없이 이어받아 라선형수채통으로 마치도 교역사가 기교를 부리듯이 빙글빙글 미끄럼쳐 내려보내서는 이동식분배기를 통해 짐배들의 선창 구석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주는것이였다. 우리는 조금도 빈틈없이 조화된 예술작품을 보는것만 같아서 눈길을 못떼고있는데 박동무는 이 모든 조종을 하는것이 바로 저 산업텔레비존종합운전지휘실이라요 하면서 우리를 안내하였다.

우리가 운전지휘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한 옷차림에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조종대앞에 앉아있던 귀여운 처녀가 상글상글 웃으면서 맞아주었다.

그가 앉아있는 조종대앞에 서니 조금전에 구내를 걸어서 돌아보던 그 모든 자동화된 흐름선들이 12개나 되는 산업텔레비존화면에 고스란히 다 비껴있었다.

운전공처녀가 계수계량장치에 나타나는 지대화물통과량들을 주시하며 마이크를 통해 《3호 꼬리부, 화물통과량 5천!》 하고 알리자 무선전화로 《알았다!》라는 대답에 이어 《오늘 오전중 500

프로문제 없다!》라는 덧붙임의 유쾌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운전공처녀는 소리없이 불우물을 짓더니 《2호 지대화물상선기! <순천>호에 곧 상전하라!》하고 지령을 주자 《알았다! <순천>호 곧 상전한다!》라는 대답이 울려왔다.

갓가지 붉고 푸른 신호등불이 반짝이는 조종대 안에 앉아 부두전반을 자유롭게 움직이고있는 이 애어린 처녀가 무척 돋우보일 정도로 고도로 현대화된 자동장치였다.

박동무는 여기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전 또다시 8호부두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구내를 일일이 다 보살펴주신후 여기 산업텔레비존종합운전지휘실에 오시였다한다. 그날 운전지휘조종을 맡아보던 3대혁명소조원들인 박명수, 한동희동무들은 꿈만같은 감격에 몸둘바를 몰라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말 수고를 한다시며 그들이 내어드리는 결상마저 마다하시고 산업텔레비존화면들과 계수계량장치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면서 참 잘 만들었소! 아주 정확하고 훌륭하오! 모든것이 우리 식이니 얼마나 좋소, 라고 거듭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시면 오실 때마다 몸소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고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만들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오늘의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에로 이끌어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영광을 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로 돌려주시는것이였다.

기적과 혁신이 나래치는 이 나라 그 어디라없이 가는곳마다에서 느끼는것이지만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여기 남포항부두건설장에서도 가슴뿌듯이 느끼며 종합운전지휘실 문을 나섰다.

한동안 말없이 감회속에 깊이 잠겨 부두가를 걸던 박동무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남도내 각지에 나가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

게 일으켜나가던 소조원동무들이 작년 7월초에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여기 남포항으로 집결되여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것이란 곡괭이와 삽뿐이였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엄청나고 아름답것들이였다. 준비도 없었고 이런 부두건설을 해본 경험은 더욱 없었다. 당장 벨트콘베아수송선의 트라스를 제작해야겠는데 용접기술을 지고있는 동무라야 손뎌를 정도니 참으로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수천미터의 트라스로 조립되여야 할 산더미같은 강재를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은 무겁지 않을수 없었다. 거듭 토론한 결과 당시 2중대성원 모두에게 용접기능을 소유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근 공장기업소 용접공들을 찾아가서 기술을 배워왔다. 기능이 높지는 못하나 용접공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며칠만에는 그들의 첫 창조물인 트라스가 조립되였다.

2중대동무들은 자기자신들이 해놓은 그 첫 조립물을 두고 조직에서 그토록 크나큰 성과로 기뻐해주고 고무해줄수록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용접기능이 어리다보니 용접을 할 때 자꾸 불꽃을 보게 되여 저녁이면 눈을 감을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린 눈물이 흘러내려서 참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조금도 그런 내색을 내지 않기 위해 남몰래 세면기에 찬물을 떠다가 그것으로 눈을 씻어내곤하였다. 함숙아주머니들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후에야 알고 자기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3대혁명의 전위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런 뜨거운 충성의 나날을 이어 오늘은 저렇듯 강철트라스가 견고히 조립되여 억척같이 뿌리를 박고 서있으며 그우로 대형 벨트콘베아수송선이 공간과 공간을 이어 흘러가고있지 않는가.

《한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바라보이는 4호전동장 3층집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크지 않은 집이지만 많은 사연들로 얹혀진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라고 허두를 떼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계단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4호전동장을 빨리 지어야 했다. 그래서 벽돌을 벽돌공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12월의 추위속에서 천막을 치고 그안에다 화독을 여러개 들여놓고 자신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냈다. 전동장벽체를 다 쌓고 미장작업을 하던 날 작업장에 들린 기술일꾼들이 추위에 미장작업을 하면 봄에 가서 다 녹아 떨어진다고 하였다.

금년중으로 기어이 1계단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다고 결의한 그들은 날씨가 따뜻해질 봄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그들은 거듭 방도를 탐구하던 끝에 벽체 중간에다 덩대를 매고 역시 벽돌을 구워내듯이 화독을 여러개 들여놓고 벽체우에다 천막을 쳤다. 말그대로 통채로 벽체를 구워냈다. 그들은 이런 방법을 어디서 들은적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 내려는 이들의 충성의 열도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도 난관도 있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가로벨트콘베아수송선을 올릴 정통(기둥)을 박아주던 관계부문기업소 기술일꾼들로부터 4호전동장앞에 암반이 있어 정통을 박지 못하겠으니 4호전동장을 다른 자리로 옮겨야겠다는 제기가 들어왔다. 만난을 무릅쓰고 간신히 4호전동장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옮기다니...

1계단공사를 금년중으로 앞당겨 끝내겠다면 결의가 여기서 무너져내려앉고만단말인가...

잠시나마 허전한 생각에 휩싸였던 그들은 뛰쳐 일어났다. 결코 그럴수는 없었다.

12월의 차디찬 바다물속으로 뛰어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전투를 시작했다.

얼음장들이 동동 떠도는 차거운 바다물도 오직 충성의 한마음으로 뜨겁게 끓어번지는 소조원들의 발걸음을 멈출수는 없었다.

이 격동적인 소식이 삽시에 온 부두가에 터졌

다.

숙소에서 달려나온 로동자들도 간부들도 당일 군들도 지어는 방송원처녀들까지 허리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속에서 해불이 타고르고 우렁찬 구호소리가 파도소리를 압도하며 건설장에 세차게 울려 퍼졌다.

감격의 눈물 없이는 불수 없는 이 격동적인 건설장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작업장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아침 출근길이 울랐던 사람들도 이곳을 무심히 지나칠수가 없어 작업복도 없이 그대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박동무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감격적인 장면들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 자기도모르게 흥분되었다.

다시 바다물이 밀려들 그 시간까지 분과 초를 다투며 한삽 또 한삽 파낸 흙덩이들이 3대혁명소조원들과 수많은 지원자들의 손을 거쳐 운반되었다.

대형벨트콘베아수송선은 이처럼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해 날을 따라 면모를 바꾸어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이처럼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새 부두를 마련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주체조국의 위용을 만리대양에 빛내여갈 대형짐배들의 마스트들은 끝없이 설레인다.

그 모든것을 바라보며 당장 노래라도 부를것만 같은 환희로움이 가슴속에 샘솟아오른다.

우리는 멀리 향만을 떠나 돌아오면서도 그 사랑과 은정이 넘치는 부두, 축복의 부두가에 끝없이 서있는것만 같은 감회에 잠겨있었다.